청양의 나무

보호수·노거수,
마을 공동체 이야기

글 복권승 사진 박정기

청양문화원

청양의

나무

보호수·노거수, 마을 공동체 이야기

글 복권승
사진 박정기

청양문화원

일러두기

1. 책에 실린 나무는 군 보호수, 마을의 노거수에 해당합니다.
2. 나무의 수령과 외형, 심은 목적 등을 정리했습니다.
3. 글의 순서는 나무가 있는 마을과 현장의 공간적 특성을 먼저 기술하고, 나무와 마을과의 관계를 풀어낸 후, 나무가 지닌 특성과 민속적 의미 등을 담았습니다. 마을과 나무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 정리가 필요한 경우 마무리 글에 언급하였습니다.
4. 마을의 환경과 더불어 그 나무 품종과 쓰임 등 그 특성을 정리하였으며 느티나무가 주류를 이뤄 그 한계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5. 한 마을에 여러 나무가 있는 경우 마을 단위로 묶었습니다.
6. 나무의 첫인상을 글로 스케치하여 현장성을 살렸습니다.
7. 사진은 마을과 나무가 한 장면에 들어간 사진, 가까이서 찍은 사진, 나무마다 수형과 특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찍었습니다.
8. 나무의 수령이나 마을 이름이 표지석의 내용과 기록마다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표지석과 청양군 등 공공의 기록을 우선으로 판단하되, 주민들의 인터뷰와 언론에서 언급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기술하였습니다.
9. 구술해주신 주민의 말씀이 상이하여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 지면상의 한계 등 아쉽게 싣지 못한 나무도 많습니다. 추후 정리와 연구의 필요성을 여지로 남겨둡니다.

*표지 설명 · 나무의 높이 29.5m로 청양군 보호수 중 가장 큰 키를 자랑하는 수령 약 620년의 남양면 봉암리 은행나무.

· '나무' 문구 캘리그라피는 한국서예캘리그라피협회 부회장 이우영 님이 써주셨습니다.

발간사

보존해야 할 나무의 가치를 '기록'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대부분 동물은 나무에 의지하거나 생애 전반에 나무와 소통하며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무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과 함께 먹을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그늘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청양은 예로부터 산간과 구릉 그리고 하천 주변으로 지역 문화와 관련이 깊고 의미 있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산고개와 골짜기 입구의 나무는 골짜기에 들어서거나 고개를 넘을 때 지역과 마을의 경계가 되었고, 그 지역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담긴 성황당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릉과 들판,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은 힘든 일과 먼 길 피곤한 여정의 나그네들에게 그늘과 쉴 장소를 제공해 주는 정자의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의 입구와 하천의 둑을 따라 심어진 나무는 사람들의 삶터를 지키고 보호하며, 경관을 균형 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농업사회가 산업화를 거친 후 세상이 과거보다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록과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하거나 사라지는 것들은 무엇보다 소중하게 먼저 기록되고 보존

돼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역시 이미 사라지거나 현재 소멸하여 가는 마을과 지역도 있습니다. 그나마 마을과 집터의 흔적을 노거수가 지키며 그곳의 역사를 대신합니다.

과거의 가치와 소통하는 매체로서도 지역에 의미 있는 나무를 마을과 연계하여 풀어내는 일은 꼭 한번 시도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청양문화원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첫 공공성의 시작인 마을과 숲, 그리고 인간과 생태적 만남으로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나무들의 첫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발로 뛰고 글로 정리해 주신 복권승 님과 사진으로 아름답게 기록하여 주신 박정기 님의 노력, 흔쾌히 나무와 얽힌 마을 공동체 이야기를 구술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23. 12. 22.

청양문화원장 임호빈

목 차

01 청양읍

백천리 느티나무 | 북하장과 청양장을 오가던 이의 황금 쉼터 14
읍내리 은행나무 | 옛 읍치의 저자 나무, 홍수에는 버팀목 18
장승리 소나무 군락 | 향적과 사창제도의 현신 24

02 운곡면

후덕리 느티나무 | 고인돌마을의 대합실(맞이방) 32
영양리 느티나무 | 푸근하게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 38
모곡리 느티나무 | 정자 위에 정자나무 42
효제리 느티나무 | 우애 좋은 효자마을 삼형제 46

03 대치면

광금리 벚나무 & 참나무 | 벚꽃마을에 미역국으로 대접받는 나무 52
대치리 느티나무 | 한티고개 호랑이도 쉬어갔다 60
오룡리 느티나무 | 들락이는 이들에게 날씨를 알려준 기상대 66
이화리 느티나무 | 하굣길 아이들의 언덕 위 놀이터 70
장곡리 느티나무 | 천년고찰과 마을을 600년 동안 수호 74

04 정산면

백곡리 느티나무 & 은행나무 | 의병봉기와 만세운동의 결기를 품다 80
서정리 은행나무 | 600년 넘게 배우는 아이들과 소통 86
송학리 느티나무 | 상송의 장승제, 하송의 동화제와 함께하다 92
신덕리 느티나무 | 먹두레와 풍장소리 가득한 여름 들판 98
역촌리 참나무 & 느티나무 | 여장을 떠나는 관리가 말 매고 도토리 줍고 102
용두리 느티나무 | 노루목 장승과 솟대를 지켜주네 108

05 목면

본의리 느티나무 | 아래 윗동네 우애 좋은 형제 나무 네 그루 114
신흥리 느티나무 | 너우기배와 금강 뱃사람들의 쉼터 120
안심리 버드나무 수구막이 | 버드나무 생명력을 닮은 동학과 만세운동 124
지곡리 소나무 | 소중한 선사시대의 희미한 숨결이 배다 128

06 청남면

동강리 느티나무 | 나무가 만들어 준 농구 경기장 136
아산리 느티나무 | 아이들과 어르신, 청년 모두의 3층 놀이터 142
지곡리 꾸지뽕나무 | 향촌학교와 잉화달천 물레바퀴 148
청소리 버드나무 | 맑은 못에 그림자 비추는 청소고개 쉼터 152

07 장평면

낙지리 느티나무 | 사통팔달 마을의 중심 160
미당리 팽나무 | 미륵의 꿈이 담긴 미당 장터목 164
지천리 느티나무 | 바다로 가는 참게와 웃다리농악의 터전 170
화산리 소나무 | 국난에 의연히 일어선 의병과 함께하다 174

08 남양면

봉암리 은행나무 | 명당의 혈자리, 후손이 번창하리라 180
구룡리 느티나무 | 남양의 황금시대를 지켜보다 186
백금리 소나무 | 가슴팍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190
용마리 반송 | 조상 묘를 지켜준 멋드러진 자태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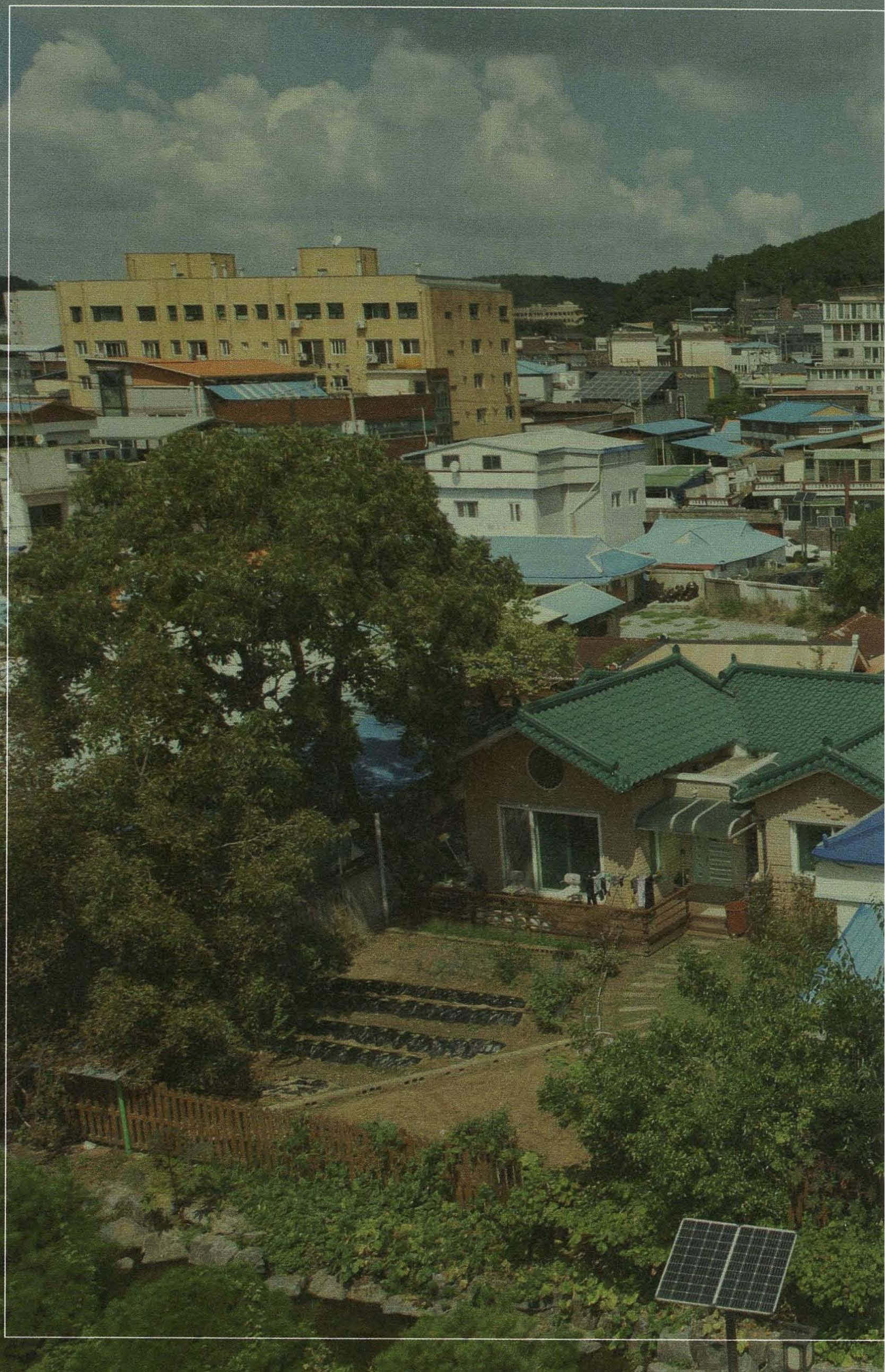
09 화성면

용당리 느티나무 | 다산 선생도 말을 매고 쉬었다 200
기덕리 & 화암리 소나무 | 송림을 아끼던 옛 조상들의 유산 204
농암리 버드나무 | 울안 사람들의 보물 210
구재리 느티나무 | 고향을 떠나는 정승이 뒤돌아보다 214
매산리 느티나무 | 8·15 광복이 살린 죽을 뻔한 나무 218

10 비봉면

중묵리 느티나무 | 두 동네 아이들의 삼형제 놀이터 224
중묵리 향나무 | 샘에서 온정의 향기 모락모락 228
관산리 느티나무 | 항상 찾아주는 주민들이 있어 행복 232
방한리 느티나무 | 나무를 귀히 여기는 마을 236
방한리 팽나무 | 전설 같은 바다를 꿈꾼다 240

부록 청양의 보호수 현황 244



01

청양읍

백천리 느티나무 | 북하장과 청양장을 오가던 이의 황금 쉼터

읍내리 은행나무 | 옛 읍치의 저자 나무, 홍수에는 버팀목

장승리 소나무 군락 | 향적과 사창제도의 현신

청양장과 북하장을 오가던 이들의 황금 쉼터

백천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549-1
수고 / 둘레 18m / 400cm
수령 233년(1790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1-182

청양 읍내를 벗어나 운곡으로 넘어가는 길로 접어들면 큰 길가 바로 옆, 지나는 이의 눈을 시원하게 하는 느티나무가 있다. 가슴높이에서 일곱 갈래로 갈라져 가지를 뻗은 모습이 꽤 균형감이 있어 잘 생긴 나무임이 틀림없다. 나무의 위치로 짐작건대 예전부터 먼길 가는 나그네의 쉼터로 사랑받는 장소였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지 나무 주변을 빙 둘러 쉼터를 조성해 놓아 쉬었다 가기 좋은 곳이다. 나무가 서 있는 위치는 과거 청양에서 한양으로 가려면 거쳐야 하는 한양가는 길목이며 청양 읍내장과 운곡 북하장을 연결하는 장터길이기도 하다. 나무는 자신의 그늘에서 오갔을 수많은 사연과 복작복작 사는 이야기를 먹고 무럭무럭 자랐으니 나무 또한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을 것이다.

느티나무는 수령 200년이 훌쩍 넘었지만 밑동 부근에 작은 메꿈의 흔적이 있을 뿐 전체적으로 건강함과 조화로움을 유지하고 있다. 뿌리 부근에는 누군가 나무의 건강을 염려해 부어줬는지 빈 막걸리병도 눈에 띈다. 노거수는 그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이 곳 나무는 마을 어귀에 자리잡고 있어 동구나무에 해당한다. 동구나무는 나그네들에겐 마을의 위치를 알려주고 주민들에겐 여기부터 우리 마을이라는 안정감과 소속감을 부여한다.

우리 주변 노거수들은 동구나무, 당산나무, 정자목 등으로 불린다. 주된 역할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지만 명확히 구분되지도 않고 꼭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동구나무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이정표 같은 나무라면, 당산나무는 마을을 지켜주는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제사를 지내는 나무를 뜻한다. 정자목은 풍광과 위치가 좋아 쉼터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는 나무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든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나무들이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마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아련해지는 존재도 마을의 나무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마을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내가 마을을 떠나 사는 지금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마을을 지키고 있는 존재에게서 받는 모종의 위로가 있다. 백발노인도 노거수 앞에선 어린아이일 뿐이다.

나무가 위치한 백천리는 매년 음력 6월 9일에 백산동 기제로 불리는 마을 행사를 지내오고 있는 마을이다. 100여년 전 마을이 생긴

이래로 빠짐없이 치러지는 행사로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제 성격이다. 백천리는 한때 청양읍의 상수원 윗마을로 예로부터 물 맑고 깨끗한 동네로 알려졌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금을 활용하여 마을 기금도 조성하고 마을 정미소도 운영하는 등 공동의 필요를 자급자족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전통이 강했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은 청양읍의 상수원 역할을 보령댐이 대신하게 되었으니 상수원 보호구역 또한 해제되었고 지원금도 끊겼지만, 과거의 그 전통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어 마을회에서 주민들의 애경사를 챙기고 매년 경로잔치를 주관하며 주민 간의 화합 또한 다지고 있다.

비정사
애자네

옛 읍치의 저자 나무, 홍수에는 버팀목

읍내리 은행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58
수고 / 둘레 19m / 420cm
수령 553년(1470년)
보호수 관리번호 8-52

청양군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청양읍, 그것도 가장 많은 유동 인구가 오고 가는 읍내 저잣거리에 오백 년을 넘게 서 있는 은행나무가 있다. 청양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의 보호수 현황을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느티나무이고, 그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나무가 은행나무다. 그중에서도 청양의 대표 은행나무를 꼽으라면 아마도 남양면 방기옥 고택 앞 은행나무와 이곳 읍내리 저잣거리 은행나무가 떠오를 것이다. 방기옥 고택 앞 은행나무가 언덕 위에 사는 양반의 느낌이라면 읍내리 은행나무는 저잣거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던 백성을 떠올리게 한다. 암수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지만, 넓은 땅을 차지하지 못해 편하게 옆으로 가지를 뻗지 못한 채 유달리 위로만 자란 수형이 어찌 보면 마음 짠해진다.

방기옥 고택 은행나무와 달리 읍내리 은행나무는 공식적으로는 주민들의 섬김을 받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은행나무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을까? 아닐 것이다. 오히려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찬 대화와 장사치들의 댓거리에 흥겨워하고 몸통을 타고 오르며 놀던 아이들의 만만한 친구임에 자족하지 않았을까? 실제로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뿐이지 요즘도 현장에는 종종 막걸리병이나 동동주병이 나무 둥치에 모셔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이 나무를

섬기고 아끼고 있다.

저잣거리 은행나무 바로 옆에는 실개천이 흐른다. 이는 용바위 아래 보가 되는 부분에서 임의로 일부 물의 방향을 바꾸고 도랑을 내어 읍내의 민가와 저잣거리에 생활용수로 공급한 부분이다. 원래 은행나무가 있는 곳은 관아가 있던 청양초등학교에 비해 아랫동네로 상대적으로 저습지에 속한다. 옛 지도에서는 인근의 동쪽으로 연못을 그리기도 한다. 여름철 까치봉과 대덕봉에서 발원한 물과 칠갑산에서 발원한 물들이 합해 용배에 이르러 홍수가 나면 이곳 청양 읍내의 저자에까지 물이 넘쳤다고 한다. 그러한 배경에서 홍수를 피해 오는 이를 거두고 챙기며, 마을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위급을 신호하던 신비한 북소리와 함께 몸을 피하던 나무라는 전설도 내려온다. 아마도 사람들을 모으거나, 장날 왔던 사람들이 만남이 필요하다면 마치 역전 시계탑과 같이 만남의 광장이 되는 곳이 이곳 은행나무 아래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에 복개되었던 하천을 일부나마 다시 자연 친화형으로 복원해 멋스러운 정자와 함께 쉬어가기 좋은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는 주변 골목에서 이뤄지고 있는 청춘거리 조성 사업으로 다시금 많은 사람이 오가며 활기를 되찾고 있으니 은행나무의 헛헛함도 조금은 채워지리라.

은행나무는 침엽수도 활엽수도 아닌 독자적인 계통군을 가지고 있는 나무다. 은행나무와 닮은 나무는 오직 은행나무밖에 없다. 2억7천만 년을 넘게 살아남아,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거의 유일한 나무이기도 하다. 열매인 은행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먹을거리가 되어줬으며 은행잎 추출액은 혈전용해제, 말초 순환기 장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재료가 되는 유용함을 미덕으로 가지고 있다.

사실 은행나무는 인간이라는 매개가 없으면 잘 번식하지 못한다. 대부분 동물은 은행나무 열매를 먹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들이 회

피하는 열매를 사람들은 맛난 먹을거리로 삼았으니 사람은 은행나무에 기대어, 은행나무는 사람에 기대어 살아온 셈이다. 이렇듯 쓸모가 많아 사랑받아 오던 은행나무가 도시에서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기도 한다. 가을철이면 익어 떨어지는 은행이 풍기는 냄새 때문이다. 최근에는 유전자 감별로 어린 나무일 때 암수 구분이 가능해

져 수나무만 골라 심을 수 있게 되면서 은행나무와 사람 사이의 갈등은 서서히 봉합되고 있다.

은행나무의 꽃을 본 적이 있는가? 은행나무는 암수딴그루로 각각의 나무는 숟가락 모양의 암꽃과 오디 열매를 닮은 수꽃을 피우는데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알아보기 힘들다. 잎이 조그맣게 자랐을 무렵 꽃을 피우는데 화려하지 않고 색깔 또한 연녹색이라 귀여운 모양의 잎이 오히려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은행나무의 색은 가을에 폭발한다. 가을철 노란색으로 단풍 드는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은행나무인데 가을 감성에 젖어 노란 은행잎을 책갈피에 끼웠던 추억 하나쯤 가져봐도 좋을 것이다. 단풍이란 여름철 왕성하게 활동하던 엽록소가 쇠퇴하며 가려져 있던 나무 고유의 또 다른 색소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현상인데 이를 '단풍 든다'라고 표현한다. 어찌 보면 나뭇잎의 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색을 찾은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나무 본연의 색은 노란색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청양읍

향적과 사창제도의 현신

장승리 소나무 군락

소재지 충남 청양군 청양읍 장승리 장승개

전북 진안이 마을 숲 80여 곳을 명소로 꾸미고 기록하여 책으로 출판한 적이 있다. 청양에도 이에 못지않게 여러 곳에 마을 숲이 보존되고 있다. 그중 장승리 마을의 소나무 군락이 대표적이다. 청양 읍내에서 보령 방면으로 가는 길과 외곽도로 보령 가는 길이 서로 합류하는 곳의 오른쪽에는 백제 시대의 고분군이 있고, 왼쪽으로는 상당히 큰 마을이 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다. 이곳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 변으로 멋들어진 소나무 수십 그루가 서 있다.

지금은 서해안 내륙고속도로의 공사로 마을이 옛 풍광을 많이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마을 앞을 흐르고 있는 장승천변으로 심어진

소나무 숲은 여전히 건강하고 푸르르다. 이 소나무 군락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인공으로 만들어진 수구막이 숲이다. 과거에는 소나무, 버드나무, 느티나무 등 1백여 그루의 나무가 장승천을 따라 줄지어 심겨 있었으나 1997년 마을 앞 농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40여 그루 소나무만 남기고 나머지 나무들은 소실되었다니 아쉬움이 크다.

현재의 모습도 훌륭하지만, 만약 1백여 그루의 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숲이야말로 청양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중 하나로 그 가치가 충분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수백 년을 사는 나무의 운명을 백 년도 못 사는 사람들의 안목으로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장승리 소나무 숲은 수령이 1백 년이 넘는 보존 가치 높은 조선 소나무 군락이지만 현재까지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현재의 보호수 관리체계가 군락이 아닌 개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부터 소나무 숲을 자연 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었으나 이 또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수구막이는 풍수지리상 마을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거나 좋은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운 건물이나 탑, 나무 등을 일컫는 말이다. 또한 수구막이 숲은 마을 앞쪽이 허전하게 트여 마을이 외부에 과하게 노출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성하기도 하는데 마을의 안녕과 무사태평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절, 자연 상태에서는 무언가 부족하기 마련인 풍수지리적 특성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풍습이다.

장승개 마을은 함평 이씨 가문이 대대로 터를 잡은 마을로 공동체적 씨족사회로서의 가치와 향약,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간 사창제를 운용하기도 했던 역사적 의미가 깊은 마을이다. 1624년(인조 2년)에 경릉참봉(敬陵參奉)의 직을 맡고 있던 이의길이 장

릉(章陵)에 관련한 상소를 올리고 이를 이루지 못하자 낙향하였는데, 이때 송대 주자(주희)의 사창법에서 받은 감명으로 약적(約籍)을 만들고 장승개 마을의 자치제를 실현하였으며, 마을의 젊은이들을 모아 후진을 양성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후 이의길은 마을의 한 가운데 있는 향현사(鄕賢祠)에 선조들과 함께 봉안되었다. 이의길의 사창제도는 춘궁기 등 어려울 때 곡식을 내어주고 가을 추수 후에 갚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서 운영한 최초의 자치적 사창제였다.

약적과 사창제가 장승개 마을 사람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스스로 극복하게 하기 위한 공동체 시스템이었다면 함평 이씨 문중이 함께 심고 키워낸 마을 입구의 소나무 숲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마을을 자연적인 위해로부터 구하고자 했던 자치적 방재시스템이었다. 이러한 이의길과 주민들의 의미 있는 자치적 활동은 공의 문집인 『양곡유고(亮谷遺稿)』를 비롯한 여러 기록과 현장에 남아있는 방재림이자 수구막이인 소나무 숲을 통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으로 남고 있다.

장승리 느티나무 ▶

02

운곡면

후덕리 느티나무 | 고인돌마을의 대합실(맞이방)

영양리 느티나무 | 푸근하게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

모곡리 느티나무 | 정자 위에 정자나무

효제리 느티나무 | 우애 좋은 효자마을 삼형제

고인돌 마을의 대합실(맞이방)

후덕리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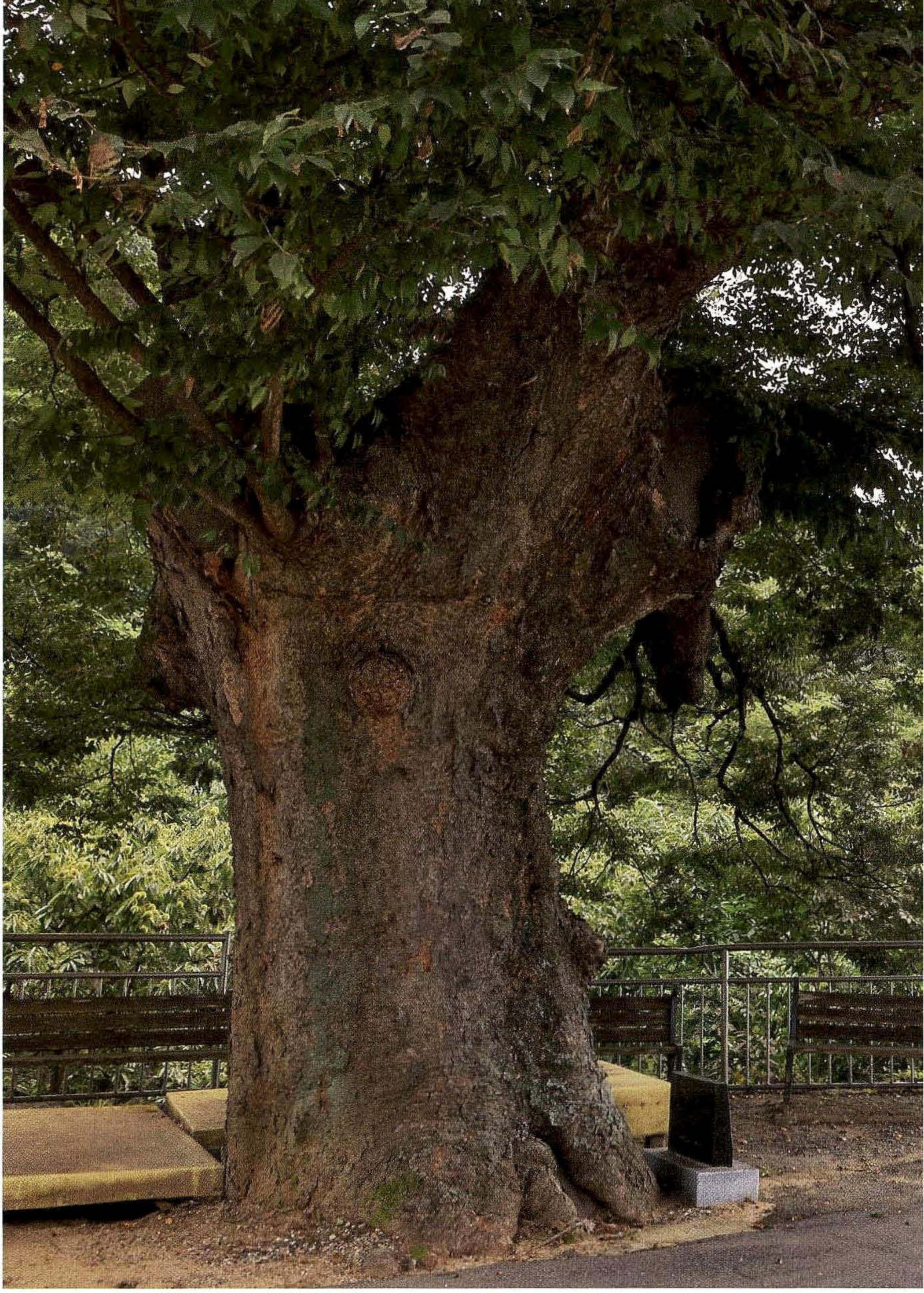
소재지 충남 청양군 운곡면 후덕리 584-2
수고 / 둘레 12m / 440cm
수령 341년(168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212

후덕리 고인돌 마을로 들어서려면 오르막길을 올라야 한다. 숨이 차오를 때쯤 반가운 쉼터를 만날 수 있는데 350년 된 이 마을 정자목 아래 그늘이다. 정자목 옆에는 큼직한 맷돌이 놓여있다. 다리를 쉬며 느티나무 건너편 주택의 마당을 바라보니 텃밭 한가운데 떡 하니 커다란 고인돌이 들어앉았다. 이 마을의 역사가 선사시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다. 바로 옆 낮은 지대에는 마을 하천이 맑고 힘차게 흐르고 있고 그 주변으로 노랑 상사화와 겹삼잎국화 등 여름을 대표하는 싱그러운 야생화가 피어있다. 여기라면 이제 보기 힘들어진 여름밤 반딧불이의 반짝이는 비행을 기대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모든 풍경이 합쳐서 범상치 않은 느낌을 자아낸다.

고인돌 마을은 연안 명씨 집성촌이다. 8월 어느 날 오후 마을을 찾았을 때도 역시나 확률대로 명 씨 성을 가진 주민을 만나 느티나무에 얽힌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하니 개구쟁이처럼 눈이 반짝인다. 단오를 전후하여 하천 쪽을 향해 뻗은 가지에 그네를 걸어 놓고 놀았던 일, 나무 위 새둥지가 궁금해 올라갔다가 뱀과 딱 마주쳐 기절초풍한 일 등을 재미나게도 전해준다. 어릴 적 집에 있다 문득 심심해져 정자나무로 나오면 하루 중 어느 때든 동네 친구 누군가는 그곳에 꼭 있었

으므로 정자나무는 자연스레 하루 중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여름이면 나무 옆 하천에서 물고기 잡아 어죽 끓이고 가재 잡으며 해질 때까지 놀았다고 한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도 느티나무 아래서라면 아무 걱정 없었다. 웬만한 소낙비에도 끄떡없을 만큼 무성한 잎사귀와 펼침폭을 자랑한다.

마을 사람들이 누군가 온다고 하면 마중 나오는 곳, 마을을 방문한 손님이 떠날 때 환송하는 곳도 바로 느티나무 아래였다고 하니 이곳 느티나무는 하루도 외로웠던 날이 없었을 것 같다. 느티나무가 정자목으로 가장 사랑받는 이유는 오래 사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수령 천년 이상된 나무의 3분의 1 이상이 느티나무다. 또 다른 이유는 가지가 사방으로 퍼지며 자라는 수형 때문이다. 무수한 잔가지를 만들며 한여름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너른 그늘을 조성해주니 사랑을 받을 수밖에. 우리나라에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중 하나가 느티나무지만 식생이 다른 유럽대륙에선 흔치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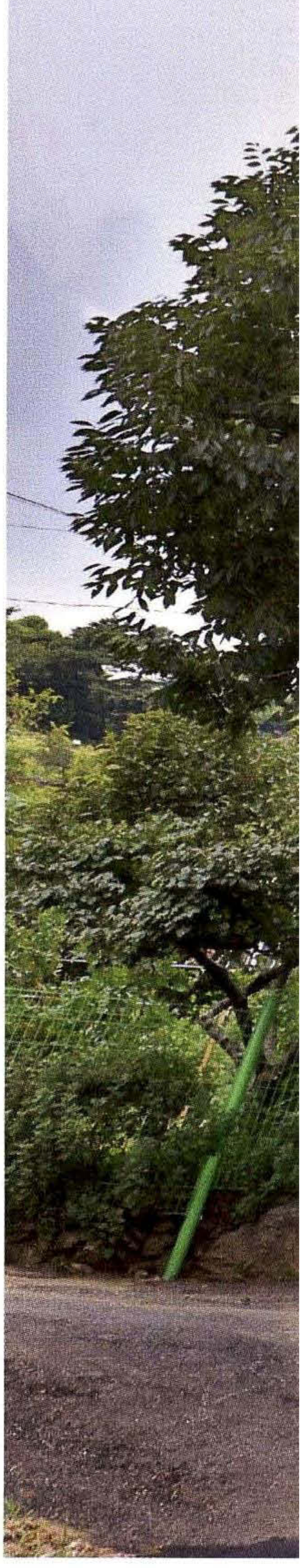


은 귀한 나무이기도 하다.

동네 주민 명 씨가 기억하는 후덕리 느티나무도 오래된 가지가 비바람에 부러지기도 하고 새롭게 자라기도 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모습이 바뀌어왔다고 한다. 작은 상처 따위에는 신경 쓰

지 않는다는 듯 중심줄기가 굵고 곧게 자란 것이 단단하고 건강한 모습이다. 나무가 첫 번째로 갈라지는 부분에선 노박덩굴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다. 나무 위에 나무가 자라는 셈인데 오래된 노거수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느티나무 주변으로는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아 보이나 이후로는 나무의 생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나무의 성장 속도가 남달랐는지 보호수 표지석도 나무와 너무 가깝다. 노거수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수가 나빠도 문제가 되고 도로포장 등으로 빗물이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면 고사하게 된다. 나무 주변을 정비할 기회가 생긴다면 나무 주변 아스팔트를 일부 걷어내고 넉넉하게 경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푸근하게 품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

영양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운곡면 영양1리 322
수고 / 둘레 12m / 340cm
수령 441년(158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214

영양리에 속하는 자연마을 영실의 안길에는 품이 넓은 느티나무가 낮은 언덕에 서 있다. 키도 크지만, 그보다는 나뭇가지가 수평으로 유난히 잘 뻗어 넓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나무의 펼침폭이 넓어 아득하고 포근한 것이 자연스레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나무다. 나무 가까이 경계석을 한 번 두르고 다시 그 주변으로는 널찍하게 동산처럼 흙을 높이 쌓았는데, 포장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여서 나무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뜻 나무둥치 주변만 길 포장을 하지 않으면 되겠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나무뿌리 끝부분에 생장점이 있어 생명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보통 나무뿌리는 자신의 가로 펼침폭보다 30퍼센트 정도 넓게 뻗어나간다고 하니 이곳은 나무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래저래 복 받은 나무가 아닐 수 없다.

아흔 살이 넘은 동네 백씨 할머니는 본인이 17세에 시집올 때도, 할머니의 시어머니가 시집올 때도 느티나무는 지금의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아흔 살 넘은 나도 400살 넘은 느티나무에 비하면 아직 청춘이라며 활짝 웃으신다.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여쭈니 마을에서 아끼고 돌보는 나무라 아이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마을 어른들이 항상 지켰다고 하신다. 나무를 아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동네 아이들이 다칠까 지켜보며 염려하는 마음도 느껴져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진다.

느티나무에는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지 의자와 평상에 손길이 느껴지고 정자에는 냉장고까지 마련되어 있다. 나무 주변은 방부목으로 작은 갑판을 만들어 놓아 그 위에 서서 나지막이 내려다보는 논밭 풍경에 운치가 느껴진다. 지금은 마을회관에서 주로 해결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나무 아래 모여 어죽을 끓여 먹고 옥수수, 감자도 쪄서 나눠 먹는 등 마을 부엌의 역할을 담당했다. 고단한 농사일을 끝내고 모여 앉아 나눠 먹는 음식에 시원한 바람과 경치가 더해졌으니 음식 맛이 꿀맛이었으리라.

마을회관에서 만난 어르신은 현재까지도 마을의 구심점인 느티나무 아래서 정성껏 칠월칠석에 영실 목신제를 지내오고 있다고 말한다. 군에서 제물 마련 비용을 지원받아 직접 제수를 마련하고 군수

님과 군의원님들도 참석하는 규모 있는 행사라며 은근히 자랑도 하신다. 단합이 잘되는 마을은 뭐가 달라도 다른 모양인지 1977년 신양천을 가로지르는 고정교를 관의 지원도 설계도 없이 오직 주민들이 합심하여 장비의 힘도 빌리지 않고 세웠다고 한다. 그 비용 또한 전 가구가 분담하여 10년 동안 갚았다고 하니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살았던 곳이다. 영양리 마을회관은 항상 주민들로 북적북적한다. 특별한 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열 명 이상은 모여 놀고 밥을 먹는다며 우리 마을처럼 주민들이 사이좋고 살기 좋은 곳은 드물 거라고 입을 모은다.

공동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단결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장치가 노거수 같은 상징물과 마을 행사다. 노거수와 마을제, 마을잔치를 통해 주민들의 무사 안녕과 마을 발전을 빌고, 행사를 통해 마을주민들의 단결력이 더욱 높아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보 호 수
수 종 소나무 고유번호 8-111
수 령 약 520년 지정일자 1990. 6. 1
수 고 18m 소 재 지 문곡면모곡리212
나무둘레 5.9m 관 리 자 리 장
청 양 군 수

정자 위에 정자나무

모곡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운곡면 모곡리 212
수고 / 둘레 18m / 590cm
수령 533년(1490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1

모곡리 느티나무는 법산을 배경 삼아 신양천이 내려다보이는 구만이길 언덕에 아담한 육각 정자와 함께 서 있다. 나무 아래에는 목신제를 지낼 때 제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짐작되는 돌 받침대가 두 개 놓여있다. 나무는 전체적으로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위로도 힘차게 뻗었고 옆으로도 적당히 가지를 펼쳤다. 아래로 쳐져 타고 오를만한 가지도 눈에 띈다. 세월만큼의 여러 옹이와 더께 같은 껍질을 갖고 있지만, 나무는 무척 건강해 보인다. 노거수에 흔히 있는 썩은 부분을 도려낸 외과수술의 흔적도 없이 굵은 둘레를 자랑하며 영험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과연 마을에서 귀히 여기고 모실만한 풍모다.

청양군지에는 마을 목신제를 음력으로 이월 초하루에 노루목 입구 느티나무와 정월 열나흘에 윗구만이 정자나무에서 지냈다는 구절이 나온다. 어느새인가 노루목 느티나무 목신제는 사라졌지만 윗구만이 정자나무 앞에서는 지금도 해마다 구만이 주민들이 무사 안녕을 비는 소지를 올리고 있다. 과거 마을공동체가 활발하던 시절에는 정월이나 칠월칠석이면 여느 마을에서나 볼 수 있는 일상적 풍경이었으나 현재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서인지 더욱 귀하게 느껴진다.

마을마다 목신제 또는 당산제를 지내는 시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월 대보름이나 칠월칠석 때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선 일 년 농사의 시작점을 정월 대보름으로 보고 일 년 농사의 절반 되는 시기를 칠월칠석으로 보았다. 대보름과 칠월칠석은 마을주민이 다 함께 먹고 즐기는 축제 같은 명절이다. 잠시 버거운 농사일을 내려놓고 보양식을 만들어 먹으며 질펀하게 놀이도 즐긴다. 이월 초하루 또한 머슴들의 수고를 위해 음식을 베풀고 즐기던 머슴날로 이때 마을제를 치르는 곳도 있다. 자연스럽게 이런 날을 택하여 마을공동체 단위로 마을의 구심점이 되는 나무, 돌 등의 상징물에 치성을 드리는 풍습이 자리잡은 것으로 짐작된다.

신양천변에는 2014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벚꽃길이 이제 십년이 흘러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새로운 벚꽃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 신양천변 양쪽으로는 반듯한 농지가 넓게 펼쳐진다. 느티나무와 벚꽃길, 어우러지는 논밭은 마을 사람들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

모두에게 평화로운 풍경이다.

느티나무가 서 있는 곳, 구만이라는 지명은 과거 마을 부잣집이 헐렸는데 그곳에서 구만 석이나 되는 곡식이 발견되어 붙여진 것이라 한다. 그 이름값은 지금도 명맥을 잇고 있어 신대저수지의 풍부한 수량에 기대어 구만이 들은 여전히 풍요롭다.

우애 좋은 효자마을 삼형제

효제리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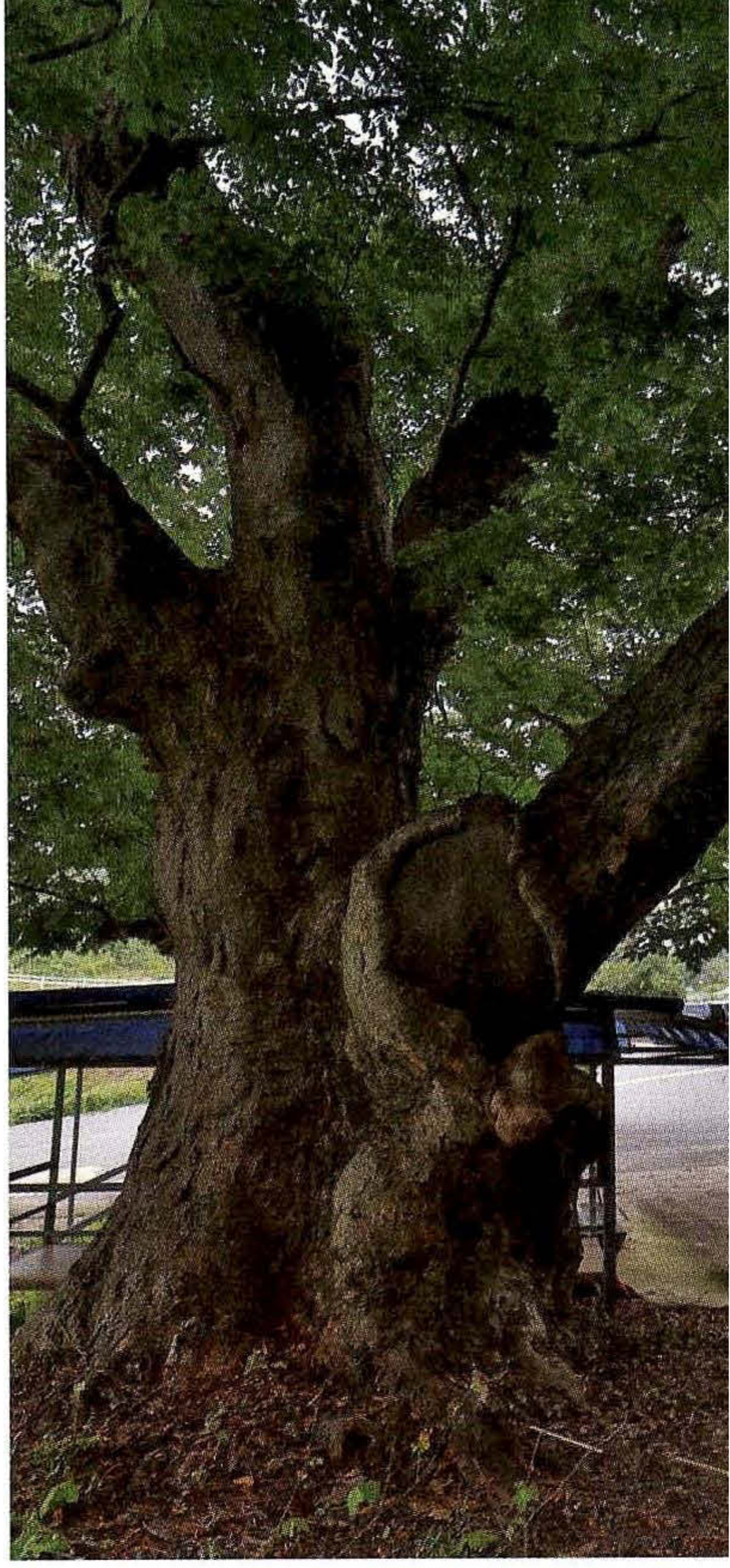
소재지 충남 청양군 운곡면 효제리 758-1

비봉면 중묵리 외덕고개 양쪽을 수문장처럼 지키고 있는 느티나무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져 있는 곳에 느티나무 삼형제가 있다. 비봉의 외덕고개를 넘어 운곡 땅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꽤 큰 마을이 보이는데, 이 마을이 운곡면 효제리 언묵이 마을이다. 길의 목이 되는 곳에 있는 마을이라 언묵이다. 이곳 안쪽으로 300여 미터를 들어오면 마을회관 옆으로 널찍하게 알루미늄 섀시에 지붕을 얹은 현대식 정자가 길게 나와 있고 이 정자의 위쪽 언덕으로 사이좋게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 있다.

이 나무들은 임진왜란으로 낙향을 한 연안 명씨 응자, 규자 어르신께서 언묵이에 터를 잡고 심은 나무라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임란 당시 마을의 입향조께서 심은 나무이니 대략 430여 년이 된 나무이다. 1960년대까지도 제를 지내고 섬겼던 이 나무는 일제강점기 우마차의 바퀴로 쓰겠다고 베어가려는 일본인들이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의 격한 항의를 통해 베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한다. 나라에 큰 일이 있으면 산을 울리는 징소리 같은 큰 소리를 내어 알리기도 했다는데 실제로 3.1운동과 8.15광복 때도 나무에서 큰 소리가 났었다 한다. 2003년 청양·예산의 산불 재해 당시, 삼 일 밤낮 예당저수지까지 다 불에 타는 상황에서도 이 나무 삼형제가 지켜 산불의 화마에서 마을이 무사할 수 있었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다.

나무에 대한 주민들의 신성한 믿음은 실제 마을을 찾아 현장에서 나무를 바라보면 더욱 설득력이 있는데, 가장 아래에 위치해 정자로 활용되는 큰형님 나무의 경우 그 연륜으로도 장남다움이 느껴지며, 가장 위쪽의 막내 나무까지 세 나무 모두에서 느끼는 웅장함과 나무가 차지하는 넓이가 과히 압도적이다. 이토록 넓은 세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에서 이 마을 아이들은 매일 신나게 놀며 성장했을 것이다.

이곳 느티나무 삼형제 말고 마을회관을 바라보며 왼쪽 언덕에도 주민들이 새로이 느티나무를 한 그루 심었다. 이는 마을 밖에서 바라볼 때 좌청룡과 우백호의 산줄기 균형을 맞추어 마을을 잘 감싸주기 위함이 아닌가 추측된다. 삼형제 나무의 맞은편 산줄기 언덕 끝에 새로 심은 느티나무는 비교적 젊은 나무라서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나무가 다 크면 3그루 느티나무와 함께 언묵이 마을을 균형 있는 숲으로 감싸주는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다. 청양의



마을과 나무들에서 희망을 보는 것은 늙어 죽어가는 나무들이 있으면 마을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새로운 자목을 심어 고목의 공간적 특성과 정체성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03

대치면

광금리 벚나무 & 참나무 | 벚꽃마을에 미역국으로 대접받는 나무

대치리 느티나무 | 한티고개 호랑이도 쉬어갔다

오룡리 느티나무 | 들락이는 이들에게 날씨를 알려준 기상대

이화리 느티나무 | 하굣길 아이들의 언덕 위 놀이터

장곡리 느티나무 | 천년고찰과 마을을 600년 동안 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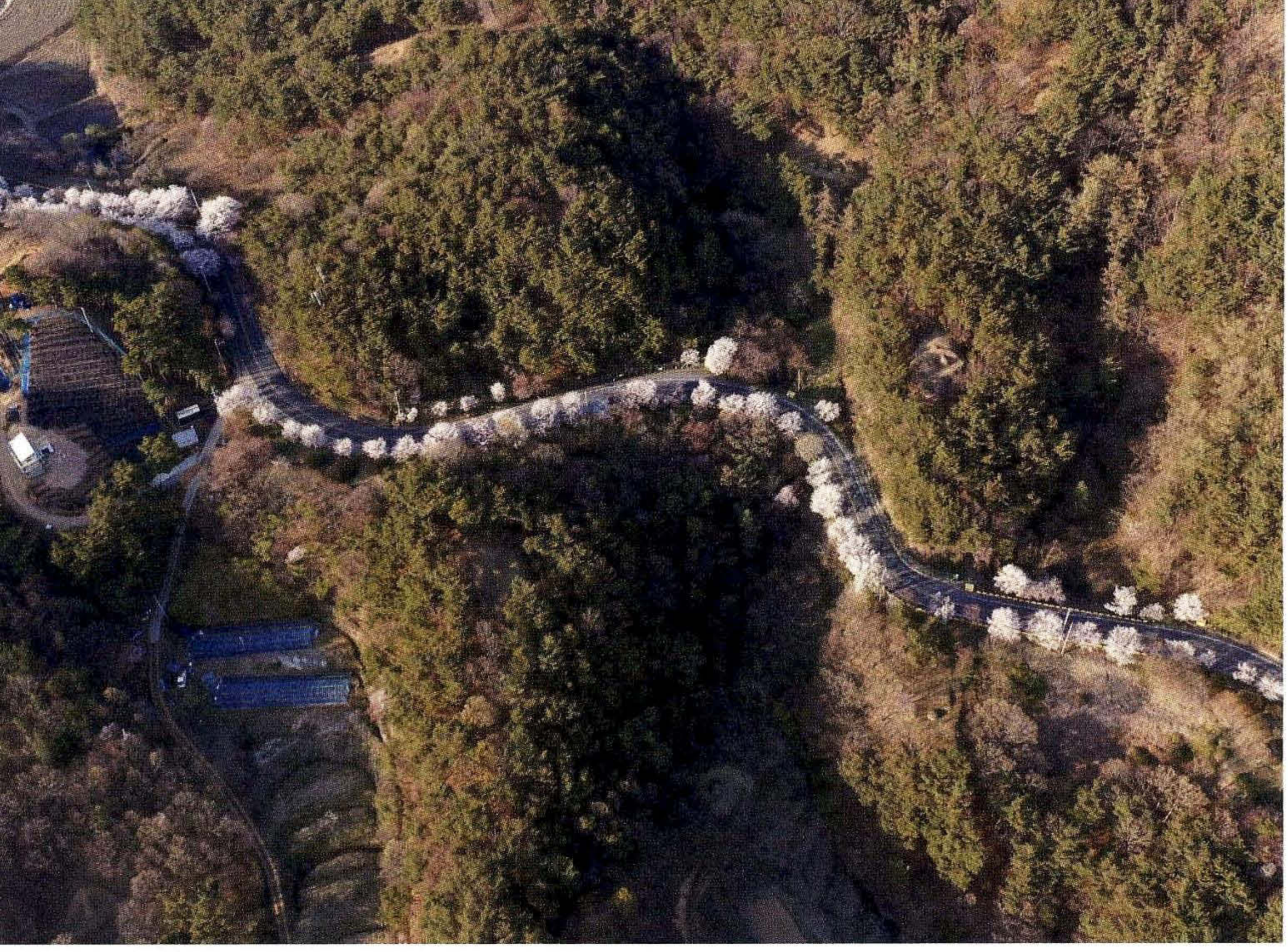
대치면

벚꽃마을에 미역국으로 대접받는 나무

광금리 벚나무 & 참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광금리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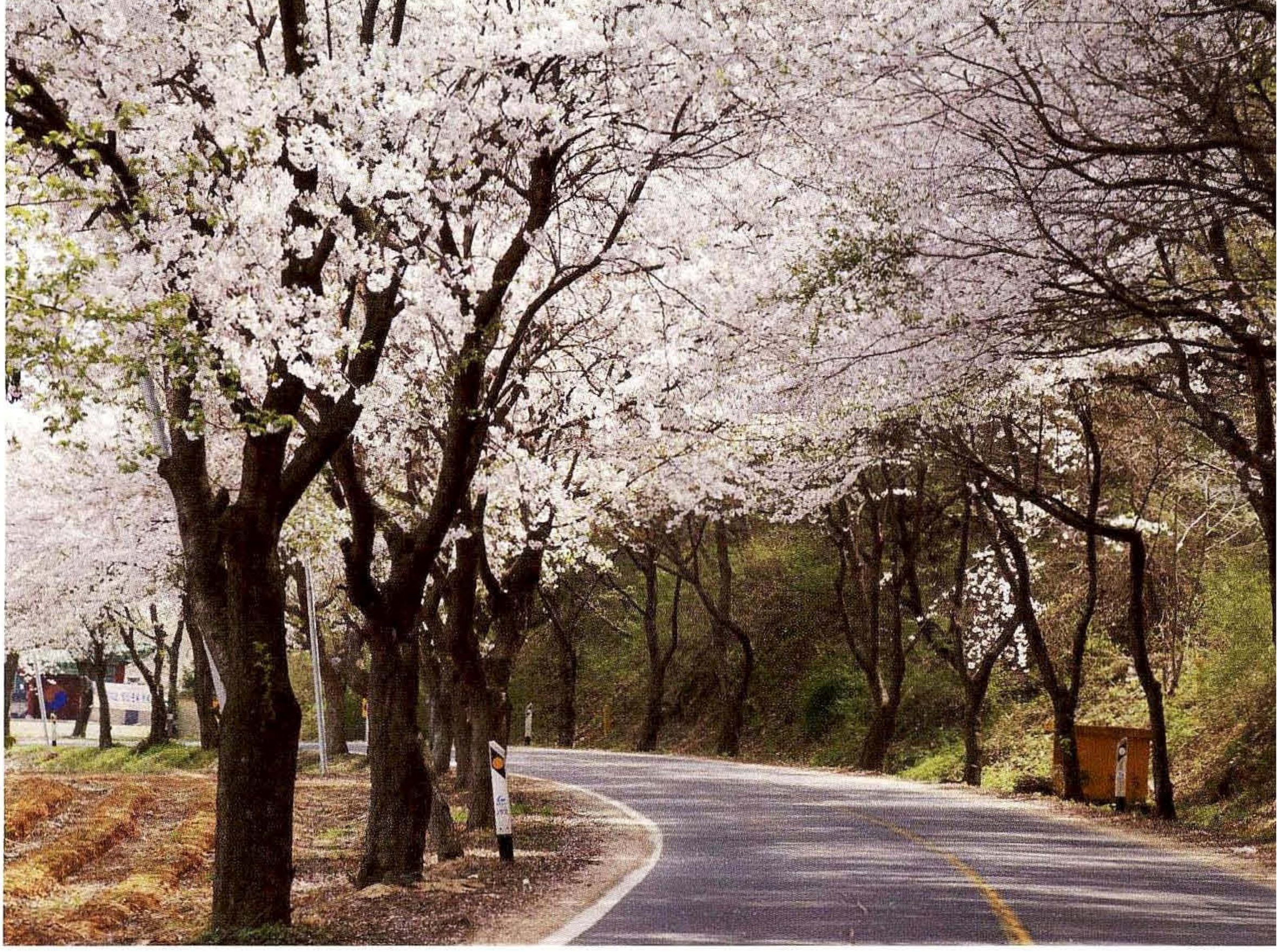
타지인에게 청양을 대표하는 풍경을 꼽으라면 열에 일곱은 칠갑산 벚꽃길을 꼽을 것이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가로수 부문에 선정될 만큼 봄철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곳이다. 그중에서도 칠갑산 서쪽 자락을 감싸고 도는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아름드리 벚나무가 하늘을 덮으며 꽃 터널을 만들고 있는 하이라이트 구간이 광금리를 지나는 구간이다. 벚나무가 만들어내는 풍광에 기대어 광금리는 녹색농촌마을과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되어 칠갑산산꽃마을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체험객이 다녀가는 명소가 되었다. 벚꽃으로 유명한 쌍계사, 진해, 여의도 등이 대부분 쭉쭉 뻗은 직선도로에



심어진 벚꽃이라면 칠갑산은 오르락내리락하는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훨씬 자연스럽고 멋스러움이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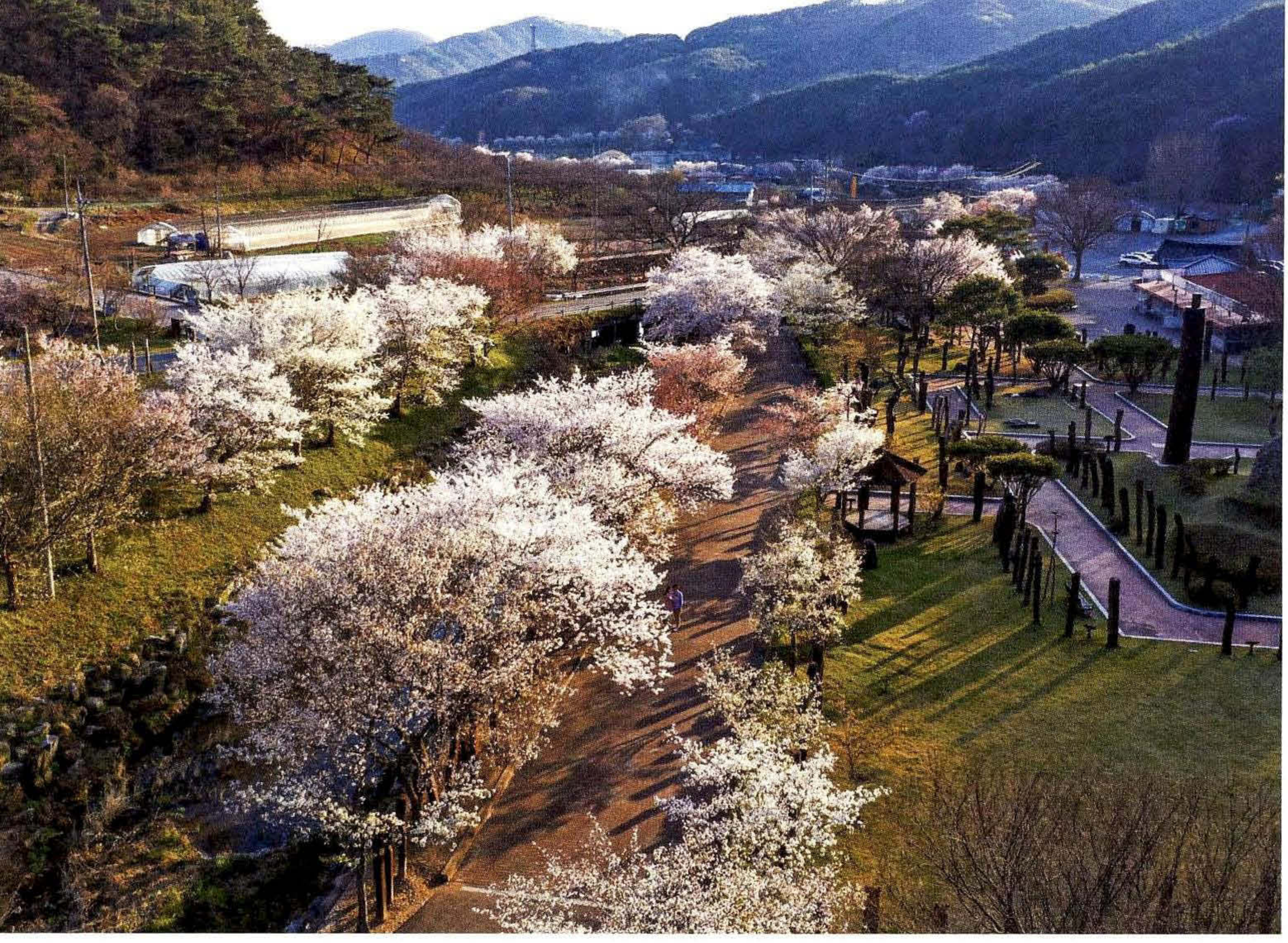
주정 삼거리에서 장곡사 입구까지 이어지는 6km 벚꽃나무 길은 1986년 250그루가 심어진 것을 시작으로 2~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성되었다. 벚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는 나무다. 느티나무, 소나무 등의 나무가 후대를 위해 선대들이 심는 나무라면 벚나무는 심고 나서 10~20년이면 덕을 볼 수 있는 현세대를 위한 나무다. 칠갑산 벚나무는 지각 벚꽃을 피운다. 다른 지역 벚꽃이 떨어지는 4월 15~ 20일 경에 절정을 이루는데 요즘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그마저도 뒤죽박죽이 되어 개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벚나무 종류 중 주로 가로수로 심는 것은 왕벚나무다. 수수한 산벚나무꽃과 비교해 나무 전체를 뒤덮을 만큼 화려하게 꽃피우는 특징



때문이다. 벚나무의 열매를 버찌라 하는데 식용으로 사랑받는 과육이 두툼한 서양 버찌와 달리 우리나라 벚나무의 버찌는 작고 맛도 별로다. 서양 버찌는 열매가 맛있는 반면 꽃의 화려함이 우리 것보다 뒤진다고 하니 묘하게 공평하다는 생각이 든다. 비록 맛이 없어 식용으로 사랑받지는 못하나 꽃이 진 후 녹색에서 빨간색으로, 다시 검은색으로 익어가는 오종종한 작은 열매를 감상하는 것도 재밌다.

왕벚나무를 둘러싼 원산지 논쟁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일본 왕벚나무는 일제강점기 창경궁에 조경수로 심으면서 도입됐고 진해 군항을 건설하면서 대규모로 식재되어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일본에 의해 심어졌으므로 일본이 원산지라 생각했던 왕벚나무는 한라산에서 자생지가 발견되면서 논쟁의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1930년대 일본학자가 제주도가 원산지임을 인정하면서 종결되는 듯했으나 2018년에 유전자 분석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왕벚나무가 모계는 같지만, 부계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아마도 기나긴 왕벚나무의 원



산지 논쟁에는 아름다운 벚꽃을 편한 마음으로 감상하고픈 민족의 자존심이 배경이었을 터이다.

한옥 마당에 소담하게 피고 지는 백일홍의 원산지가 멕시코임을 굳이 떠올리지 않듯 이제는 왕벚꽃도 그저 그 자체의 아름다움으로 사랑해 줘도 되지 않을까?

벚나무는 봄철 압도적인 꽃잔치로 탄성을 지르게 하는 나무로 기억되지만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아름다움이 있다. 다른 나무가 아직 단풍 들기 전 이른 가을부터 서서히 잎의 색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일조량이 풍부하면 붉은색에 가깝게, 조금 부족하면 노란색으로 물든다. 눈 밝은 사람이라면 벚나무가 터널을 이룬 구간에 이르러서는 바깥쪽은 붉은색, 터널 안쪽은 노란색으로 물드는 오묘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벚나무의 수명은 80년 내외로 알려져 있다. 칠갑산 벚나무들도 수령 40년을 넘어서고 있으니 기대수명의 절반을 산 셈이다. 길을 따라 굽이치는 벚꽃 터널을 더욱더 오래 볼 수 있으려면

정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금리에는 또 하나, 숨겨져 있으나 보호목으로도 손색이 없는 귀한 나무가 있다. 너븐밭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낼 때 항상 이 나무에도 제를 올리는데, 국내에서 찾기 쉽지 않은 규모의 참나무가 월봉산 8부 능선 자락에 있다.

나무는 실제로는 한 나무이지만 가지가 땅에 닿는 부분에서 크게 2

개의 둥치로 갈려서 자랐으니 두 나무처럼 보인다. 주민들은 이 참나무를 천년 참나무로 부르지만 실제로 참나무의 수명 한계 등이 있으니 대체로 300~400년을 추정한다고 본다. 실제 나무의 품종은 굴참나무이며 너븐밭과 쇠밭 사이 월봉산이 있고, 마을에서는 지금까지도 여성들이 이 나무와 산신당에 근접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주민 가운데에서 생기 복덕을 따져 정한 사람 3명이 정월 열나흗날 저녁에 산에 올라 미역국으로 현장에서 밥을 지어 제를 올린다. 먼저 산제당의 옆 20미터가 넘는 바위 암벽에서 윗제사라는 제를 올린 후 바로 아래에 있는 굴참나무에 이르러 아래 제사를 지내는데, 이미 사흘 전 외야산내끼(평소와 다르게 왼쪽으로 꼬아 만든 새끼줄)에 한지를 달아 금줄을 엮어 화주(제관)와 마을 사람 모두를 산제당에 들이지 못하도록 금한다.

실제 산제당과 굴참나무 근처에 이르면 다른 곳에서 흔히 보이는 수십 년생 나무들과 규모와 형태가 전혀 다른 수백 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와 참나무 수십 그루가 보존되고 있어 그 위세에 압도당할 만하다. 이유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만큼은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마을에서 금기시하고 관리했기 때문이다. 화려함의 진수를 보여주는 쇠밭의 벚꽃길과는 정반대로 엄숙하고 준엄해 보이기까지 하는 나무숲과 수백 년 된 천년 참나무가 너븐밭을 이루는 월봉산에 있어 광금리의 쇠밭과 너븐밭을 아름답게도 하고 신비롭게도 하고 있다.

한티고개 호랑이도 쉬어갔다

대치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대치리 98-3
수고 / 둘레 20m / 620cm
수령 633년(1390년)
보호수 관리번호 8-54

청양읍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아스팔트 포장이 된 국도가 1983년에 완공된 36번 국도다. 그리고 청양에서 가장 먼저 터널다운 터널이 뚫린 곳은 이곳 36번 국도가 칠갑산을 넘어가는 지점에 있는 대치터널이다.

청양 읍내에서 10km 남짓 칠갑호를 지나 옛 36번 국도를 따라 오르다 보면 대치터널 전방 500m 푯말과 함께 좌측으로 제법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에 그냥 보기에도 둘레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오래된 정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곳이 오늘날 대치면 이름의 유래가 되는 한티(대치)마을이다.

지금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 산 아래 첫 마을 정도이지만 과거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이곳은 대치면(과거 동하면)의 면사무소가 있던 곳이다. 이곳의 면사무소가 시전리에 있던 동상면사무소와 함께 아래쪽의 주정리로 합쳐 오늘날의 대치면사무소가 되기 전, 대치면사무소는 한티고개 느티나무 안쪽에 있었다.

예전부터 이곳은 청양현에서 정산현을 지나 공주로 가는 길목 중에서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다. 지름길인 만큼 당연히 빠르다는 장점 외에 험준하고 산림이 울창하다는 단점도 있었다. 이러하니 이 길을

가는 행인들은 울창한 칠갑산 산림에 호랑이의 출몰을 자주 목격하게 되고, 혼자서 고개를 넘는 것이 위험하니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고개를 넘게 된다. 그리고 모여 있을 장소가 필요하니 당연히 정자나무를 심게 된 것이라는 옛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다. 또한 어느 때 인가는 이 정자나무에까지 호랑이가 내려와 앉아있어 사람들이 모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실제로 1939년 8월 8일자 조선일보에는 이 정자나무의 옆이 되는 대치면사무소 앞마당에 호랑이가 앉아있어 사람들이 무서워 면사무소를 다니지 못했다는 기사도 나온다. 불과 80여 년 전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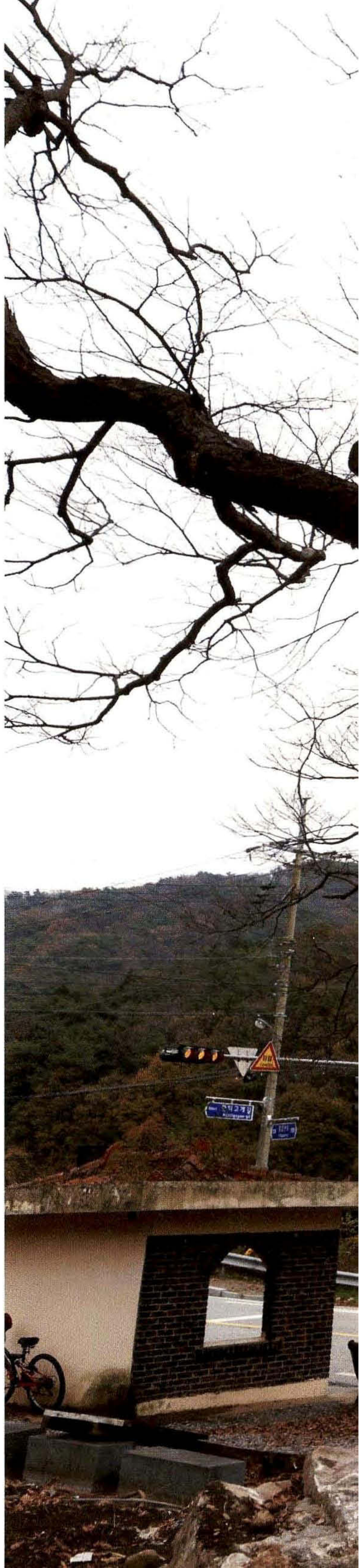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야기도 있기 마련이니 이곳 한티고개 느티나무 아래에서 쉬어 가는 나그네들에게도 긴 여행길에 웃음을 주는 전설이 있다. 지금은 청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된 모기장수의 지팡이 전설이다.

옛날 산의 정기를 온통 받고 태어나 힘센 장수가 된 사람이 자신과

같은 힘장사가 또 있는가 전국을 살피는데, 큰 산세에 골이 백 개가 넘으면 자신을 능가하는 장수가 태어난다고 알았다. 칠갑산에 이르러 골짜기가 능히 백 개가 넘을 듯싶어 열심히 골골마다 찾아다니며 골짜기 수를 세었는데 딱 하나가 모자란 아흔아홉골이었다. 아쉬워하던 장수가 지팡이를 던지고 피곤함에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나타난 칠갑산 산신령이 영험한 산의 골짜기를 세게 된 것을 탓하며 꾸짖자 잠에서 깨었다. 일어나 보니 잠자리만큼 커다란 모기가 자신의 정강이를 물고 있어 이 모기를 칼로 베었다. 그러자 숲속의 수많은 모기가 달려드니 부적을 태우고 도술을 부려 모든 모기를 죽였다. 이후 이곳 칠갑산 골짜기에는 모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와 함께 잠에서 깨고 실망한 장수가 그곳을 떠났는데, 그때 던졌던 지팡이가 꽂혀 지금의 느티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대치리는 장승제를 지내는 마을로도 유명하다. 보름 동안 화주로 선출된 이의 집에는 금줄을 띠고 황토를 뿌리고 마을에서는 우물을

청소해 새 물이 차면 1주일 동안 아침저녁으로 목욕재계하며, 그 동안 마을 사람들은 그 우물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하니, 장승을 세우기까지의 마을에서의 정성이 지극했다. 이 마을의 장승은 청양에서 칠갑산으로 오르는 옛 36번 국도변 마을 입구 길가 양옆으로 늘어서 있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일제강점기 경찰관리소(지서)가 설치되며 장승을 세우던 장소가 옮겨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느티나무 근처에 장승이 서 있으니 옛 정자나무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들락이는 이들에게 날씨를 알려준 기상대

오룡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오룡리 407
수고 / 둘레 20m / 490cm
수령 333년(1690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217

신묘함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오룡마을로 들어선다. 새로운 이장님과 대화를 나눴다. 이곳 마을은 산신제와 거리제를 오래전부터 지내왔다. 오룡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들은 대체로 명당이다. 이곳 오룡리 또한 다섯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투는 형국이라 한다. 그리고 용이 들어간 다섯 개의 지명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사람들의 상상을 자극하게 한다. 용내는 하천이다. 용바위는 말 그대로 바위이고 용왕물은 샘솟는 물이다. 청룡날은 산줄기가 되며, 용둠벙은 습지이자 폭포가 되는 물이다. 결국 이 마을의 다양한 지형들을 대표하는 산과 내, 그리고 바위와 우물에 웅덩이까지 모두 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 오룡의 기운이 시작되는 곳, 잘생긴 나무 한 그루가 있다. 400살이나 먹은 나무라는데, 멀리서 바라보아도 큰 상처나 부침 없이 아직도 젊은 시절의 한결같은 용모를 간직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자면 클대로 다 크고 한창때라 할 수 있는 20대 중반의 나이를 유지하고 있는 70대 할아버지의 노익장쯤 되는 거다. 줄기 하나하나 썩은 줄기가 없어 그 흔한 딱따구리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건강한 나무만큼이나 오룡리 마을은 건강하다. 원주민들이 건강하고, 거기에 더해 귀촌한 여러 세대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마

을 아래 칠갑저수지와 마을 뒤의 대덕봉 자락 사이에 중말과 독고실을 지나면 제대로 된 분지가 펼쳐진다. 그 분지의 시작을 알리며 반갑게 주민들과 방문객을 맞이하는 느티나무는 요즘말로 청양에서 가장 동안 나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오늘도 오가는 사람과 차량 가리지 않고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마을을 들락이는 모두에게 풍향계의 역할을 하던 나무. 마을의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는 골짜기로 드나드는 바람을 모두 맞이한다.
윤동주 시인의 나무라는 시에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 라는 구절이 있다. 나뭇잎의 잎과 잎자루가 좁은 이유를 고규홍 작가는 나뭇잎이 흔들리고 싶다고 표현한다. 부러지지 않으면서도 바람에 흩날리고 싶어 하는 나무, 사람들은 이런 나무를 보며 바람의 세기와 바람의 방향, 그리고 그 바람이 가져온 이후의 날씨를 생각한다. 골짜기 바람들이 모이는 곳, 골짜기 사람들이 모여 들락이는 곳이다.

오룡리의 느티나무는 입구의 언덕 위에 자리한다. 그래서 느티나무 잎이 나고 푸르러지고 단풍이 드는 것으로 계절을 확인하기도 했고, 느티나무에 드는 바람과 빛으로 장날 장을 보러 가는 주민들의 나들잇길 날씨를 예측하게 하기도 했다.

하굣길 아이들의 언덕 위 놀이터

이화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642
수고 / 둘레 18m / 650cm
수령 633년(1390년)
보호수 관리번호 8-55

청양에서 공주 신풍으로 넘어가는 2차선 포장도로 옛길을 가다 보면 이화정 경로당을 지나 짐대울고개 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 눈에 확 들어오는 품 넓은 느티나무가 있다. 적당한 높이로 쌓고 바른 석축 위 나무 주변으로는 정자와 벤치가 있어 누구든 잠시 쉬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곳이다.

나무는 곧게 자라다 사람 어깨높이쯤에서 크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 그 갈라진 틈에서는 어디서 씨앗이 날아왔는지 신기하게도 올괴불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다. 단맛이 있어 새들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 식물이니 이곳에 자리잡게 된 사연을 산새들의 귀여운 소행으로 유추해본다. 도로 쪽으로 뻗은 가지는 통행의 원활함을 확보하기 위함인지 여러 번 가지를 잘라낸 흔적이 눈에 띈다. 그런데도 나무는 여전히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고 있다.

느티나무는 홀로 자라기를 좋아한다. 주변에 빽빽하게 다른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면 가지를 펼치지 못하고 위로만 높게 자라거나 쉬이 경쟁에서 밀려 생존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충분한 공간과 햇볕이 확보되면 가지를 옆으로 뻗으며 키와 덩치를 키워 거목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정자목으로 가장 사랑받는 수종이 되었다. 까탈스럽지 않게 자라 큰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을 그 아래로 불러 모으니 자연스

레 마을의 살아있는 사랑방이 된다. 이화리 느티나무 바로 옆에는 과거 방앗간이 있었다고 하니 항상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을 것이다. 홀로 자라지만 그 넉넉한 품으로 외롭지 않은 일생을 보내는 셈이다.

이화리 느티나무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해마다 단오 즈음이 되면 나무에서 그네를 뛰고 놀았는데, 어느 해인가 머리 양쪽에 귀가 돋쳐 있는 빨간 구렁이가 나무를 감고 있었다고 한다. 상서롭지 않다고 여긴 주민들은 그때부터 나무에 그네를 매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거목이 된 나무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을 어른들의 마음이 녹아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최근까지도 목신제를 지냈는데, 마을에서 학식과 인품이 높은 어른이 축관이 되어 축문을 읽고 당주는 마을에서 운이 닿는 사람을 골라 정하게 된다고 한다. 음력으로 정월 이레 되는 날 마을의 입구 두 곳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세 무더기씩 뿌린 후 제수를 준비하고 정월 14일(마을에서는 개보름날이라고도 부름) 저녁 10시쯤 제사가 시작

되어 12시에 끝나는데 마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소지를 올리고 제를 지냈다 한다. 아쉽게도 이 목신제는 10년 전 즈음에 명맥이 끊겼다.

나무를 만나기 위해 이화리를 방문한 날, 운 좋게도 이화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주민을 만나 나무와 얽힌 어릴 적 추억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놀이터가 없던 시절 여기 느티나무 아래는 아이들에게 최고의 장소였다고 한다. 하굣길 어김없이 들러 한바탕 뛰어놀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각자의 집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일과였다. 방학이면 더욱 심심했던 동네 아이들은 누가 출석을 부르는 것도 아닌데 아침을 먹고 나면 당연한 듯이 마을의 구심점이었던 느티나무 아래로 모였다고 한다. 일단 그곳에서 모여 남자아이들은 산으로 몰려가거나 여자아이들은 나무 아래서 공기놀이 따위를 하며 하루를 보냈다. 어릴 적 친구들과의 추억 대부분이 이 나무와 얽혀있으니 느티나무는 언제든 찾아오면 시공간을 초월하게 하는 신묘한 장소이다.

느티나무
가든

천년고찰과 마을을 600년 동안 수호

장곡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장곡리 334-8
수고 / 둘레 18m / 670cm
수령 633년(1390년)
보호수 관리번호 8-53

칠갑산 벚꽃길을 지나 장곡사 입구에 다다르려면 정면으로 마주치게 되는 나무가 있다. 가운데 버티고 있는 나무를 비켜 양쪽으로 도로가 나 있으니 정면으로 마주칠 수밖에 없다.

장곡리 느티나무는 청양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다. 지금이야 주변에 여러 편의시설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장곡사 다녀오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멍가게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전히 느티나무는 시선을 사로잡는지 장곡사를 다녀오는 사람들이 다리를 쉬며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널따란 나무 그늘에 팔각정과 여러 개의 평상과 벤치가 놓여 있고 특이하게도 전통 보드게임이라 할 수 있는 고누놀이판이 놓여 있다. 마을주민과 여행객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꾸고 돌보는 정성이 엿보이는 공간이다.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언뜻 느티나무 한 그루만 보이지만 압도적인 600년 된 형님 나무 때문에 시선을 덜 받는 300년 된 동생 나무가 지척에 있다. 300살이면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는 수령이건만 상대성의 원리로 주목을 덜 받고 있으니 잘 돼도 반만 내 덕, 못 돼도 반만 내 탓이란 말이 실감 난다. 비록 지금은 두 나무 사이에 도로가 놓여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었지만 아마도 땅속 사정은 다를

것이다. 보통 나무들은 가지를 뻗은 넓이보다 더 넓게 뿌리를 뻗는다. 두 나무 거리로 짐작해보면 땅속뿌리는 서로 만나 얽히고 보듬고 있으리라.

장곡리에서 황금두꺼비가 목격되었다는 이야기는 여러 번 지역신문에 등장한다. 사실 두꺼비를 비롯한 양서류들은 그 빛깔을 자주 바꾸기도 하고, 이곳은 여느 두꺼비와 달리 계곡에 사는 물 두꺼비들이 서식하는 곳인지라, 물 두꺼비 중에서 밝은색을 띄는 녀석이 종종 우연히 발견되는 모양이다. 장곡리 느티나무 밑동 부분은 두꺼비의 울퉁불퉁 근육질의 겉모습을 닮았는데 마을에서 발견된다는 두꺼비와의 재미있는 연결고리다. 사실 나무 아래쪽에 여러 개의 혹이 불거져 전체적으로 울룩불룩 밑동이 굵어진 모습은 노거수에서 흔히 관찰되는 특징으로 나뭇잎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탄수화물이 미처 나무뿌리까지 닿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으로 생긴다. 사람으로 치면 동맥경화에 해당하는 현상이다. 노거수를 더욱 신비롭게 보

이게 하기도 하는 이 현상은 나무의 생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니 다행스럽다.

장곡사 느티나무는 비록 도로 한가운데 있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태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바로 옆에는 장곡천이 흐르니 물을 좋아하는 나무의 습성을 충족해 주고 있고 나무 주변으로는 넓게 경계석을 두르고 포장하지 않은 맨땅을 두어 나무뿌리가 편안히 숨쉴 수 있다. 보호수 대부분이 개발과 주민 편의에 밀려 밑동 부근까지 아스팔트나 벽돌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곳은 보기에도 좋고 나무에도 좋은 선택을 하였으니 다행스럽다.

04

정산면

백곡리 느티나무 & 은행나무 | 의병봉기와 만세운동의 결기를 품다

서정리 은행나무 | 600년 넘게 배우는 아이들과 소통

송학리 느티나무 | 상송의 장승제, 하송의 동화제와 함께하다

신덕리 느티나무 | 먹두레와 풍장소리 가득한 여름 들판

역촌리 참나무 & 느티나무 | 여장을 떠나는 관리가 말 매고 도토리 줍고

용두리 느티나무 | 노루목 장승과 솟대를 지켜주네

의병봉기와 만세운동의 결기를 품다

백곡리 느티나무 & 은행나무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73
수고 / 둘레 10m / 500cm
수령 591년(143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219

은행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정산면 백곡리 311
수고 / 둘레 23m / 470cm
수령 541년(1482년)
보호수 관리번호 8-57

청양군에서 '백'이라는 이름으로 첫 음이 발음되는 행정리 중 공통점이 있는 두 곳을 이야기하라면 청양읍의 백천리와 정산면의 백곡리가 대표적일 것이다. 이 두 곳의 특징은 현 관아터 인근에 고대 석축산성이 지금껏 유적으로 남아있는 곳이다.

전국의 많은 '백'자 돌림의 지명들은 상당수가 성과 관련이 있다. 이는 예전 백제 시대 산성을 잣 또는 잣뫼라 불렀고, 이런 이름을 한자로 바꾸면서 잣 백(柏)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백곡리의 백실은 과거 사비성이 함락당하고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최후까지 항전했던 좌평 정무 일행이 진을 치고 있던 백곡산성의 아래에 위치한다. 이곳은 신라의 명장 품일이 끝끝내 함락시키지 못하고 돌아가 이듬해 무열왕이 직접 공성을 하고서야 간신히 함락시킬 수 있었던, 그 유명한 두릉윤성이라고도 부르는 산성이 있는 마을이다. 그러한 이유로 이곳에서는 복국운동 최후의 항전지였던 임존성에서 전하는 묘순이바위와 흡사한 성 쌓기 내기를 하는 오누이에 관한 이야기로 치마바위 전설이 내려오고 있기도 하다.

어르신들의 말씀과 지역사학자들 그리고 군지 등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정산현의 신라와 고려 시대 읍치는 지금의 서정리 일대가 아니고 백제의 고성이 있는 백곡산성 아래로 행정리로는 백곡리 일대라

고 말한다. 그러하니 백실 이곳은 한때 청양군에서 가장 큰 읍치가 형성되었던 지역의 중심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만큼 유서깊고 역사적인 마을답게, 나무들에서도 뿌리 깊은 사연들이 전하고 있다.

첫 번째 나무는 백곡산성 중턱이 되며,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두촌사 사당 옆의 은행나무이다. 이곳 두촌사는 임진왜란 당시 중봉 조헌 선생을 보좌하며 금산전투에서 장렬하게 숨을 거둔 임정식 장군을 기리는 사당이다. 그리고 그 사당 옆을 지키고 있는 은행나무와 관련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공께서 조헌 선생을 따라 금산으로 출병하기 전 은행나무를 보며 '왜적을 멸하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고 죽으리라'라는 충정과 결의를 담은 시를 새기고 떠나셨다는데, 현장에서 수백 년이 흘렀으니 그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다. 임란의 깊은 상처도 우리 민족이 극복했듯 나무 스스로가 치유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후로 이 집을 지켜온 후손들에게는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은행나무가 징을 치는 소리와 같은 '웽'하는 소리를 내

었다는 누대의 경험담이 전해진다. 공의 나라 생각하는 충정이 나무에게 감동을 줘 그리한 것은 아니겠냐는 이야기다.

두촌사에서는 매년 음력 8월 18일 금산전투에서 700여 분이 함께 순절한 그 날 제향을 올린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공이 출정 후 430여 년째 매년 가을 노란 은행잎 단풍을 푸르른 가을 하늘에 수놓고 있다. 지금의 종손에 이르기까지 12대를 이 장소를 지켜온 공의 후손들과 함께….

그리고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여러 그루 중에서도 가장 큰 느티나무는 구한말의 의병 활동과 특히 3.1운동 당시 백곡리 사람들의 결기가 담겨 있는 나무이기도 하다. 마을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중 가장 오랜 나무 앞에 보호수 표지석이 서 있고 그 우측으로는 넓은 주차장 부지가 있으며, 이 부지에서 1984년부터 매년 3월 1일이면 합동위령제를 거행한다. 청양군에서 가장 활발했던 3.1 만세운동이

며, 충남에서도 가장 유명한 만세운동 중 하나인 정산 만세운동의 주역들이 이곳 주민 홍범섭 씨 집에서 모여 거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당시 만세운동으로 옥고와 태형을 받은 이들의 상당수가 이 마을 주민들이기도 하다. 당시 태극기를 인쇄했던 목판이 마을에 있었고 지금의 어르신들은 그때 제작했던 태극기 중 남은 것과 목판을 본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소실되고 없다.

마을 어귀에서 두릉윤성 쪽을 바라보면 두 나무가 함께 보인다. 멀리 마을의 가장 위쪽에 있는 은행나무는 여느 은행나무보다 더욱 하늘로 치솟았고, 회관 앞마을의 입구에 있는 느티나무 또한 다른 지역의 느티나무보다 더 휘고 꼬이고 가지가 굵게 꺾여 올라가며 근육질로 울퉁불퉁하다. 아마도 임정식 장군의 고고함을 닮아서 은행나무는 그리 높고, 국가와 마을의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났던 주민들의 뚝심을 닮아 느티나무는 또 그리 자란 것이 아닌가 싶다. 사람이 나무를 닮은 것일까? 나무가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일까? 아마도 나무도 사람도 그 지역의 지형과 지세, 환경 전반과 함께 같은 결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600년 넘게 배우는 아이들과 소통

서정리 은행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16-3
수고 / 둘레 22m / 620cm
수령 641년(1382년)
보호수 관리번호 8-56

청양군에서 두 번째로 큰 장이 서는 정산장은 과거 읍내장이라 불렸으며 5일과 10일에 선다. 청양군을 대체로 산동과 산서로 나눌 때 산동지역의 중심이 정산면이 된다. 지리상으로도 금강에 연해 있는 산지 곡간의 물들이 치성천으로 모여드는 곳이 과거 치성장이 서던 곳이고, 장터에서 좀 더 위로 올라와 홍수에서 안전한 곳에 현의 관아가 들어섰으니 이 곳은 예로부터 정산 땅의 중심이 되는 서정1리이다.

옛 지역 행정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으니 장터의 이름도 읍내장이고, 역사적인 시설과 유적 또한 많을 터, 지금의 면사무소와 초등학교는 옛 지도로 짐작건대 내아와 동헌 그리고 작청 등이 있던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예전 정산중 자리는 대체로 과거 객사터로, 그리고 지금도 지명이 남아있는 옥거리라는 골목길의 위쪽으로 형청이 있었을 것으로 이야기들이 모인다. 그렇다면 과거 조선 시대 지방 교육기관으로 주요 국가시설이었던 향교는 어디에 있을까? 면사무소에 주차하고 면사무소를 바라보며 왼쪽으로 담이 틘 곳의 경사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홍살문과 부자묘(공부자 묘)라 씌어있는 비가 보인다. 그리고 조금 위쪽으로 언덕 위에 규모가 상당히 큰 2층으로 된 정아루(菁莪樓) 누문이 보인다. 2층 구조인 누각 형태의

향교 정문은 그리 흔하지 않은 형식이며 경사로의 위쪽에 위치해서 더욱 위풍당당하게 보인다. 이제 정산향교에 이른 것이다.

은행나무는 이 향교의 부속 시설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어디나 유교를 숭상하는 곳에는 항상 심겨 있는 나무가 은행나무이니 말이다. 향교의 우측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는 이 은행나무는 위에 표에서 언급한 바 수령이 600살을 훌쩍 뛰어넘으며 살아왔다. 이곳에 향교가 세워진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리 본다면 백곡리 일대에서 이곳으로 읍치가 옮겨진 시기에 대한 고민도 이 은행나무의 연대 측정 결과와 연계해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면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다.

행단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공자님의 이야기에 따라 한양 땅의 성균관을 비롯해 전국에 있는 여러 유학을 공부하는 향교와 서원에는 은행나무를 심은 곳이 많다. 다산 정약용을 비롯해 많은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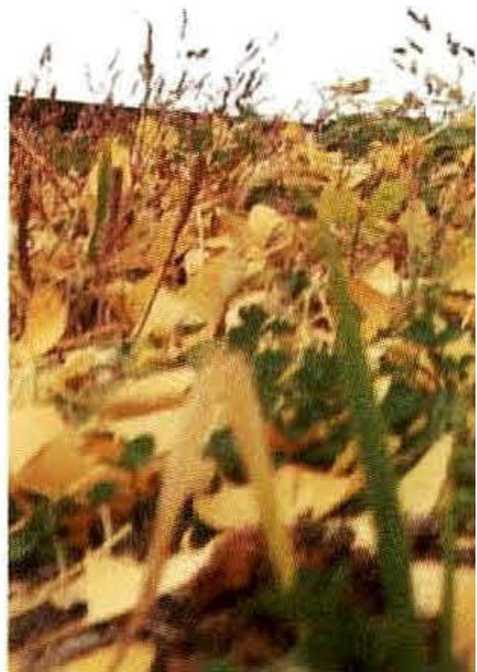
이 행단이 은행나무가 아니고 살구나무였는데 그를 오역해 생긴 촌극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냄새 나는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매번 심고 가꾸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의 은행나무 사랑은 각별하다.

정산향교의 역사 또한 이 은행나무와 함께 시작해, 수많은 정산현

지역의 동량들이 이곳 은행나무 밑에서 학문을 닦고 정진하며, 또한 학우들끼리의 우정도 나누었을 것이다.

임란 직전 정산현감으로 부임했던 사계 선생 또한 이 은행나무를 당연히 찾으셨을 터이고, 택리지를 지은 이중환 선생 또한 이곳 향교를 들러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정산 땅을 훑어보셨지 않았을까 상상해 본다.

1895년 이후 현재 향교의 동재와 서재는 비게 되었고 교육의 형식과 기관의 명칭 그리고 위치도 달라졌지만, 은행나무는 아직도 어린 학생들에게 깨달음의 침묵을 제공하고 있다. 언덕 바로 아래의 정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이 나무의 단풍을 보며 학업에 정진하고 있으니, 600년을 넘게 어리고 젊은 학생들과 함께 교류하고 있는 이 은행나무는 청양에서 가장 몸과 마음이 젊고 건강한 나무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나무의 세력이 건강하고 왕성한 것이 행복해 보인다.



정산면

상송의 장승제, 하송의 동화제와 함께하다

송학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410
수고 / 둘레 16m / 550cm
수령 141년(188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1-6-274

정산면 소재지에서 애경산업의 공장을 좌측에 두고 북쪽 아산 방면으로 2차선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해남리를 지나 오른쪽 도롯가에 동화제 전수관이라는 꽤 큰 건물이 보이고, 잠시 후 다리를 건너기 전 왼쪽으로 상당히 큰 그늘을 베풀고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를 만나게 된다. 이곳이 정산면 송학리이다. 여기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솔티터널이 나오고 예전 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공주 신풍으로 넘어가는 매우 긴 고갯길이 있었다. 예로부터 졸, 줄, 골, 솔, 실 등으로 불리는 명칭은 길다를 뜻하고 있다. 그래서 솔바람, 골풀, 왕골, 솔나무, 밧줄, 바늘과 실 등등은 모두 길다. 그만큼 솔티라는 고개는 긴 고개라는 뜻이다.

긴 고개의 입구가 되는 곳이니 이곳의 공간적 특성으로 보았을 때

이 느티나무는 전형적인 길가의 쉼터가 되는 휴게소 나무이다.

이런 나무가 불과 1882년에 심어졌다고 하는데, 비록 그 나이가 젊으나 연대와 비교해 나무의 수세와 둥치의 크기는 300~500년 된 나무의 그것에 못지않다. 그만큼 거대하고 잘생긴 느티나무가 큰 길가에 있어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마도 이 느티나무는 어린 시절 길가의 정자목으로 그늘을 잘 드리울 수 있는 나무로 선택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무는 잘 자라서 너무도 훌륭하게 길가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

현장에 도착해서 나무를 둘러보면 과거보다 사람들이 서 있는 공간이 1.5~2m 가량 높아졌다. 원래의 둥치가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로 단을 올려 인근의 2차선 도로가 난 부분과 수평을 맞춘 것이다. 그리하고 보니 콘크리트로 된 사람들이 노는 마당과 실제 나무의 뿌리가 땅과 마주한 부분과는 높이차가 발생한다. 마당 아래 원래 나무가 싹을 틔웠던 곳까지 내려가 보았다. 그리하니 하천과 나무와의

높이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다. 송학리 느티나무는 치성천의 발원이 되는 송학 실개천과 함께한다. 하천의 규모는 평소 갈수기에도 저수로 기준으로 폭이 4~5m 가량으로 그 규모가 극 상류치고 상당히 큰 하천이다.

그래서 과거 마을 사람들은 이곳 하천 바닥에 느티나무 그늘이 드리워지면 더운 여름날 그곳에서 빨래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하기에 그리도 좋았다고 한다.

이제 전수관까지 지어진 동화제 이야기를 해보자. 정산면 송학리는 예로부터 동화제의 마을로 유명하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과거 마을에서 살았던 출향인과 인근 주민들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소문이 나며, 열 나흗날 동화제를 보고자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마을에 사람들이 줄어들며 그 규모 면에서는 과거만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아직도 500여 명 이상이 모이는 명실공히 청양군 아니 충

청남도를 대표하는 마을 동화제다. 규모 때문만이라면 마을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다. 송학리의 동화제는 그 내용 면에서도 의미가 깊은데, 특히 전체 제의의 흐름을 아우르는 키워드로 사람과 축원, 대동과 동화 불의 근간을 흐르는 주제가 나무를 근간으로 시작된다.

동화제에 활용되는 큰 동화단은 모두 뒷산의 나뭇가지이고, 온갖 나무들을 해다 둘레가 50척에, 높이는 100척이 되는 높은 동화대를 설치한다. 나뭇가지의 종류와 동화대의 높이는 다른 마을의 동화제나 달집태우기를 압도한다. 그리고 마을회관에서부터 풍장을 치며 걸립하고 동화대를 세우고, 불을 붙인다. 제를 올리고 나면 지게놀이로 지게가마타기와 휘장돌기로 지게목발치기, 작대기치기 등 다양한 지게춤을 추며 큰 동그라미를 그렸다가 오므렸다 폈다 하기도 하고 꼬리도 자르며 변화무쌍하게 한바탕 흥겹다.

이러한 대동의 놀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나무타령이다. 온갖 나

무들을 해학적으로 해석해서 타령으로 풀어내어 재미있다. 고개 밑 마을인 상송과 하송이 함께 모여 대동하는 송학리의 동화제는 이곳 주민들의 각별한 나무사랑과 함께 100살 조금 넘은 느티나무를 500살 먹은 나무처럼 자라게 했다.

먹두레와 풍장소리 가득한 여름 들판

신덕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정산면 신덕리 423
수고 / 둘레 14m / 560cm
수령 241년(178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4-189

칠갑산의 대치터널을 지나 옛 36번 국도변을 따라 천장호의 멋진 풍경이 끝날 때쯤 정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천장리 방면으로 내려오거나, 정산에서 미당 쪽 청양 나들목을 가다가 토정바위가 있던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예상보다 너른 들이 나오며 들판 사이로 천장호에서 내려오는 잉화달천이 흐른다. 이곳은 와촌리와 신덕리가 함께 쓰고 있는 들판으로 궉들과 덕동, 신대, 와촌 등지의 마을들이 옹기종기 혹은 뜨문뜨문 자리하고 있다. 이곳에서 잉화달천을 거슬러 상류로 천장리 방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편에 꽤 규모가 있는 마을 두 세 곳이 나오는데 이곳이 신덕리 아랫궉들(아랫뜸)과 윗궉들(윗뜸)이다. 여기 윗궉들(궉뜸)이 들판과 만나는 곳에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느티나무는 들판 한가운데 언덕진 곳에 심겨 있다. 과거에는 인근보다 비교적 들판이 넓은 신덕리이니 덕뜸과 윗궉뜸 아랫궉뜸 등 마을 이름에 '뜸'들이 많다. 들판이니 집들이 뜨문뜨문 있어 생긴 이름이다. 그중에 윗뜸마을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에는 냉장고를 비롯해 가스 화덕까지 마을주민들이 점심을 해 먹는 부엌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마을 쉼터이자 공용 마을식당으로 지금도 활용되고 있는 모양이다.

예전에는 칠석날 또는 백중날에 느티나무에 술 한 잔 바치고 나무 그늘에 솥을 걸고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인근 와촌리의 두레패와 신덕리의 두레패가 이곳 윗뜸 정자나무에 모였다. 시작은 와촌리에서부터인데, 농기를 들고 풍장을 치며 이곳 신덕리까지 오면, 신덕리의 두레패가 합세해 함께 놀았다 한다. 와촌리가 형님 두레였고, 이곳 신덕리가 동생 두레인데, 항상 칠석날에는 이곳 정자나무에 모여 먹두레로 놀았다고 한다. 들판 한 가운데이니 마을 어른들의 눈치 볼일도 없고, 주변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으니 정자나무 그늘 또한 넓어 언덕 아래에서 놀기에 좋았을 듯하다.

1975년쯤 천장호에 물을 가두면서 하류가 되는 지역에 수로가 놓이고 경지정리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후 가뭄과 홍수 걱정이 없어져 좋아지긴 했지만, 와촌리와 신덕리 윗뜸에 있던 느티나무 두 그루에는 경지정리가 큰 위기였다고 한다. 경지정리 과정에서 뿌리를 건드리기도 했을 테고, 환경이 바뀌게 되니 두 나무 모두 시름시

름 앓기 시작했다고 한다. 결국 와촌리의 마을 한가운데 있던 느티나무는 그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다행히 신덕리 마을의 느티나무는 마을에서 지극 정성으로 보살핀 보람이 있었는지 그 몸살을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되살아났다. 이후로 따로 마을에서 제를 올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할머니들이 나무의 고마움에 막걸리 한 병씩 나무 아래에 놓고 내 복을 빌기보다 나무가 건강하기를 빌기도 하는 모양이다. 내 입신이나 건강을 비는 게 아니고 나무를 생각하는 그 할머니들의 마음이 아름답다.

되살아난 느티나무의 누마루에 걸터앉아보았다. 한참 더운 8월의 그늘에 잊을 만하면 천장리 칠갑산 쪽에서 불어오는 솔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아 본다. 김매기를 모두 끝낸 청년 두레패들이 여름 한나절 신명 나게 놀고 흠뻑 취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도 싶다.

여장을 떠나는 관리가 말 매고 도토리 줍고

역촌리 참나무 & 느티나무

참나무(상수리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역말길 75-3
수고 / 둘레 18m / 250cm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정산면 역촌리 760-1
수고 / 둘레 16.4m / 480cm
수령 191년(183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4-2-273

역촌리는 전국적으로 꽤 많은 마을에 같은 이름의 지명이 있다. 마치 향교가 있는 마을을 교동이나 교촌이라 부르듯 과거 역이 있던 마을은 역말이나 역촌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정산면 역촌리는 이인도 찰방에 속한 유양역이 있었으므로 역촌이라 불렀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애티리, 통산리, 상평리, 하평리, 옥거리, 교촌리, 서정리, 장대리, 광생리, 하청동의 각 일부를 통합해 역촌리로 정산면에 편입되었다.

유양역의 역말은 정산현과 불과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아 때로 객사도 공유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우스갯소리로 정산향교가 있는 교동에서부터 유양역이 있던 역촌2리 역말까지 비 올 때 버선발로 다녀도 젖지 않았다고 마을 어르신들은 말씀하신다. 그만큼 번화한 동네가 지금의 역촌리라며 주민들의 자부심이 대단하다. 지금도 이곳은 정산산업단지(애경산업 등)와 정산도서관 등 공공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부여에서 아산을 잇는 도로변 교통의 요지이다.

역촌리도 큰 동네인지라 1리와 2리로 나뉘는데 지금의 어덕말(1반)과 쑥티(2반)가 1리이고 역말이 2리이다. 어덕말은 언덕 위에 있는

동네라는 뜻이고, 쑥티는 '산줄기가 쑥 하고 나온 곳에 있는 고개'라는 뜻이라 한다. 유양역이 있던 마을은 지금의 2리인데 역말이라는 이름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과거의 역은 관리들의 숙박과 왕래, 그리고 관에서 사용하는 물자들의 수송을 지원하는 기관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큰 동네이니 1~2리를 통틀어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이 4개나 된다. 과거 조선 시대부터 상심리와 애치리, 역말 등으로 각각의 동계가 따로 있었고 각자의 독립적인 고유의 공동체가 있다. 이런 고유의 공동체들이 모두 함께 하나 되는 때가 있다.

역촌리는 정월 대보름에 성황제를 지낸다. 평소에는 마을에 따라 다른 공동체로 자치 조직이 있지만 서낭당을 모시는 성황제가 되면 어덕말과 쑥티, 역말에 이르는 모든 역촌리 사람들이 한데 모여 성황제를 올린다. 정월 대보름에 마을 언덕 한복판의 큰 참나무(상수리나무로 수령 400년 이상으로 추정) 아래 모여 성황제를 지내며 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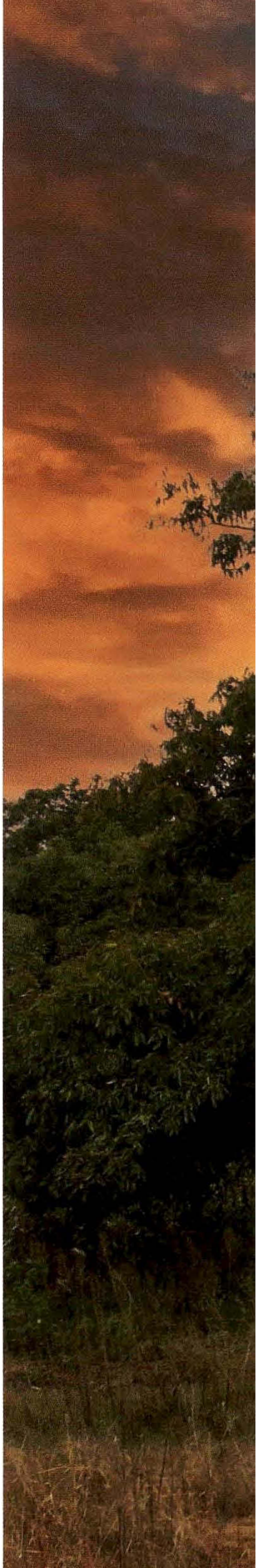
▲ 역촌리 느티나무

물을 치고 노는데, 역촌리 마을의 저력은 성황제에서 나온다고 어르신들은 말씀하신다.

따로 마을에 큰 주막이 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치성장터와 솔티고개, 정산현 관아와 유양역 그리고 간두문의 길목 중심에 있으니 손님들의 왕래가 잦았고, 이런 손님들을 대접하다 보니 과거에는 집집마다 술을 잘 빚어내었다 한다. 지나는 손님에게 술 한 잔 대접하던 술 인심도 좋았던 넉넉한 마을이 역촌리다.

치성천 줄기 따라 냇가 주변에는 어르신들께서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느티나무도 있다. 아랫마을 역촌2리 사람들은 강변의 느티나무에도 같은 날 제를 지내왔는데, 과거 이곳에 역이 있을 때 말을 매어놓고 여행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여장을 정비하거나 귀한 손님이 오실 때 기다리던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마을의 참나무(상수리나무)가 높지 않은 언덕길을 따라 온양 쪽으로 말을 몰던 사람들이 마을에 이르는 경계에 있는 나무였다면, 역촌2리의 느티나무는 역

에 속한 둔토를 농사짓느라 고단한 농부들을 삶의 시름에서 잠시나마 해방해 주는 휴식과 생활 속의 나무였다. 언덕 위의 상수리나무는 그 큰 나무의 위세에 많은 도토리를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하천 옆의 느티나무는 마을을 홍수로부터 지키며 도토리 대신 그늘과 휴식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역촌리 사람들에게는 1리의 상수리나무나 2리의 느티나무 모두 정겹고 고마운 나무다.



노루목 장승과 솟대를 지켜주네

용두리 느티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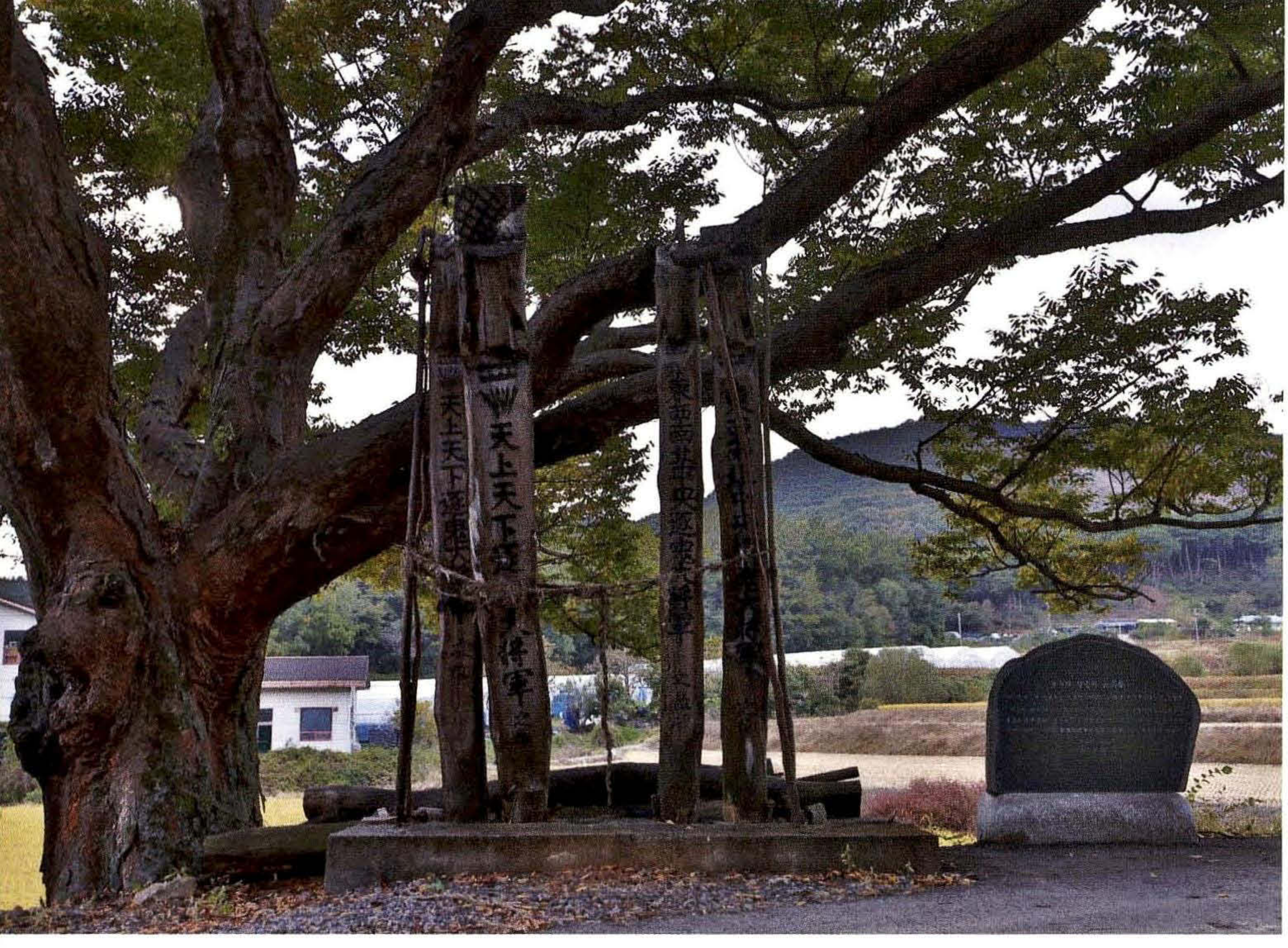
소재지 충남 청양군 정산면 용두리 488
수고 / 둘레 18m / 400cm

용두리는 조선 말엽 고종 32년(1896년)에 정산군 읍내면의 지역으로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 하여 용머리 또는 용두라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면의 상후동, 하후동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용두리라 하여 정산면에 편입되었다.

정산면에서 향교 위쪽 옛 36번 도로를 따라 천장호로 가는 고갯길을 오르다 보면 노루목이라 쓰인 이정표와 식당과 전통장을 빚고 연구하는 공동작업장이 나온다. 이때 버스 승강장에 못 미쳐 오른쪽으로 길을 들어 100미터쯤 걸어가면 가지가 풍성한 정자나무 두 그루가 보이는데 여름철 더위를 피해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다.

앞의 나무는 남자들이 모이고 뒤의 나무는 여자들이 모인다.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이 별로 없다. 이유를 여쭈어보니 어르신들은 이제 모두 마을회관으로 들어가셨다 한다. 요즘은 마을회관에 에어컨을 켜고 무더위 쉼터로 운영을 하니 이제 정자나무는 50~70대 시골 젊은이(?)들의 차지가 되어간다.

마을에는 모두 다섯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었다 한다. 그렇다고 동서남북을 따로 지키거나 가르는 나무는 아니다. 대체로 길목을 지키던 성황이나 정자 역할을 하는 나무다. 지금은 저수지가 되었지만 정산장 내려가던 큰 고개 길가에도 느티나무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두 그루 나무, 마을 한가운데 한 그루, 마을 뒷골 후동으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있는 성황나무의 역할을 하던 나무까지 모두 다섯 그루가 된다.

이 중 지금까지도 가장 마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나무는 장승과 솟대를 세워 나무 아래에서 섬기고 있는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이다. 이 느티나무 옆에는 넓적한 바위가 있어 지나가는 가객이나 주민들, 특히 학교를 다녀온 마을 아이들의 휴일 놀이터가 되어주고는 했는데 지금도 바위 위에 장기와 고누판을 새겨 넣어 놓은 것이 남아있다. 이곳 느티나무에는 해마다 새로 깎어 세워놓은 여러 개의 장승이 서 있다. 이 장승들이 유명한 칠갑산 장승 가운데 대표라 할 수 있는 용두리 장승이다.

매년 정월 14일에 이뤄지는 용두리 마을의 장승제는 다른 마을들이 석장승이나 외부의 힘을 빌려 만든 전문가의 솜씨로 장승을 만들 때, 고집스럽게 마을 스스로 장승을 만들고 장승제를 지내는 전통을

지킨다. 아직도 전통적인 제작 기법으로 용두리만의 표정이 있는 고유의 장승을 만들어 세우는 모습이 아름답고 소중하다. 예전에는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에 동제 지낼 때까지는 특별히 허락을 받지 않으면 마을에 함부로 사람을 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만큼 마을 사람들이 동제였던 장승제를 위하는 마음이 컸다. 대화의 마무리를 하려는데, 마을주민께서 살짝 한 말씀 덧붙여주신다. "우리 마을도 칠석날 칠석제 지내유."

05

목면

본의리 느티나무 | 아래 윗동네 우애 좋은 형제 나무 네 그루

신흥리 느티나무 | 너우기배와 금강 뱃사람들의 쉼터

안심리 버드나무 수구막이 | 버드나무 생명력을 닮은 동학과 만세운동

지곡리 소나무 | 소중한 선사시대의 희미한 숨결이 배다

아래 윗동네 우애좋은 형제나무 네 그루

본의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목면 본의리 108
수고 / 둘레 20m / 490cm
수령 491년(153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5-192

안심리 장터에서 서쪽으로 난 큰 골을 따라 그 골에 걸맞은 하천 하나가 면 소재지로 흘러온다. 이 하천의 이름은 본의천이다. 이름이 독특하다. '본의' 지명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으나, 이채로운 것은 이 골짜기의 상류에 밤나무골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밤이나 밤껍질의 고어가 되는 보늬에서 그 어원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다.

이곳 본의리는 크게 본의1리와 2리로 나뉘는데, 본의2리에 안정자와 바깥정자로 부르는 느티나무 2그루가 있는 마을이 동막골이다. 이곳이 더 깊은 상류의 골짜기이고, 저수지의 아랫동네로 제법 넓은 들판에 논들이 펼쳐진 곳이 본의1리이다.

본의1리의 입구 들녘 한가운데 멋들어진 느티나무 두 그루가 쌍둥이처럼 서 있는데, 이 느티나무를 쌍정자나무라 부른다. 쌍정자나무는 들려줄 이야기를 많이 품고 있다. 일단 형님 역할을 하는 좀 더 수세가 큰 정자나무 아래에는 정려가 있다. 이 정려는 1604년(선조 37) 한양 정동에서 탄생한 임금의 종친 이제길의 충신 정려이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생하자 인조의 강화도 몽진에 어가를 호종하였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다시 몽진을 떠나는데 이때 부인상을 당해 함께하지 못했다. 이후 남한산성이 포위되자 1637년 1월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청군을 공격해 일부 전과도 있었으나, 이후 이

뤄진 청군과의 다툼에 중과부적으로 전사를 하게 된다. 이때 공의 나이가 34세였다. 1699년(숙종 25) 장지를 안양 산본 의곡에 진향자리로 정하여 예장하였다가 이곳 느티나무가 있는 목면 본의리 미궐산 자락으로 이장하였다. 이 정려는 1729년(영조 5) 이곳에 세우게 되었고 몇 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이 잘생긴 쌍정자나무는 2010년경부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한다. 나무가 나무를 품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그 나무가 품은 다른 나무에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이른 봄 느티나무의 한가운데 하얀 벚꽃이 피어나면서부터이다. 벚꽃은 일찍 피는 나무다. 느티나무는 잎을 늦게 틔워 느티나무라 한다. 그러니 느티나무의 잎이 무성하기 전에 벚꽃이 활짝 만개하면, 서로 시차를 두고 앞서고 뒤서며 사이좋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목면 본의리는 과거 지곡리, 안심리와 더불어 목면의 중심 또는 부

심지의 역할을 하던 큰 마을이다. 본의천 냇물에서 사금이 한참 채취되던 근세기의 시절에는 본의리와 안심리에 사는 사람만 해도 비공식적으로 3~4천 명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역사 또한 오래되어 삼국시대 이전부터의 유물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현재 공주국립박물관 2층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시되고 있는 '본의리 출토 도제 불상 대좌'이다. 1972년 바로 이곳 본의2리에서 출토되었는데 정산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동막골 마을 밖 정자나무에 미치지 않아 길옆 산기슭에서 도로 확장 공사 도중에 발굴한 것이다.

정산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의 느티나무 그늘에 아침마다 조장이라는 작은 장터가 서기도 했다 한다. 이곳에서 고개를 넘지 않고 안쪽의 골짜기로 들어가면 깊은 골의 끝부분에 꽤 큰 마을이 나오는데 이곳이 본의2리 동막골이다.

미궐산 자락 동막골의 유래는 동쪽으로 산이 막혀서 그리 불렀다

한다. 이곳 동막골에 이르는 길의 입구 삼거리에 있던 느티나무 말고도 마을로 들어서는 골짜기의 중간 쯤에 똑같이 생긴 형제 느티나무가 있다. 이 두 나무를 동막골에서는 바깥정자와 안정자라 부르며 섬기고 쉬고 했다. 안정자나무에는 근대화 이후 느티나무에 스피커를 달아 안쪽 마을에 소식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바깥 느티나무는 도로 공사와 여러 이유로 죽고 없어져서 새로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이제는 제법 자라서 마을의 표지석 위에 멋진 나무 풍광과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 안 느티나무는 1972

년에 벼락을 맞아 지금도 나무의 절반 이상이 타고 거대한 고주백이(표준어는 고주박, 그루터기)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다행이도 3분의 1의 나뭇가지가 그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서 현재까지 수십 년째 버티어 내고 있으니, 이 늙은 느티나무의 끈질긴 생명력에 경의를 표한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월 대보름에 바깥·안정자나무 두 곳에서 노신제를 지내며 마을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않고 평안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너우기배와 금강 뱃사람들의 쉼터

신흥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 임장골 인근

공주시 우성면 어천리의 놋점나루를 지난 금강이 안심리의 석화동 산줄기를 살짝 걸치게 되면서부터가 청양땅의 시작이다. 이곳에서 임장골을 지나 청남면 인양리에 이르기까지 16km 구간의 우안이 청양군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중 하류에 해당하는 목면 화양리의 가마동부터 청남면의 천내리와 동강리, 그리고 왕진리와 인양리는 제법 들판도 있고 마을의 규모도 큰 편이다. 그러나 석화동부터 임장골을 지나 배숙골과 구수동 그리고 번거못을 거쳐 매산골에 이르는 구간은 건너편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의 삼베실과 구수동에서 송화동으로 이어지는 약간의 들판을 제외하고는 골이 좁고 짧아 인가가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강의 양안으로 산줄기가 높은 편이라 최근까지도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뱃길이 아니면 마땅한 육로가 없었다.

그러니 강을 중심으로 소통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한 일. 들판이 없고 마주 보이는 쪽에 산이 있으니, 이쪽에서 강 건너 운암리로 '아무개야 그만 놀고 밥 먹으러 와라'라고 소리치면 강 건너 운암리에서 놀던 아이가 이쪽 배숙골이나 임장골로 냉큼 건너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다. 또 서로 소리가 잘 들리니 강의 이편과 저편이 공주와 청양으로 나뉘지만 실상은 한 마을이라 해도 무리가 없었다고 한다.

이곳 임장골과 배숙골 사이 금강 변에는 반쯤 펼친 부챗살 모양으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심겨 있다. 들리는 이야기로 과거 150여 년

*너우기배 : 바닥이 평평한 평저선을 이르는 말. 널배라고도 한다.

전쯤 유가네가 주막을 처음 열기 전부터 있던 정자나무라고 한다. 최근 도로가 나면서 사라진 주막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느티나무 옆에서 인근의 강변으로 염소를 많이 길렀던 유진복 씨 집안의 할아버지 대에서부터 주막을 운영하였다. 근대에는 농사지으며 인근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때그때 운영하는 주막이었지만, 한참 주막이 잘 될 때는 아침부터 뱃사람들이 들이닥쳐 요깃거리를 찾는 통에 종일 밥 해내고, 일 년 내내 술 빚느라 바빴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왕진교 큰 다리가 놓인 곳에 있던 돌여울(석탄)은 금강을 오르내리는 뱃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구간이었는데, 이 돌여울을 지나느라 고단했던 청양과 공주의 뱃사람들에게 이곳 주막의 농주는 빼놓을 수 없는 보상이 되었다고 한다. 새로 도로와 다리가 생기면서 안타깝게도 옛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그저 이야기일 뿐 주막은 헐리고 나무만 남아서 멍석 서너 장 깔 만큼의 그늘만 드리우고 있다.

하루에도 수십 척씩 지나다니던 옛 금강 뱃길의 너우기배와 그네들 뱃사람들의 무용담을 들어줄 사람들은 이제 오지 않고 가뭄에 콩 나듯 간혹 나타나는 자동차들만 달리고 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어찌 보면 40여 년 전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던 청양의 금강 뱃길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토박이는 이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유일한 듯 싶다.

버드나무 생명력을 닮은 동학과 만세운동

안심리 버드나무 수구막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목면 안심리 마근동

목면 안심리의 버드나무는 목면의 소재지가 되는 안심리의 안심장터에서 건지울로 가는 그곳에 있는 마근동 마을과 들판이 만나는 곳 길가에 위치한다. 버드나무는 역사적으로 고대로부터 천방과 방재 등에 활용되기 좋은 나무로 조선 시대에도 천방에 장려했던 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수많은 강가의 풍경을 담은 풍수화에서 버드나무는 빼놓을 수 없는 풍광의 주요 요소이다. 이곳 마근동의 십여 그루 버드나무는 1904년에 심은 나무라고 연도까지 청양군지에 쓰여 있다. 그렇다면 120년을 이곳 마을 입구에서 수구막이 역할을 해 온 것이다.

오늘날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땅 고유의 생김을 쪼개고 뚫고 다리를 놓아 직선으로 도로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부분의 사람길들이 물길과 일치되는 특성을 보였다. 그러한 특징에서 물가를 좋아하는 오리나무나 느릅나무, 그리고 버드나무는 길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다. 그러니 비록 그 뜻은 아름답지 않으나 '노류장화'라는 말 또한 나오게 되었고, 능소화처럼 치렁치렁한 모습을 닮은 능수버들이 삼거리로 대표되는 천안의 나무가 되기도 했다. 버드나무는 잘라낸 후 통나무를 토막내어 거꾸로 세우거나 뉘어 놓아도 땅이나 물에 닿는 부분에서는 뿌리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엄청난 나무이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1894년 11월 10일쯤 동학농민군들을 토벌하겠다고 건지울로 달려온 일본 군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이곳으로 찾아오게 된 것은 우금티전투에도 참여했던 동학 접주 김기창과 그 무리를 체포 또는 사살하기 위함이었다. 이곳 버드나무 옆길을 지나면 나오는 동네가 건지울이다. 건지울은 안심리에서 가장 큰 동네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역사도 깊어 청양군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이고 당시 동학 접주 김기창의 생가가 지금도 남아있다. 당시 일본군의 체포 중대보다 중과부적이었던 이 마을의 동학농민군들은 대부분이 처형되거나 투옥되고, 남은 몇몇만이 공주 신풍 등지로 뿔뿔이 흩어져 숨었다가 이들도 대부분 잡혀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동학운동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접주 김기창은 그렇게 죽

어갔지만, 이 근처의 민족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25년 후 이 마을 건지울 출신의 권흥규는 1919년 4월 당시 향교의 전교로서 제 목소리를 내었고, 이러한 권흥규의 활동은 이후 정산 만세운동의 방아쇠를 당기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오늘날까지 목면과 정산 등 금강 변의 청양군 일대를 충혼의 전통 있는 고장으로 만들어 낸다. 그런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 이곳 건지울로 가는 길, 마근동에 있는 수구막이 또는 방재용 안심리 버드나무 군락이 된다고 본다. 잘라도 다시 뻗는 버드나무의 생명력이 안심리 주민들의 동학과 만세운동으로 같은 공간 안에 있다.

소중한 선사시대의 희미한 숨결이 배다

지곡리 소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간두문

목면 지곡리는 치성천 유역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남아있는 동네이다. 신석기시대 추위를 피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웅진과 사비성 사이 물길의 절반쯤에 해당하는 반여울나루에서 치성천 수로를 따라 앵봉산을 지나 솔모랭이에 들어서면 이곳이 지곡리의 간두문이다.

지곡리의 지명 유래를 찾아보면, 농사에 쓰일 물을 저장하는 못이 있어 지곡리라 부른다. 예부터 공주목과 홍주목의 청양현을 잇는 육로와 서해의 관문인 반여울나루(반탄진)로 통하는 수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과거 고려 시대 우왕이 집권하던 시기, 왜구의 침략 또한 이곳 간두문을 통해 이뤄졌다고 전한다. 과거 1995년까지 이곳 지곡리에 목면 면사무소와 지서(파출소)가 있었다. 지금은 치성천 수계를 벗어나 안심리로 이전을 했지만, 일제시대 이후 꽤 오랫동안 지곡리는 목면의 문화적 행정적 중심지였다.

지석묘의 유적은 문서나 규약과 같은 글로 남겨진 것들이 없더라도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대대로 암묵적으로 지켜온 현장으로도 의미가 있다. 특히 지석묘의 주위를 감싸고 있던 소나무 숲은 풍치와 경관으로도 빼어난데, 인근 지역이 모두 들판으로 지속적인 개발과 개간의 압박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그 손바닥만한 조그

만 언덕과 소나무 숲 그리고 그 속에 자리한 두 기의 지석묘가 약속처럼 지켜지며 들판 한가운데 꿋꿋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면사무소와 지서가 있던 곳을 간두문(干杜門)이라 하는데 지곡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간두문이라는 한자명이 방어를 의미하니 두릉윤성과 연관이 있다고 한다. 지형이 이러하니 후대에 최근까지도 정산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으레 이곳 지서에서 검문하기도 했던 일종의 길목 지형이다. 공주에서 청남, 목면, 장평, 정산을 갈 때 꼭 거쳐가는 곳이므로 여러 사람이 드나드니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을 것이다. 지곡리라는 명칭이 생긴 안못골에는 지금도 저수지가 있고 소반에 금이 담겨 있는 형국의 금소반향명당이 있다고 한다.

못골의 바깥쪽에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바깥못골, 간두문 앞들에 소나무가 울창했던 모퉁이를 '옆들이'라 하여 '솔모랭잇들'이라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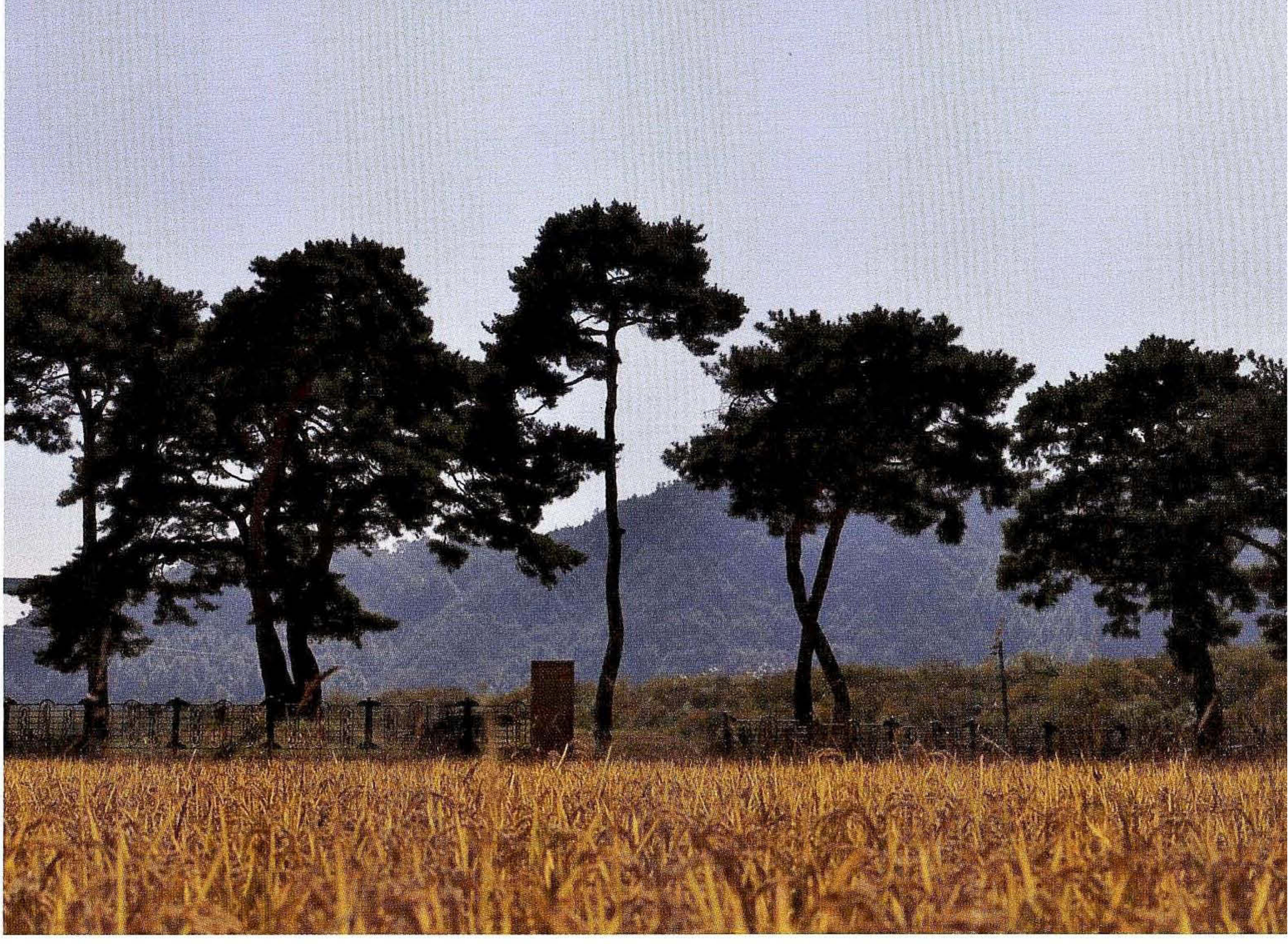
렀는데 60년대 초반까지도 아름드리 소나무가 50그루로 숲을 이루었다. 이후 하천 정비와 경지정리를 거치며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차츰 죽어 나가 90년대에 7그루, 2000년대에 3그루뿐으로 마을에서 다른 소나무들을 옮겨와 7그루의 숫자를 맞추어 놓고 과거의 명맥을 잇고 있다.

이곳 솔모랭이의 소나무 숲이 보전된 데에는 예로부터 지석묘 무덤이 있어 이를 보전하려는 조상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두릉윤성의 돌을 운반해 와 치성천에 둑을 쌓기 이전인 1950년경까지만 해도 소나무 언덕 아래 치성천이 흘러 경관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하는데 지금은 지난 2009년경 다시 높인 제방으로 과거의 그 모습을 상상하기 쉽지 않다.

지석묘는 선사시대 청동기의 것으로 추정하는데, 남방식 고인돌 2기가 있으나 그나마 1기는 누군가 돌을 쪼개 떼어가 버려 반쪽짜리 무덤이 되어버렸다.

이 마을 어르신들의 말씀으로 돌이 쪼개진 이유를 들어보자. 예전에 이 근방 치성천 변의 들판이 모두 김 씨네 땅이었다고 한다. 고인돌의 생김이 마치 참게의 등딱지와 닮아있는 형국이라 금강물이 범람해 돌이 물에 닿으면 이듬해에 부자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해마다 금강물이 불어나 돌이 물에 닿자 김 씨네가 잘 살게 되었는데 정산현감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 그 벌로 정산현감이 돌을 정으로 깨었다고 전한다. 이 이야기는 강의 범람이 들판을 기름지게 하는 유수의 작용과 그 원리가 닿아 있고, 실제로 고인돌을 정으로 깨어낸 흔적이 있는 점, 그리고 김 씨네 가문에서 모셔두었던 나머지 돌이 충남공업사 뒤쪽에 오래도록 모셔졌던 점으로 미루어 최소한 토지주와 현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고인돌의 손상사건은 꽤 그럴듯한 이야기로 들린다.

70~80년 전에도 한 해에 2~3번 금강물이 솔모랭이들까지 들어오는 일이 있을 때마다 강경에서 새우젓 배들이 올라왔다고 한다. 이때 솔모랭이 소나무에 새우젓 배를 매기도 했다 하나 지금은 제방을



쌓아 뱃길을 잃은 대신 홍수에도 큰 걱정이 없어졌다 하니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옛말도 맞다 싶다.

간두문을 지나 금강 변 반여울나루 인근의 강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이곳의 상당한 부분이 정산향교의 둔토였다. 그래서 정산향교와 이곳 반여울나루 그리고 간두문 사이의 왕래가 더욱 잦은 편이었으니 과거 인근의 선비들에게 이곳 넓적바위 지석묘에 앉아 소나무의 운치와 품성을 벗하면 훌륭한 창작과 쉼의 장소가 되었을 것이다.

06

청남면

동강리 느티나무 | 나무가 만들어 준 농구 경기장
아산리 느티나무 | 아이들과 어르신, 청년 모두의 3층 놀이터
지곡리 꾸지뽕나무 | 향촌학교와 잉화달천 물레바퀴
청소리 버드나무 | 맑은 못에 그림자 비추는 청소고개 쉼터

나무가 만들어 준 농구 경기장

동강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청남면 동강리 643
수고 / 둘레 14m / 610cm
수령 433년(1590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221

청남 동강리라는 이름이 말하듯, 동쪽으로 강이 흐르고 있다. 지리와 행정구역상으로는 북쪽으로 청남면 천내리와 청소리, 동쪽으로 금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중산리, 남쪽으로는 올미산(래산)이 있으며, 동쪽으로 흐르던 금강이 남쪽으로 휘어져 올미산을 휘감고 돌며 이곳에 왕진교가 강 건너의 부여읍과 공주 탄천을 청양 땅과 잇고 있다.

마을과 가까이 인근 탄천과 부여읍이 있으니, 강 건너 창강과 분강 그리고 옻밭골과 사돈도 많이 맺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들이 넓은 동강리까지 강 건너 부여와 공주사람들이 와서 함께 농사도 짓고 어울리는 곳이기도 했다. 또한 1930~40년대에는 반여울나루 건너편에 있던 서당에 다니던 아이들이 있었고, 1960~70년대에는 청남면 소재지에 없는 중학교가 강 건너 탄천에는 있었으니, 국민학교(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배를 타기 위해 처음으로 모이는 장소가 마을에 있는 느티나무였다. 이후 청남에도 중학교가 생기면서 배를 타던 길이 걷는 길로 바뀌었지만, 마을의 아이들은 여전히 이곳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에 모여서 학교에 가고는 했다.

이곳 마을의 아이들은 항상 익숙한 마을 나무에서 다양한 놀이

를 즐겼는데, 주민들이 말하는 동강리만의 특징적인 놀이가 있다. 1970~90년대 원래부터 나무줄기에 나 있던 두 개의 구멍을 활용해서 하던 농구를 기억한다. 마을 출신 중 지금 나이로 50~60대 남성들이 어린 시절 이곳에서 휴일마다 농구 게임을 즐겼다 한다.

지금도 두 개의 쌍정자나무에 공교롭게도 가지가 갈라지는 지점에 모두 구멍이 나 있어 농구 바스켓의 역할을 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지금은 보호수로 고목 치료를 통해 모두 메워진 구멍이지만 겉으로 보기에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흔적이 제대로 남아있다.

상황을 상상해보았다. 양쪽 나무에서 농구 골대의 구실을 하는 구멍 가운데 한군데는 볼을 넣으면 아래쪽까지 나무 속이 텅 비어 있고 아래에도 구멍이 있어 농구공을 주워 게임을 지속할 수 있었지만, 회관 건물 쪽의 느티나무는 농구공을 집어삼키기는 하지만 뱉지는 못하는 구조였다. 그리고 두 나무의 구멍의 높이와 크기 차이로 인해 유·불리가 있으니, 두 편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 골대를 바꾸어 가며 농구 놀이를 했다고 한다. 타협과 협상으로 공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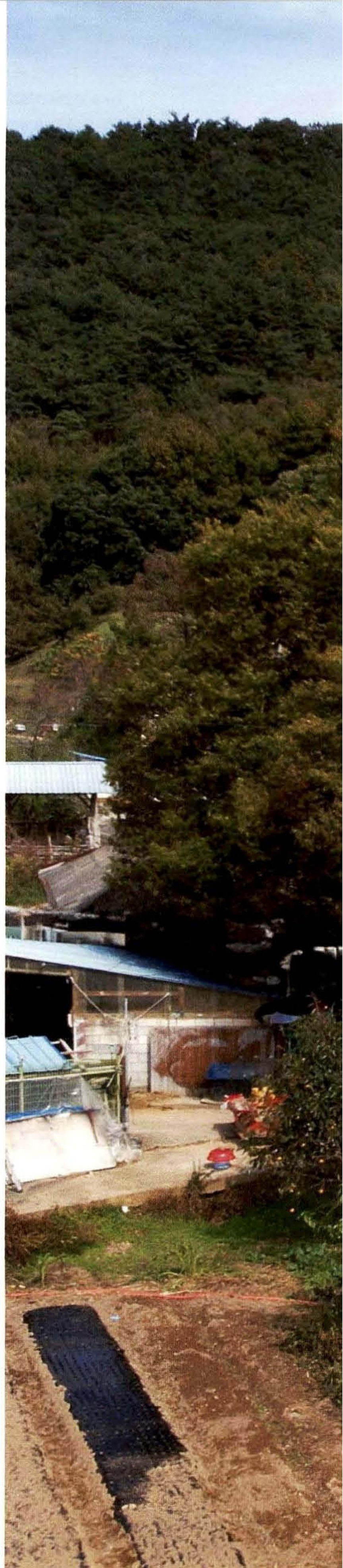
함을 이뤄낸 아이들의 지혜를 인공이 아닌 자연이 만들어 낸 나무의 구멍들이 키워준 셈이다.

동강리는 1990년대 금강의 치수 사업이 마무리되기 이전에는 홍수가 나면 인근 농경지는 물론이거니와 강물이 집 안의 안방까지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이를 '수침(水沈)했다'라고 한다. 이때 가재도구나 인명을 구하러 마을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때 느티나무는 급할 때 사람들의 피신처가 되기도 하고 배를 매어 두는 곳이 되기도 했다 한다.

모내기 철과 마을의 큰일을 치를 때 그늘이 좋으니 다들 이 두 그루 느티나무 밑에서 들밥을 먹으면서 고된 농사일과 애경사를 치러내기도 했다 한다. 인근의 다른 지역은 도로 내고 경지정리를 하면서 노거수들이 몸살을 많이 앓았지만, 이곳 느티나무는 크게 몸살 앓을 일이 없었다. 도로에서 좀 떨어져 동네 한가운데에 있는 마당에서

나고 자란 까닭이다. 그런데도 요즘 마을에서는 도로가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될 때마다 주변의 땅이 높아지니 이곳 느티나무도 키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걱정이라고 한다. 과거보다 2자는 더 높아졌다는데 지나가는 중장비나 특수차량이 낮은 가지에 걸려 가지가 부러지기도 했다 한다.

한때는 나무 둥치 근처를 돌로 둘러서 앉을 수 있도록 만들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도로에서 나무 둥치까지 거침없이 깔끔하게 비어 있다. 나무 꼭대기에는 까치집이 양쪽에 한 개씩 해마다 2개가 있었는데, 그곳에 까치가 알을 낳으면 그것을 탐내는 뱀들이 항상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죽은 경우도 많았다. 언뜻 보기에도 15m가량의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 뱀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표현을 하는데, 아마도 까치의 공격까지 더해지며 뱀이 추락사하게 된 것이라 추측된다. 주민들의 나무와의 추억을 듣는 재미가 쏠쏠하다.



아이들과 어르신, 청년 모두의 3층 놀이터

아산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아산리 425-1
수고 / 둘레 20.5m / 670cm
수령 433년(1590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6-10-481

청남면 아산리는 청양군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마을 중 한 곳이다. 대대로 단양 우씨가 세거하고 있고, 골짜기의 입구가 되는 곳이 마을에서 가장 큰 곳으로 이곳을 원아산이라 한다. 원아산에 용출이샘과 느티나무가 있다. 나무가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산자락의 끝부분이자 마을의 입구에 위치하니 마을 풍수의 균형을 위한 비보목(裨補木, 나쁜 기운을 막는 나무)으로 가꾸어진 느티나무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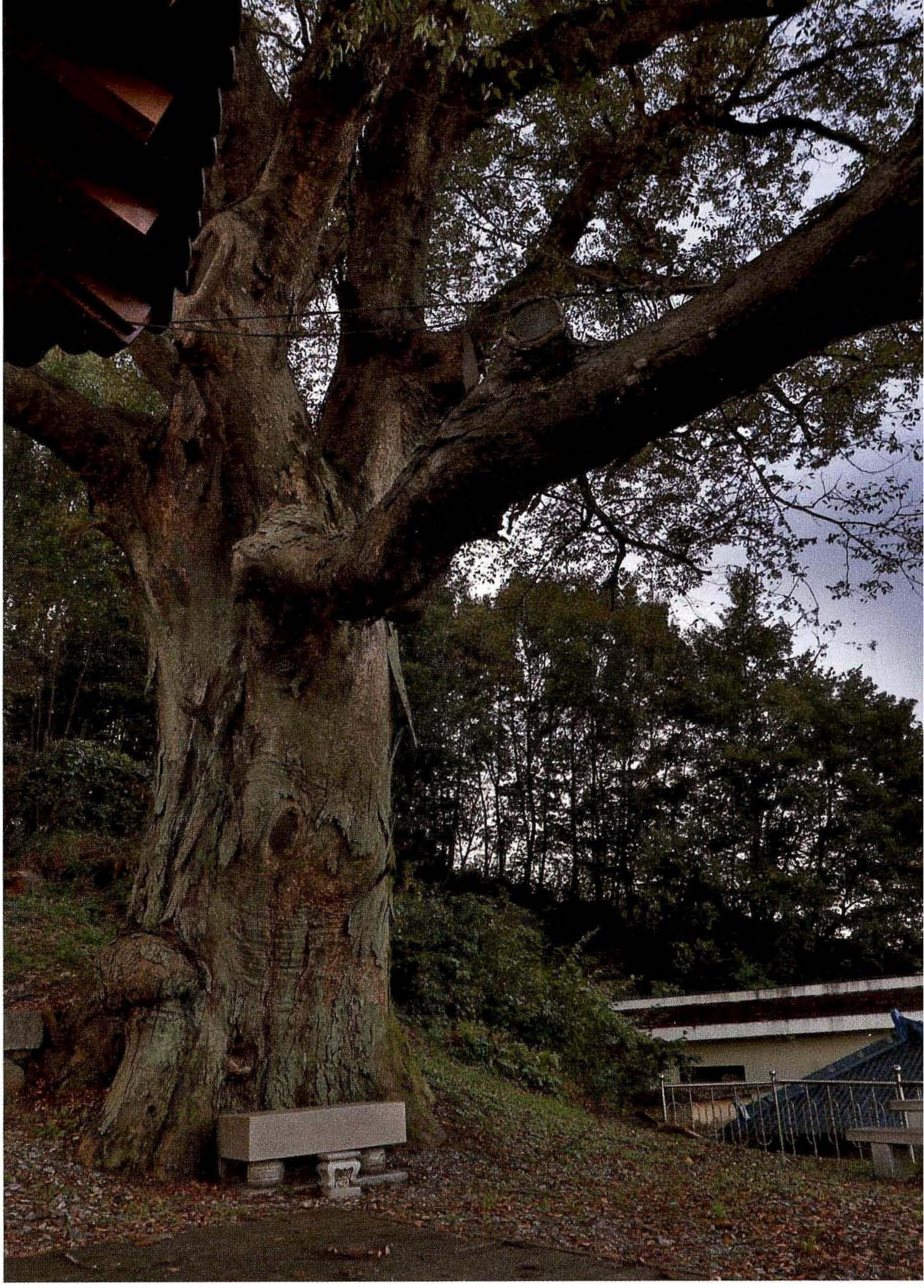
나무가 있는 곳으로 오르는 길을 왼쪽과 오른쪽 두 곳에 만들었는데, 왼편으로는 휠체어를 타고도 오를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에 시멘트 포장을 했고, 오른쪽은 어르신들이 오르시기 좋게 계단 옆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이 진입로를 따라 나무 아래 도착하면 나무를 섬기도록 만든 상석이 눈에 띄는데 상석의 옆 부분에 큰 글씨로 '2005년 0월 기증 000' 이렇게 쓰여 있다. 상석을 기증하면서 기증자가 스스로 이름을 이리 크게 쓰다니, 어지간히 이름을 알리고 싶어하는 분이다 싶겠지만, 실상 내용을 알고 보면 해마다 마을을 위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기부하시던 고향을 떠난 인사의 마음이 감사해 보은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란다. 기증자가 그 해에도 여지없이 귀한 돈을 기부하자

본인과 상의 없이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이름을 새긴 상석을 만들고 양해(허락)를 구한 것이란다. 서로를 챙기는 출향인사와 주민 간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상석이다.

마을에서는 정월 열 나흗날 저녁 8시쯤 항상 원아산의 느티나무에 제사를 지낸다. 먼저 인근의 용출이샘에서 샘제를 지내고 샘제가 끝난 후 나무에 와서 목신제를 드린다. 옛날에는 풍장도 치고 복식도 제대로 갖춰 입고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어서 풍장과 복식은 생략하고 그냥 제만 지낸다.

이 나무의 나이와 마을의 대표 성씨가 되는 단양 우씨의 세거 이력을 찾아보니 대략 400여 년이 조금 지난 일로 서로 일치한다. 임진왜란 전후로 단양 우씨 집안 중에 인양리 살던 사람들이 염병으로 다 죽게 되니 상장리 가짓골(가릿골)에 몇몇이 전염병을 피해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다행히 이사를 온 이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자손



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나무가 야산자락에 있으니 구렁이가 정자나무의 줄기를 타고 많이 다녔다. 지금은 흙을 메워 축대도 만들었지만, 전에는 뿌리 쪽에 흙이 없고 그 속에 공간이 생기니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화투도 치고 놀 만큼 공간이 컸다 한다. 또한 아이들의

그네타기도 이 나무에서 뺄 수 없는 유희였는데, 단옷날을 중심으로 항상 이곳에서 그네를 뛰었다 한다. 그러니 청년들은 뿌리 아래에서 화투를 치고 어른들은 나무 아래 누마루를 놓고 쉬고 어린애들은 그네 뛰고 놀았으니, 온 세대가 함께 놀던 1·2·3층 입체 마을 놀이터였다.

일제강점기가 끝날 무렵 일본 군대가 이곳으로 몰래 와서 느티나무 아래 샘 옆을 더 파고 총 수십 자루를 숨겼다. 한참 후에 수십 자루 총이 발견되니 인근에 소문이 가득하고 군과 경찰에서 조사하고 모두 거둬 갔다. 아마도 그네들 일본군도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거기에 총을 숨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느티나무가 다시 찾아오려고 기약하기에 좋은 장소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품고 있는 마을의 대표 나무도 이제는 전 같지 않다. 계단 옆으로 오르기 쉽게 하느라 손잡이도 만들고 휠체어도 오르라고 경사로도 만들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은 없고 어른들은 나무에서 잘 놀지 않는다고 한다. 마을회관에 에어컨이 놓이면서 여름 나절에는 모두 회관으로만 모이니 느티나무의 그늘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나무가 되어간다고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향촌학교와 잉화달천 물레바퀴

지곡리 꾸지뽕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지곡리 196-1
수고 / 둘레 10m / 270cm
수령 280년(1765년)
보호수 관리번호 2015-12-01

청남 지곡리는 남으로 청남면 청소리, 동으로는 내직리와 북서쪽으로는 장평면 미당리에 접해 있는 마을이다. 공주 서천 간 고속도로의 높은 교각이 지나가는 곳 아래로 상대적으로 야트막한 산지가 있다. 이 산지의 끝자락이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마을이 지곡리다. 지곡리 마을은 근대에 들어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던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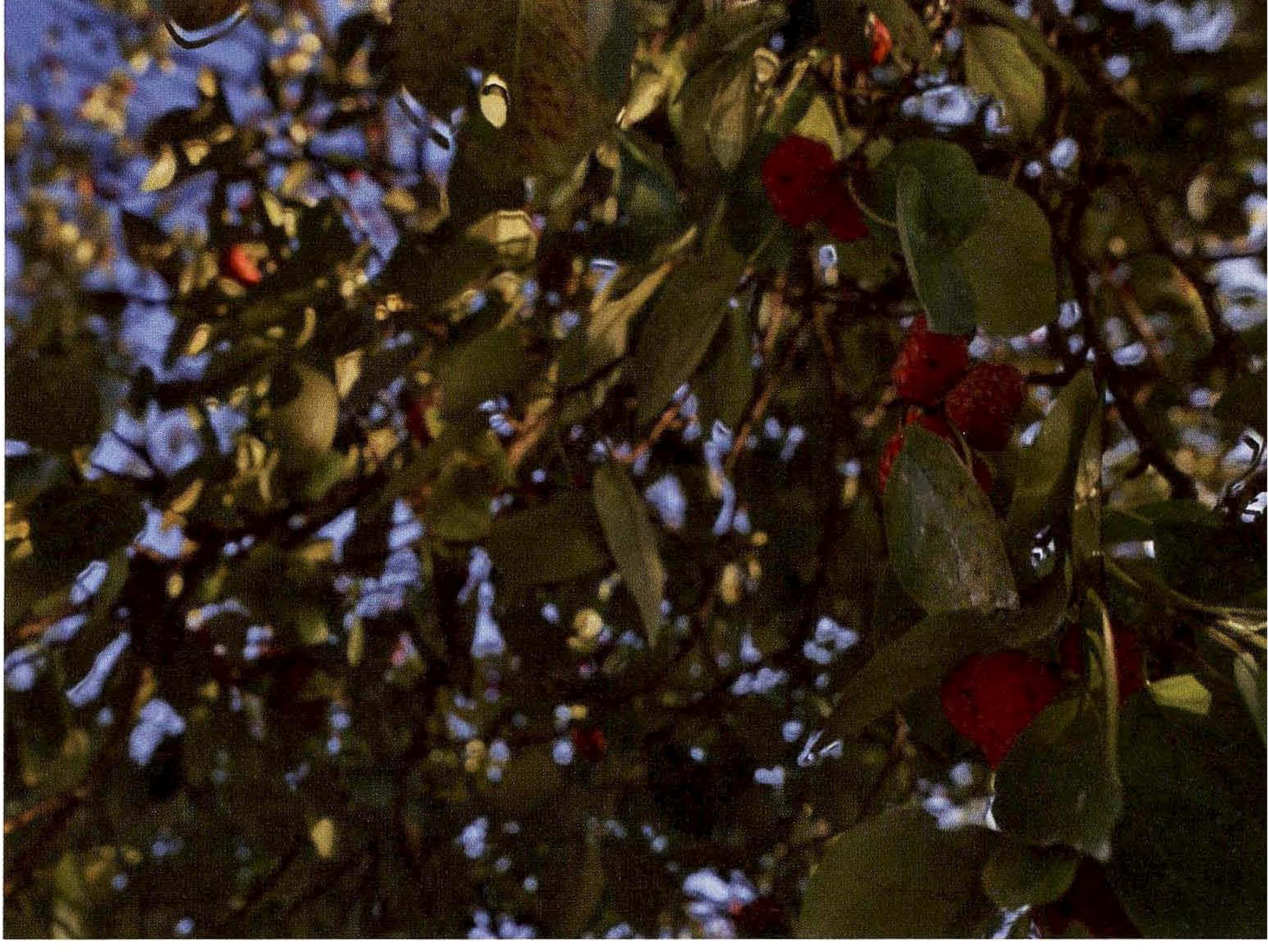
1960년대에 이미 냇가에 큰 물레를 설치하고 발전기를 돌려 마을에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을 실천해보기도 했던 흥미로운 마을이다. 또한 같은 시기 인근에 중학교가 없어 배를 타고 탄천이나 정산으로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마을주민들이 힘을 모아 흙벽돌을 찍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향촌중학교를 짓고 운영했었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 마을 농업에 비닐피복(덮기) 재배를 먼저 도입했던 마을이다.

말 그대로 앞선 마을 지곡리의 꾸지뽕나무는 마을에서 잉화달천 냇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그러나 나무로 직접 진입하는 찻길이 없으니 마을회관을 지나가는 길이 나무를 찾는 길이다. 지곡리 마을회관을 바라보며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끝까지 가면 범상치 않은 옛날 한옥이 나오고 이 한옥의 잔디 앞마당에 정려와 함께 서 있는 꾸지뽕나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한옥은 이곳에서 12대째

사는 수원 백씨 집안의 종가댁으로 과거 향촌중학교의 교장선생님 댁이라고 한다. 이 댁 꾸지뽕나무 옆에는 숙종 대왕이 효자 비문과 함께 벼슬까지 내려주었던 효자 윤빙삼의 정려가 있다.

현장에서 바라본 나무는 꾸지뽕나무답게 정자나무처럼 키가 크지는 않지만 제법 우산형으로 생겨 균형 있는 모습에 수백 년 세월에 걸맞은 풍모도 갖추었다. 꾸지뽕나무 옆에는 꾸지뽕나무의 4/1 크기로 탱자나무도 하나 서 있는데, 나무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만한 탱자나무다. 나무의 생김이나 줄기의 주름, 그리고 두께로 보아 탱자나무가 오히려 꾸지뽕나무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인다. 탱자나무는 그 특유의 가시와 향으로 벌레와 귀신을 쫓아내는 나무로 척사목(斥邪木)으로는 최고로 치는 나무다.

꾸지뽕나무는 누에가 그 잎을 잘 먹으니 뽕나무와 같은데, 분명 뽕나무는 아니니 굳이 말하면 뽕나무라는 뜻으로 꾸지뽕나무라는 이



름을 얻게 된 나무다. 그러니 두 나무 모두 사람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용도로 쓰인 나무라 하겠다. 꾸지뽕나무의 열매는 일반 뽕나무의 열매보다 훨씬 더 먹음직스럽고 크게 열린다. 색깔도 선홍색에 가까워 식욕을 자극하는 모양이고, 맛 또한 나쁘지 않아서 과거 배고픈 마을 사람들이 즐겨 찾는 간식이기도 했다. 백씨 집안의 울 안에 있는 개인 소유의 나무이기는 하나, 과거에는 지곡리 마을 사람들도 이 나무의 꾸지뽕 열매를 안 먹어본 이가 없을 정도로 사랑받던 나무 열매이기도 하다.

맑은 못에 그림자 비추는 청소고개 쉼터

청소리 버드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청소리 601
수고 / 둘레 15m / 470cm
수령 433년(1590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6-1-484

청소리는 청남면의 소재지로 지곡리, 중산리, 동강리, 상장리 등과 경계를 이루는 마을이다. 이 중 청소2리에 맑은 연못이 있어 마을 이름이 '청소'가 되었다고 한다. 1901년 마을 사람들이 결의하여 동네 운영자금을 조성하였다. 스무 마지기(13,200㎡)의 논을 마련하여 어려운 사람들에게 임대한다. 그리고 저렴하게 빌려준 논에서 임대료가 나오면 그 돈을 마을 운영자금으로 쓰는 전통이 있다.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장화'라 하고, 이런 마을의 공공자산은 마을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다.

마을 이름을 청소리라 부르게 된 것은 이제 소개하게 될 버드나무가 있는 연못에서 기인한다. 석봉산 자락에서 가장 낮은 등성이는 예로부터 청소고개라 불린다. 이 고개는 동강리나 천내리, 그리고 멀리 목면의 화양리 사람들까지 이곳 면 소재지나 장평, 부여장에 갈 때 이용하던 중요한 고개였다. 특히나 가을철 추곡수매라도 하는 날이면 볏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여러 장정이 이 청소고개를 넘어 다녔다고 한다. 인근에 당시 청남초등학교(중학교)를 다니던 학생들 또한 이 고개를 매일 넘나들었으니 고개 밑 버드나무 주변에는 항시 사람들이 모이고 쉬는 휴게소가 되었다. 당연히 근처에 주막이 1970년대까지도 잘 운영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주막이 있던 자리는 창고가

되었고, 버드나무 주변은 깔끔하게 갑판을 설치하여 정비해 놓았다.

현장에서 본 버드나무는 그 크기와 수령 면에서는 청양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버드나무로 판단된다. 크게 두 줄기로 나뉘어 있지만, 밑동이 연결되어 있으니 더욱 그 규모가 커 보이고 연못이 조성되어 있어 버드나무와 잘 어울리는 풍광이다. 빛 좋은 날 햇빛이 사선으로 비추는 시간에는 연못에 비친 버드나무의 반영이 그리도 아름답다고 한다. 그야말로 이곳에서는 풍류의 류(流)가 흐를 류자가 아닌 버드나무 류(柳)자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오늘날에도 비교적 큰 마을이라 이곳 연못가의 버드나무와 인근에 새로 심은 느티나무 그늘이 서로 역할을 나누어 주민들에게 좋은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

마을에는 버드나무 말고도 독특한 전설이 전하는데, 냇말 동쪽에

예의 바른 총각과 살뜰한 처녀가 결혼해 부부의 정이 돈독했는데, 단옷날 큰 나무에 그네를 걸고 함께 타다가 줄이 끊어져 함께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각각 무덤을 만들어주었더니 두 그루의 소나무가 자라서 마을의 지명을 처음에는 청솔이라 부르던 것이 지금의 청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드나드는 이들이 많은 길목에는 빠지지 않고 전설이 있는 듯하다. 이곳 청소2리 또한 지금은 고갯길을 이용하는 이가 없어져 그저 양지바른 마을이지만 과거에는 그만큼 과객들이 많이 다녀가던 곳으로 버드나무 또한 마을의 휴식처인 정자목이자 과객들의 휴식처가 되는 가로목이 되기도 한다고 보아야겠다.

버드나무에서 쉼을 얻은 사람들이 청소고개를 넘어가게 되는데 작은고개와 큰 고개가 있어 빨리 가는 길과 돌아가지만 좀 덜 어렵게

가는 길이 있다고 한다. 어떻든 석봉산 자락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청소리 사람들의 석봉산에 대한 산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정성스럽다. 음력 시월 초이렛날(음력 10월 7일) 이뤄지는 이 산제에는 산제와 마을 중간에서 드리는 하산제의 두 바탕으로 이뤄지는데 축문을 여러 번 읽어야 산신이 감동하여 복을 주신다고 하여 스물한 번을 반복해서 외는 독특한 제사법이 전한다.

석봉산 산제당 옆에도 샘이 있고 마을 바깥쪽에도 연못이 있어 버드나무가 이리도 웅장하게 자랄 정도인데다 사람들의 공동체 또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청소2리는 물 걱정 사람 걱정 없이 행복한 마을이다.

07

장평면

낙지리 느티나무 | 사통팔달 마을의 중심
미당리 팽나무 | 미륵의 꿈이 담긴 미당 장터목
지천리 느티나무 | 바다로 가는 참게와 웃다리농악의 터전
화산리 소나무 | 국난에 의연히 일어선 의병과 함께하다

사통팔달 마을의 중심

낙지리 느티나무

느티나무 두 그루
소재지 충남 청양군 장평면 낙지리 263-1
수고 / 둘레 19m / 490cm | 14m / 350cm
수령 241년(1782년) | 191년(183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7-8-482 | 8-11-7-8-483

장평면 낙지리 삼거리는 예로부터 동으로는 미당과 북실마을로 가는 길로, 서로는 화산리를 통해 부여 은산으로 통하는 길로, 그리고 남으로는 닭우리고개를 넘어 부여장으로 이어지는 지역 교통의 요지이다. 그리고 남으로 난 부여가는 길을 따라 냇물이 흐르고 그 냇물에는 1987년에 새로 놓은 다리 2개가 연달아 있다. 여기 아래쪽에 놓인 다리 앞으로는 마을회관이 들어서 있다. 이 마을회관은 1977년경 이 마을 한 어르신께서 새마을회관을 지으라고 개인의 땅을 마을에 희사하신 공적을 기리는 비가 서 있다.

이곳 마을회관 인근에 큰 느티나무 두 그루가 있다. 뒤편에 한 그루, 그리고 우측 편에 한 그루 큰 느티나무가 서 있다. 특히 회관을 바라보며 우측에 있는 느티나무는 그 크기가 웅장해서 밑동의 둘레가 5미터에 이른다. 1972년에 보호수로 지정되었는데, 실제 나이는 200여 년이 좀 넘는 노거수치고는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나무가 품는 면적이 엄청나서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그늘을 넓게 만들어 주고 있다. 실제로 느티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 앞뒤로 있고 회관 바로 앞으로 하천이 흘러 여름철에도 마을회관이 늘 시원하다고 말한다.

또 고개 넘어 화산리의 중석 광산에 다니던 사람들이 이곳을 장골이라고 해서 중석을 음성으로 거래하던 그런 곳이기도 하다.

이곳 느티나무는 사람들에게 거리계의 역할도 하는데 이곳에서부터 은산장이 꼭 20리 길이고 부여장과 청양장이 꼭 30리 길이라 낙지리 삼거리가 부여와 청양 사이의 절반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청양 쪽은 터널이 뚫리기 전에 산길이 험해서 대체로 부여장을 즐겨 이용했다. 옛날에는 장에 오가는 길목마다 마을의 텃세가 심해 동네 사람들이 부여나 은산으로 장을 보러 갈 때는 되도록 모여서 함께 가게 되는데, 사통팔달에 있는 나무이니 이곳 느티나무가

모이는 장소였다.

느티나무의 가지가 밑동에서 갈라져서 두 그루처럼 보이게 되어 있고, 그 남쪽으로 난 가지는 비스듬하게 75도 정도 기울어져 올라가니 남자아이들은 그 남쪽으로 난 가지에 올라가 미끄럼틀 타듯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을 즐기기도 해 놀이터와 같은 곳이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무껍질이 벗겨지며 반들반들 해지게 되면, 나무를 아끼는 마을 어른들께 혼나기도 했다 한다. 언제 세웠는지 모를 상석이 느티나무 아래에 만들어져 있으니, 마을에서 이곳 느티나무에 제를 올리고 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미륵의 꿈이 담긴 미당 장터목

미당리 팽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장평면 미당리 23
수고 / 둘레 11m / 320cm
수령 241년(178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7-4-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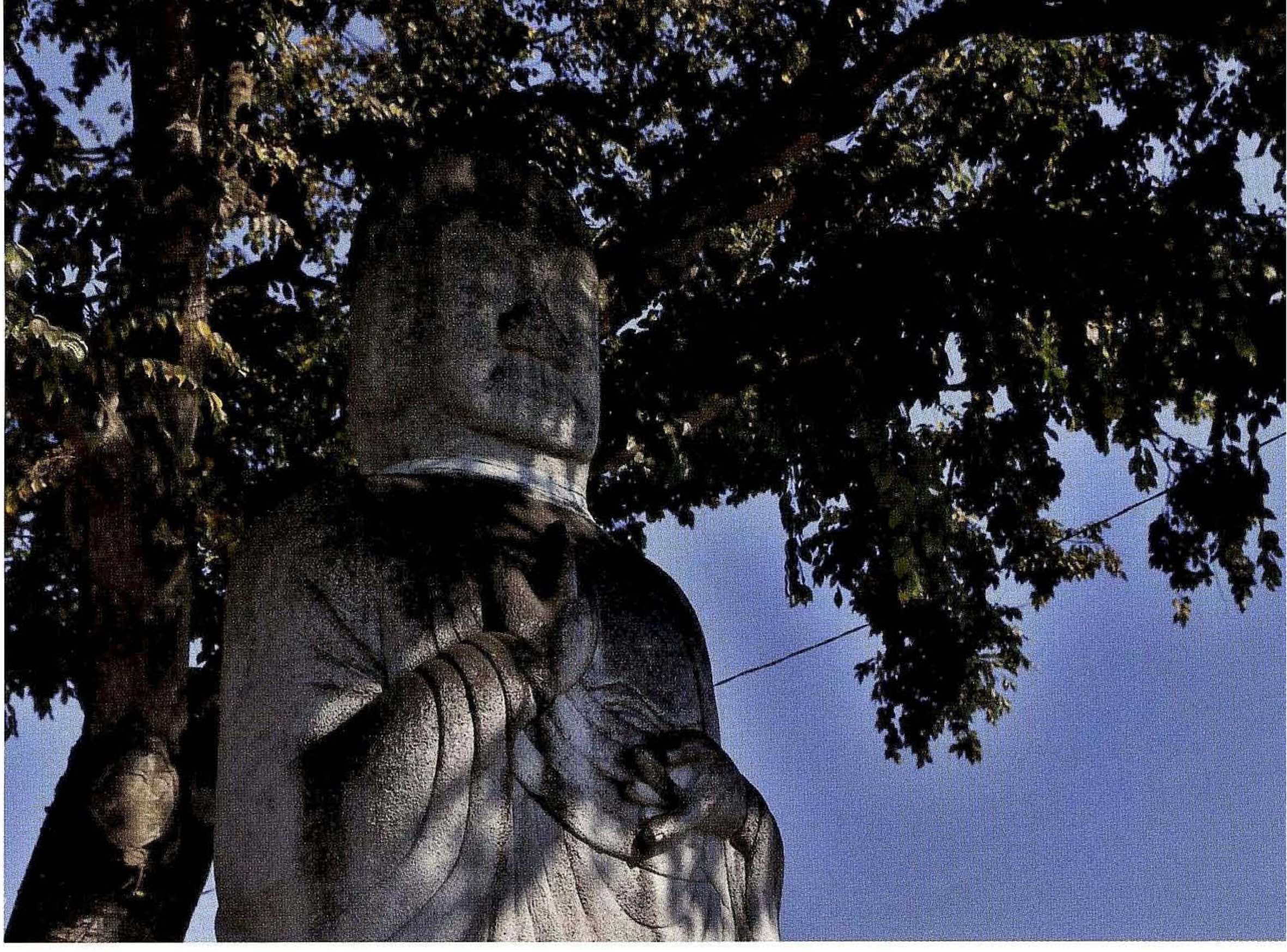
장평면 미당리의 닻바골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예로부터 미당천이 흐르고 조선 시대 후기부터는 이곳 강가에 큰 장이 펼쳐졌다. 이 장의 이름은 미당장으로 1995년에 공식적으로 오일장이 멈추고 2023년 가을 현재 옛 장옥을 뜯어내는 공사가 한창이다. 미당장이 멈춘 이후 28년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장은 서지 못했고 장옥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흉물스러웠다고 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꽤 섭섭함도 있었나 보다. 그 장터를 지켜온 낯익은 장옥이 정리되는 모습을 보며, 아쉽다 속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장터가 허물어지고 새꿈을 꾸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이곳을 지키고 있는 든든한 익숙함이 하나 있다. 미당장의 중심에 서 있는 팽나무다. 이 나무는 미당 장시에서 정자와 만남의 장소이자, 이정표 역할을 했다. 장날 모인 수많은 사람에게 그늘과 이야기 장소였고, 맞이방의 역할을 했던 나무다.

이 나무 그늘에 많은 장꾼이 몰려들었고, 근대에는 많은 정치인이 연설하기도 했고, 또 과거 동학농민운동 당시 정산지역의 동학농민군들의 창의가 이뤄지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이 일대 동학운동 조직의 접주였던 김기창이 이곳에서 발의했다 하여 동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찾아야 하는 순례 코스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곳 미당에 정산현 일대에서 가장 큰 장이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위치의 특징은 미당천과 연해 마을이 있고, 부여와 은산과 정산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발달했던 곳이니 예로부터 장이 설 수 있는 구조였다. 칠갑산의 땔감을 비롯한 임산자원 들이 금강의 왕지진(왕진나루)에서 올라오는 수산물들과 만나는 장소가 되었다. 이에 더해 이곳에 청양의 산동 일대 최고의 재력가로 소문났던 윤갑선이 소유했던 장터였다. 그리고 지금은 도림저수지가 생긴 상류 적곡(절골)에 금광이 있었고 미당천 또한 사금 채취로도 유명했던 곳이었으니 미당장은 인근에서 보기 어려운 큰 장이 서던 곳으로 그 위세는 실로 대단했다. 지금도 극장 건물과 파출소를 비롯해 다양한 상가 건물들이 남아있어 처음 마을을 찾는 이도 미당장의 옛 영화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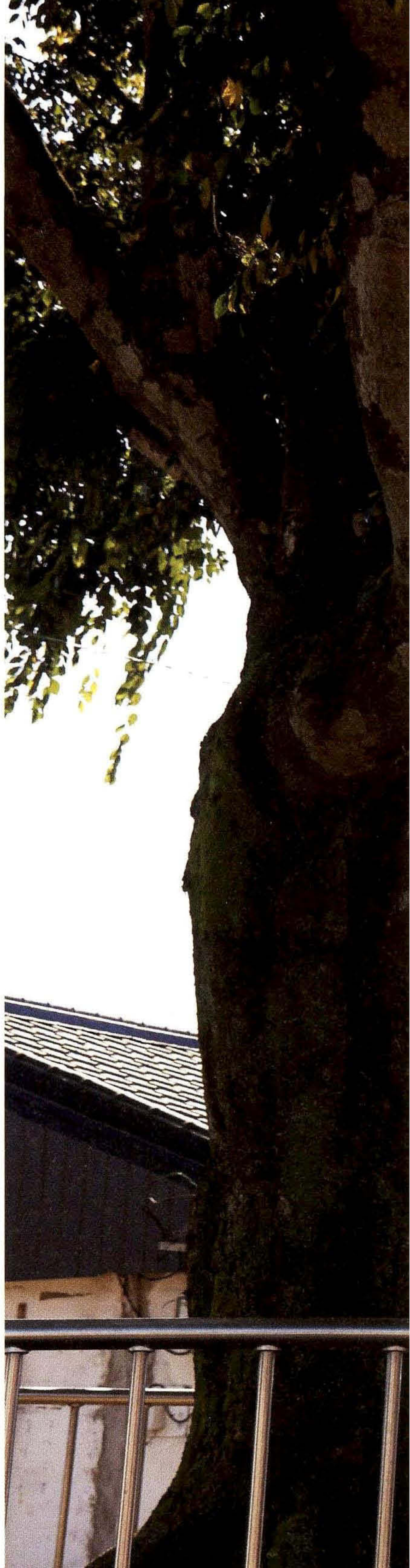


이 미당장의 장옥들이 모이는 중심이 팽나무였다. 이 팽나무를 소개함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미당장 팽나무보다 두 배는 더 오래 이곳에 서 있었던 사물이 있다. 현재도 팽나무와 연해 서 있는 미륵불이 그 주인공이다. 지금은 팽나무 열매와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나무진에 의해 어두운색으로 변색한 덕분에 그 나이를 가늠할 수 없지만, 사실 미륵불의 머리와 몸통의 나이는 서로 적어도 6~7백 년은 차이가 난다. 미륵불의 머리는 고려 시대 이전에 태어났고, 팽나무는 조선 시대에 태어났으며, 미륵불의 몸통은 1996년에 태어났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서로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시대 차이보다 꽤 잘 어울리는 그림이 완성되어 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미륵불 머리의 기원을 역사서에서 살펴보면 신증여지승람에 '백제 시대 자비성을 수성으로 한 대가람 도림사지의 입구에 있는 미륵원'이란 표현으로 언급되어 있으니 고려 시대부터 백제 시대 사이의 언저리로 그 조성연대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 미

륵의 머리는 1808년 칠월 큰 홍수로 인해 쓸려 내려간 미륵불의 부분인데, 1941년 동네 배수로 공사 때에 발견되었다 한다. 또 다른 설에는 1929년 장마 때 인근에서 발견되어 나무 아래에 옮겨놓았다고도 한다. 그리고 최근(2021년) 미당장을 끼고 흐르는 미당천의 200미터 쯤 하류에서 찾아낸 미륵불의 가슴과 수인 부분이 있어 이곳 팽나무에 가져다 놓았는데, 아쉽게도 미륵당의 머리와는 들어맞지 않는 다른 부처님 입상의 한 부분으로 추측되고 있다.

어쨌든 미당 3·8일장의 명소가 되는 팽나무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팽나무보다도 수백 살 더 많은 미륵댕이의 미륵 머리와 누 천년을 이 땅에서 대대로 더불어 살아온 마을 사람들이 나무 아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로 가는 참게와 웃다리농악의 터전

지천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장평면 지천리 214-1
수고 / 둘레 7.5m / 470cm
수령 441년(158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222

장평면 지천리는 구룡쟁주의 명당이라 불리는 지역의 중심되는 분지로 용들이 서로 다투는 여의주가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이곳의 동북쪽은 칠갑산이 자리하고 있고, 서남쪽은 성태산자락에서부터 남양의 조공산과 나발티를 지나 이어지는 성주산 줄기의 말단부가 나름 꽤 높이 솟아 있어 물들이 두 개의 큰 산줄기가 서로 나서고 물러섬에 따라 물길이 이리저리 갈지자로 흐른다. 이러한 감입곡류의 지형에서 작천리와 함께 인근 산간보다 비교적 넓은 분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형태로 마을이 강변의 활주사면(퇴적사면)을 따라 좌안과 우안에 주렁주렁 달린 형국이다.

대치면에서는 이를 산안 5개리라 부른다. 작천, 개곡, 구치, 광금, 장곡리다. 사실 여기에 더해 지천리까지 산안 6개리라 부르기도 한다. 사실 지천리의 생활권은 낙지터널이 뚫리기 전까지 장평으로 가는 길의 고개가 높으니 대치면의 생활권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하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유역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고개를 넘는 것보다 냇물을 건너며 이뤄지는 교류가 상대적으로 더 활발했으니 산안 6개리라 부르는 것도 이해된다. 다시 말해 작천리와 지천리는 면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한 문화권이라는 이야기다. 거기에 더해 하류로 내려가면 부여군의 용두리에서 거전리와 장벌

리로 이어지는데 이 또한 장평면의 죽림리와 함께 경주 김씨와 평양 조씨를 비롯한 몇몇 성씨가 세거하며 같은 마을처럼 사이좋게 지낸다. 행정구역은 그저 행정구역일 뿐이고, 주민들의 삶은 지천을 따라 이어진다는 이야기다.

지천리의 느티나무 또한 인근 부여군의 마을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느티나무는 특히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여인들이 큰 소주병(과거에는 물동이) 속에 나뭇가지 등을 꽂고 부여군 은산면과 장평 화산리에까지 가서 각기 다른 3곳의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기우제를 지냈다. 기우제를 지내며 섬기는 나무라서인지 물과 관련이 깊은 나무다. 예전에는 작은 다리를 건너서 언덕에 올라서면 바로 있었기에 까치내 냇물 건너는 웃다리 언덕 위 정자나무였다. 그러니 까치내로 여름마다 물놀이하러 오는 피서객들에게도 그늘이 되어주기도 했고, 장평 사람들이 청양이나 장곡사 등지로 갈 때 지천 큰 냇물을 건너기 전 길가에서 쉼터가 되어주던 나무다.

옛날에는 냇물 건너 왼쪽에 나무가 있었지만 30년 전 신작로를 포장하면서 산자락을 끊으며 길을 내어 이제는 냇물 건너 오른쪽이 되었다. 사실 처음 이 나무를 심었을 어른들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칠갑산 삼형제봉 자락의 가장 끝자락에 비보림으로 보는 것도 옳을 것이나 이제 길이 중간을 가로질러 나면서 비보목으로도 길가의 정자목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고 쉬고 있는 나무가 되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령하게 생각하고 또 아직도 섬기고 있다. 최근 나무를 좋아해 목공방을 운영하고 장승도 깎는 예인이 이곳 나무 아래로 이사를 왔으니 이 나무는 누구나 찾는 나무에서 이제는 정말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만 찾는 애호가 나무가 되었다.

국난에 의연히 일어선 의병과 함께하다

화산리 소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장평면 화산리 486
수고 / 둘레 12m / 230cm
수령 591년(143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7-5-486

화산리 소나무는 이 책에서 언급하는 나무 중에서 유일하게 사찰에 속한 나무다. 소나무가 있는 곳은 정혜사의 앞뜰이다. 정혜사는 청양을 대표하는 사찰 중 하나로 841년(문성왕 3) 진감혜소(眞鑑慧昭)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후 내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많지 않다. 다만 1481년(성종 1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과 1799년(정조 23)에 편찬된 『범우고(梵宇攷)』에 '정혜사(淨慧寺)'라는 명칭이 나와 있어 조선 전기 이후 지금까지 그 이름이 변하지 않고 전하고 있음은 알 수 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휴정(休靜, 서산대사)이 승병을 키우는 도량으로 이 절을 활용했다고 한다. 홍주의병을 일으켰던 이세영 장군이 이곳 장평면 분향리 사람으로 1908년에도 의병이 이곳 절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었고, 이 당시 일본군과의 전투가 이뤄지며 대웅전을 비롯한 모든 건물이 이때 불탔다. 다행히도 소나무와 대웅전에 모셔져 있던 불상만이 이 화마를 견뎌내어 오늘에 이른다. 1908년 전소된 정혜사를 월파(月波) 스님이 중창했다. 1930년 불상을 다시 금칠한 기록이 있는데, 이때에는 절 이름이 '정혜사(定慧寺)'라고 불리며 '정'자의 한자가 바뀌어 등장한다.

1908년 이세영 장군을 따랐던 의병들을 잡겠다고 들이닥친 일본군에 의해 사찰 대부분이 불탈 때 현장을 지켰던 소나무다. 국난을 이겨내는 의·승병들의 활동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지켜본 나무이다. 이곳의 요사채 앞에는 늙은 향나무와 백당나무도 함께 있어 정혜사의 대표적인 풍광을 이루고 있다.

정혜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은 상암과 중암이다. 상암은 석굴암이라 불리는 바위 절벽에 세워진 곳으로 정혜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암자인 만큼 남녘으로 지천과 백마강 그리고 부여 시내의 풍경을 볼 수 있다. 또한 이곳의 느티나무를 비롯해 늙은 나무들이 많아서 풍광이 아름답다. 중암의 이름은 혜림암이라고 일컫는데, 이 이름 또한 상암과 정혜사가 모두 일본군과의 전투로 불에 탔지만 중암만큼은 수풀에 가려져 당시 불에 타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무들에 은혜를 입은 암자라는 이름으로 혜림암이라 칭하니, 정혜사와 나무와의 관계는 그 어느 암자보다 각별하다 할 것이다.

08

남양면

봉암리 은행나무 | 명당의 혈자리, 후손이 번창하리라
구룡리 느티나무 | 남양의 황금시대를 지켜보다
백금리 소나무 | 가슴팍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용마리 반송 | 조상 묘를 지켜준 멋드러진 자태

명당의 혈자리, 후손이 번창하리라

봉암리 은행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남양면 봉암리 150-13
수고 / 둘레 29.5m / 1140cm
수령 641년(1382년)
보호수 관리번호 8-59

남양 봉암리의 은행나무는 금정리의 옛 금정역과 불과 500여 보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곳의 옛 금정역은 역무를 보는 사람만 3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충청도 일대에서 가장 큰 역으로 인근의 22개 역을 다스렸으며 중앙에서 종 6품 찰방을 임명해 담당하던 곳이다.

대체로 큰 역 근방에는 반가가 세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든다면 시흥역이 있던 지금의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의 북쪽 언덕에는 외암리의 외암마을이 위치하듯 이곳 금정역의 북쪽 산자락 아래 양지바른 곳에는 평양 조씨 통어사공의 후손들을 비롯해 반가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마을 뒷산의 이름은 나래미로 소의 등짝(나래)을 닮아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또한 여물통의 위치는 구수통, 소의 쟁기의 날이 위치해야 하는 곳에는 보습배미라는 이름의 지명도 있다. 이러한 지명의 유래는 마을 산줄기의 모습이 소가 누워있는 와우형의 형국인지라 그렇다고 마을 어른들은 말씀하신다. 와우형의 명당에서 가장 좋은 혈자리는 소의 입이 있는 구수통의 자리와 소의 젖이 있는 유통의 자리라고 하는데, 봉암리 은행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소의 유통에 해당하는 자리이다. 은행나무는 예로부터 한 그루에서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은행 열매가 열리니 다산과 번창의 상징이 되는 나무이다. 아마도 마을에 처음 입향하셨던 조상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소와 좋은 젖의 기운으로 자손만대 번창하고 건강하라는 의미로 은행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현재 이 은행나무는 수세와 연대, 그리고 은행나무와 함께 있는 고택 방기옥 가옥으로 청양에서 가장 유명한 나무가 되었다. 최근 방기옥 가옥이 한옥 카페로 새 단장을 하고 매년 이곳 은행나무를 찾

는 이들이 수만 명에 이르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명당의 혈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은 의미처럼 크게 번창하게 된 것이다.

은행나무는 느티나무와 다르게 줄기와 열매 등에서 시안(청산가리) 성분을 비롯해 방어물질을 강하게 내뿜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은행나무는 벌레도 꼬이지 않고 병에도 강하다. 이런 방법으로 수억 년을 살아남았으니 별명이 화석나무가 된 것이다. 그리고 대체로 늙은 나무라 하여도 다른 나무가 기생하도록 잘 품어주지 않는다. 그러

나 봉암리 느티나무는 품어 키우는 나무가 벚나무와 오동나무를 비롯해 4종류나 된다. 누백년 누천년을 사는 고고한 도와 더불어 베풀 줄 아는 덕까지 겸비한 나무이다. 이러한 은행나무를 마을주민들이 아끼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 초이렛날(음력 1월 7일)이면 해마다 빠지지 않고 은행나무에서 향단제(행단제)를 지낸다.

설날이 지나면 주민들 모두가 참여해 제사가 끝날 때까지 육식을 금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 중 생기복덕을 가려 화주와 축관을 선출한다. 이때 뽑힌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유지하며 일주일 후 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요즘도 풍악을 울리고 화주와 축관이 함께 단술(식혜)과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을 올려 제를 지난다. 이때 주민들의 새해 소원이 담긴 소지를 태운다. 그리고 향단제가 끝나면 은행나무 인근의 마을 우물인 대동샘에 가서 우물제까지 함께 지내면서 나무에 대한 정성이 마무리된다. 그제야 회관에 모인 주민들은 일주일간 금했던 육식으로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고, 덕담하며 잔치를 즐기게 된다. 오늘날 마을제의 형식으로 나무를 섬기는 일이 대부분 사라지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 반해 봉암리의 정성과 참여는 변함없이 활발하다. 그래서 더욱 이 시대에 은행나무와 이웃한 사람들의 인연과 각별함이 더욱 지극하고 특별하다.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남양의 황금시대를 지켜보다

구룡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남양면 구룡리 546-1
수고 / 둘레 15m / 530cm
수령 273년(1750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4-194

남양면 구룡리는 과거 청양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금광인 구봉 금광이 있던 마을이다. 마을 앞을 흐르는 냇물은 쇳내 또는 금천이라 하였고 금광이 활황을 이루던 시절에는 마을 주민이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흥했던 동네다. 그러나 사람들이 황금으로 호들갑을 떨기 이전 수백 년 전부터 묵묵하게 구룡1리 산수골 마을을 지켜온 나무가 있다.

느티나무는 마을회관 앞에 있고 이곳 입구 언덕 위에는 여주목사를 지낸 이 마을의 안동 권씨 입향조와 아들들의 효행을 기리는 삼부자 효도비가 비각 2곳의 시설과 함께 있어 뿌리 깊은 마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느티나무는 북쪽을 바라보며 3시 방향으로 평평하고 길게 뻗은 줄기가 있는데, 그 윗부분에 청년들이나 어린애들이 자주 올라가 장기와 고누를 두고는 했다 한다. 가지 윗부분에 고누와 장기판을 낫이나 칼 등을 이용해 홈을 팠는데 지워지면 또 파고 지워지면 또 파던 고누판과 나무 위에서 긴장하고 두는 장기와 고누놀이는 마을 청년들만의 특권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 느티나무를 영험하게 생각하는 큰 이유가 나뭇가지 끝부분에 있는데, 사방으로 뻗어 있는 나뭇가지의 방향에서 잎이 성한 나뭇가지가 가리키는 들판에는 논밭이

풍년이고, 유달리 그 햇가지 끝의 잎이 시드는 쪽의 들판은 흉년을 면치 못했다 한다. 그리하여 대대로 마을에서 풍흉을 점치는 나무이자 동네 농사를 관장하는 나무로 신령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현재 느티나무 아래에는 마을 청년들의 힘자랑 들돌이 놓여 있다. 지름 40센티가량의 둥근 바윗돌인데 옛날 마을에서는 이 돌을 들 수 있느냐와 들고 얼마만큼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느냐로 힘자랑을 하는 돌이었다고 한다. 예전 이 들돌은 느티나무가 아닌 현재 마을 사당 앞쪽에 있었는데 마을에 사당을 짓고 길도 바뀌고 여러 변화가 생기면서 이곳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아마도 이 들돌은 마을에 두레가 있던 시절 두레패의 가입과 청년들의 힘자랑용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느티나무 근처에 사시는 어르신의 말씀으로 어르신의 아버님은 씨름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힘이 장사였는데 이 들돌을 들고 마을을 몇 바퀴를 도셨고, 본인은 마을을 반 바퀴 돌았다. 지금 50대에 마을 이장을 보고 있는 아들은 이 돌을 간신히 드

니 이제 농기계가 발달하여 해가 갈수록 장정들이 힘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신다.

1982년경 동네 혈기 왕성한 중학생들이 나무의 아래쪽 뿌리가 노출된 구멍 부분에서 불장난했다. 안타깝게도 나무 중심부가 오래되어 썩고 마른 부분에 불이 붙어 버리니 밑의 구멍에서 산소를 공급받은 불이 속이 텅 빈 마르고 썩은 나무를 만나 말 그대로 기름 부은 그것처럼 훨훨 탔다고 한다. 한밤중에 온 동네 사람들이 불려 나와 물을 붓고 소방차까지 와서 함께 합심해서 황급히 불을 끄는 바람에 다행히 나무를 살려내기도 했다고 한다. 그때 화재 이후 나무는 무사해서 지금은 그 불을 지폈던 자리도 나무가 껍데기 옷을 두껍게 입고 살로 채워 스스로 치유했다. 현장에서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불을 냈던 위치는 이제 나무가 자신의 살들로 메워 없애버렸다. 당시 소년들의 장난이 상처가 아닌 추억이 될 수 있도록 느티나무가 배려한 것은 아닌가 싶다.

가슴팍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백금리 소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남양면 백금리 일원

흔히들 청양에서 가장 높은 산을 칠갑산(해발 561m)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칠갑산은 남양면의 성태산(해발 626m)과 백월산(해발 570m)에 그 높이가 이르지 못한다. 이 두 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큰 골짜기를 이루는데 이 골 안쪽부터 펼쳐지는 들판과 산자락 일대가 모두 백금리이다.

백금리는 예로부터 월티(다리재)를 넘어 보령장으로 오얏말 지나 공덕고개를 넘어 광천으로 가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던 큰 길목에 있는 마을이었다. 두 개의 험준한 산이 마을을 가리고 있었지만, V자형으로 비교적 움푹 패어 넘나들기 좋았던 다리재 고개는 성주탄광과 남양 구봉금광이 활황이던 시기에 보령과 청양의 산업일꾼들이 수시로 걸어서 넘나들던 곳이다. 그래서 마을의 이곳저곳에 주막이 많았고, 새벽이면 출근하고 장에 가는 사람들의 간드레(칸델라)불빛과 등잔 불빛이 줄을 이어 길을 수놓던 마을이다.

이곳의 소나무 중 일부는 백월산 일대의 중턱에 위치하는데 V자 형태로 가슴팍에 상처들이 남아있는 소나무들이다. 이 소나무는 전국적인 송진 공출이 심하던 일제강점기의 끝자락에 일본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송진을 약탈하던 흔적이다. 현장에 가게 되면 마치 어미의 가슴팍을 도려낸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 마을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940년대 초반 정확히는 1943년경에 가장 극심했는데 V자형으로 소나무의 가장 굵은 가슴팍 높이에 생채기를 내고 아랫부분

▲ 백금1리 소나무 수구막이 뒤로 보이는 백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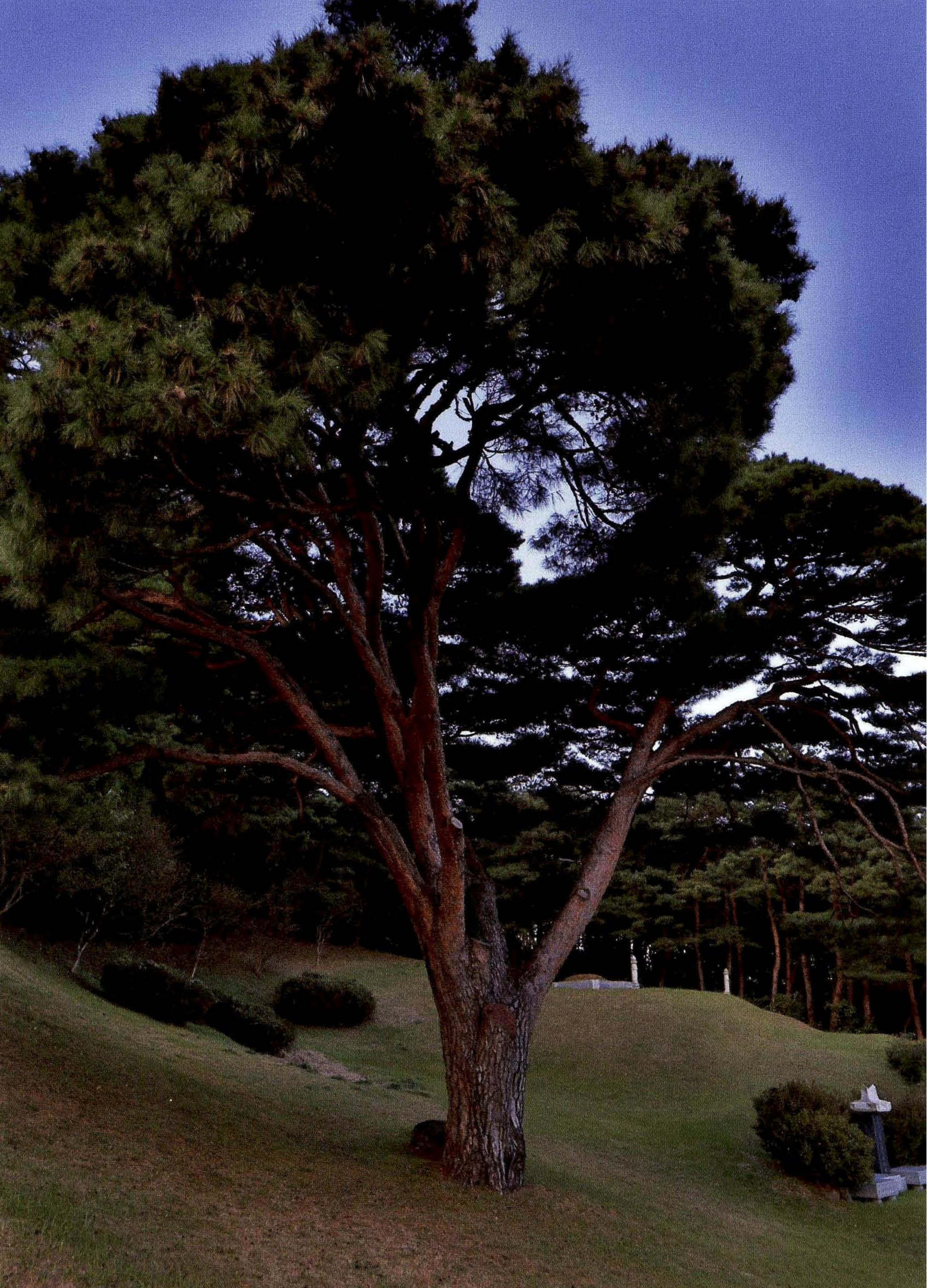
에 송진 깡통을 매달아 송진을 모아 놓고 반장 집에 이틀에 한 번씩 송진을 모아줘야 했고, 한 달에 두 되가 할당량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송진을 가져가면서, 농사지은 쌀도 가져갔는데 둘을 내어주고 택시 바퀴만 한 콩깻묵 한 덩어리를 받아 그걸로 연명하게 했다 한다.

성태산의 소나무 군락은 쇠스랑 날을 지나 백세봉의 줄기를 따라 다리골(금곡)을 만들고 또 계속 이어져 도토실과 백토골을 사이에 두고 솔숲의 풍광을 연출한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송림을 웃옷처럼 두르고 있는 마을에서 오늘도 살아간다. 지금은 도로가 나면서 꽤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나무 숲은 마을을 감싸고 있다. 이곳 송림은 어린 시절 놀이터로 활용했고, 어른들은 이곳 소나무들의 솔가리를 긁어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 많이 활용했다. 1985년까지는 마을 사람들이 송이를 채취하는 일도 가을에 중요한 일상 중 하나였다고 하니 이곳 소나무는 솔가리와 송이버섯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터, 변함없이 등산객과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상 속

▲ 금곡마을 입구 당산 소나무

의 멋진 솔숲 풍경까지 우리에게 주고 있으니, 아직도 남아있는 백월산 중턱의 V자형 상처는 우리에게 고마움과 더불어 미안함을 교훈으로 안겨준다.

지금의 백금리 길을 따라 둘러보다 보면 그런 모습이 상상되지 않는다. 큰 산 아래 좁지 않게 자리한 들판과 언덕이 참으로 사람들이 조용하면서도 넉넉하게 살기 좋은 마을일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그래서 충청감사를 지내기도 했던 조선 시대 마지막 영의정 심순택 또한 이곳에 터를 잡고 자신의 노년을 보낼 꿈을 꾸었겠구나 싶다. 은퇴한 심순택은 자신의 집에서 몇 년 살지 못하고 고종황제의 부름으로 또 한양으로 올라가게 된다. 어쨌든 조선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으로 한반도를 호령하던 노정승이 점지하고 살다 간 땅인 만큼 지금도 산세와 풍광이 아름답고 특히 소나무들이 멋지다.



조상 묘를 지켜준 멋드러진 자태

용마리 반송

소재지 충남 청양군 남양면 용마리 산 112-1
수고 / 둘레 14.5m / 290cm
보호수 관리번호 8-11-8-4-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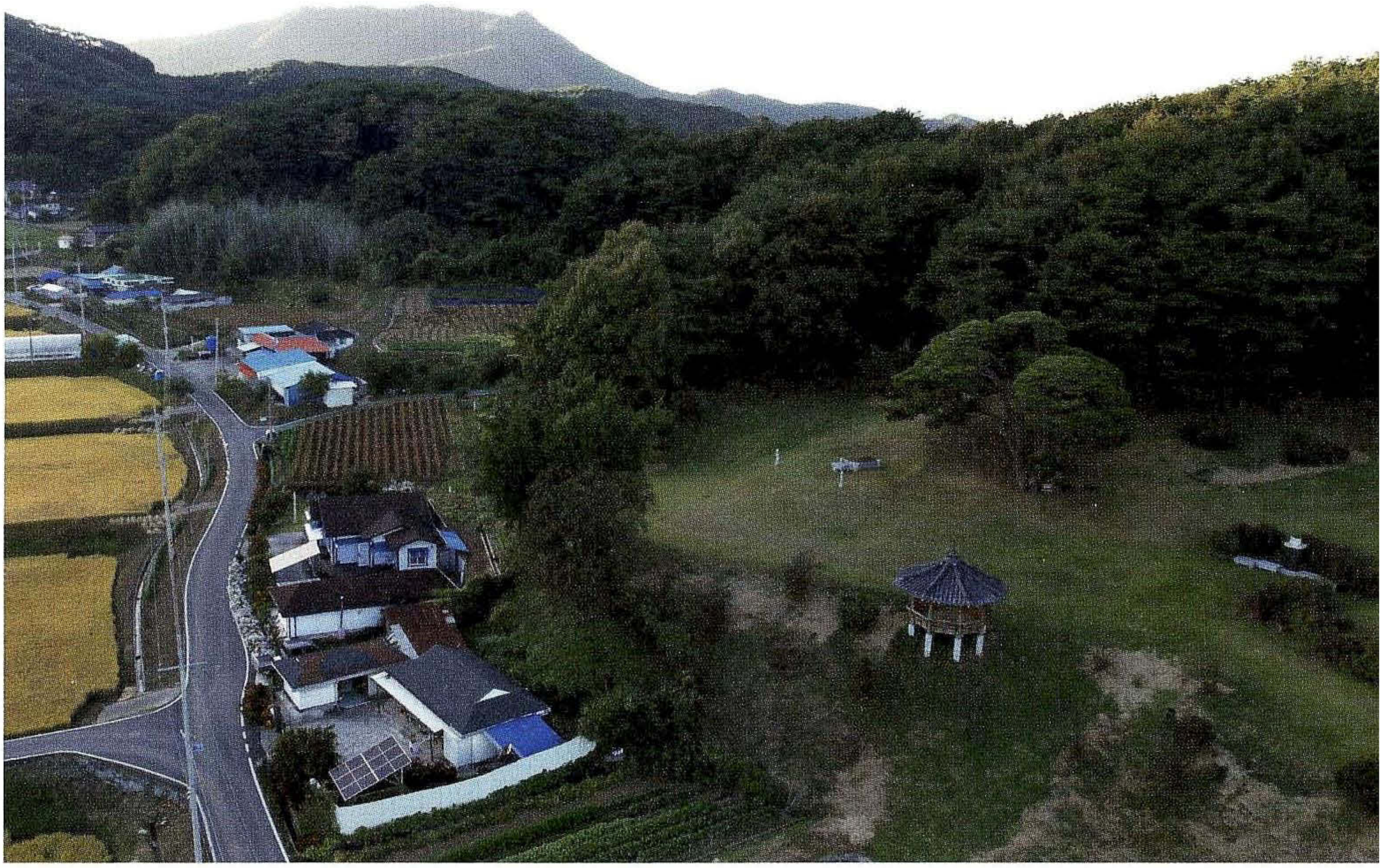
고려 말엽 충청도 일대의 대표적인 사대부였던 한산 이씨 집안의 이색이 안동 권씨 집안에서의 처가살이는 유명하다. 장가(처가)에서 접한 첫 번째 개경의 밤은 휘황찬란하고 생경한 풍경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고려 시대는 물론이고 유교적 풍습이 지배적이고 국가에서도 유교를 장려하던 조선 전기까지도 결혼하게 되면 으레 처가살이하는 서류부가혼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임진왜란이라는 마을의 근간까지도 뿌리를 흔드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바로 오늘날까지도 전통 마을에 일반적인 집성촌의 형성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나무들의 대부분 또한 집성촌이 일반화된 이후의 나무이다. 그러니 나무의 심어진 연대 또한 마을의 시작과 관련이 깊은 나무도 많고, 마을에서 살던 한 성씨의 자손들이 대를 이으며 같은 나무의 품과 그늘을 공유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남양면 용마2리의 소나무 또한 한마을에 살던 한 문중에서 대대로 관리해 온 대표적인 나무라고 할 수 있다.

남양면 소재지에서 서쪽으로 무량사로 가는 2차선 포장도로를 따라 흥산리로 가다 보면 용마리로 들어가는 길을 만나게 된다. 이 마을에서 용주골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청주 한씨의 묘역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묘역에서 Y자형으로 두 갈래로 갈라진 큰 소나무를 발견하게 된다. 오래된 소나무에서 볼 수 있는 선명한 비늘 모양의 껍질이 나무의 하단부에서 일찍 끝나고 곧바로 붉고 건강한 적송의 가지로 새끼를 치며 둘은 넷으로 넷은 여덟으로 부채모양으로 벌어지는데, 아마도 자손들의 번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싶다.

남양면 흥산리에서 대봉리 용마리에 이르기까지 충청관찰사 한배주로 대표되는 집안의 방계 후손들이 세족을 이루며 살고 있다. 청주 한씨 집안은 이 지역에서 양반 집안으로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며, 감사 제수를 받고 3일 후 공주감영으로 가던 중에 사망하며 극적인 삶을 살다 간 충청감사 '한배주'와 관련해서는 흥산리와 온암리 일대에 호랑이 타고 서당 다닌 한배주 이야기부터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며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다. 소나무의 절개를 보며 성묘를 해서인지 청주 한씨 문중에 애국지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훈·한태석 형제와 같은 걸출한 독립지사들이 바로 이곳 인근 흥산리 출신이다.



청주 한씨 집성촌 마을에서 조상님의 묘역에 심어져 가꾸어지는 소나무는 조상 대대로 한 집안의 여러 세대가 바뀌고 많은 삶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어가며 매년 성묘와 벌초로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아온 나무다. 대를 이어 사람들이 나무에 봉사하고 나무 주변을 관리하며 유지를 받들고 있는 것은 효의 도리를 대대로 책임진다는 의미의 행동이기도 하다. 청양군의 소나무 가운데 가장 그 체적과 수세가 멋진 나무이다.

풍모와 다르게 이 소나무의 수령은 350년 정도로 추정한다. 그럼에도 외양에서 비치는 모습은 청양군의 또 다른 보호수로 600여 년이 넘은 도림리의 소나무에 못지않다. 비슷한 수세를 자랑하던 장평면 도림리 산자락 중턱의 소나무가 아쉽게도 2000년대 중반 봄철 폭설이 심하던 해 큰 가지가 부러지며, 잘생긴 본 모습이 상당한 부분이 훼손되었다. 그래서 청양군에서는 이곳 용마리 용주골의 반송이 더욱 소중하다.

09

화성 men

용당리 느티나무 | 다산 선생도 말을 매고 쉬었다
기덕리 & 화암리 소나무 | 송림을 아끼던 옛 조상들의 유산
농암리 버드나무 | 울안 사람들의 보물
구재리 느티나무 | 고향을 떠나는 정승이 뒤돌아보다
매산리 느티나무 | 8·15 광복이 살린 죽을 뻔한 나무

다산 선생도 말을 매고 쉬었다

용당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화성면 용당리 546
수고 / 둘레 14m / 650cm
수령 341년(168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229

화성면 용당리는 신정리와 수정리 그리고 비봉면의 방한리와 홍성 장곡면 옥계리에 면하여 위치한다. 크게 용머리(용두)와 원당, 띠실 그리고 큰 동네 용곡이 있는데, 용곡역은 역참제도가 구체적으로 사료상에 나타나는 고려 시대 이전부터도 화성 부곡으로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있고, 임진왜란이 끝난 후 광해군의 치세에 충청도에서 가장 큰 역으로 22개의 속역을 거느렸던 금정역으로 그 세가 확장된다. 이곳에서 찰방이 기거하며 업무를 보던 오죽헌과 작청을 비롯한 다양한 공무 시설은 용곡 골짜기 안에 있었고, 당산을 넘어 용머리라 부르는 용두에는 말을 사육하고 매어놓고 빌리던 곳이 있어 역마와 관련한 실질적인 활동이 일어나던 곳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 내의 느티나무제는 과거 지금은 사라진 용두초등학교 자리에 있는 당산의 느티나무에서 지냈지만, 이곳이 사유지가 되면서부터 용머리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서 제를 올린다고 한다.

용당리 느티나무는 무한천과 수정천 두 물길 사이, 국도와 마을진입로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다. 나무 주변으로는 곡선이 살아있는 논과 작은 동산, 팔각정이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고 있

다. 나무가 서 있는 위치는 영락없이 동구나무 또는 정자목에 해당하는 곳이다. 길과 길이 교차하는 곳은 사람과 물자가 자주 드나드는 곳으로 쉼터와 약속장소로 이용될 상징물이 필요해지므로 사람들은 크게 자라는 나무를 심어왔다. 이 느티나무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나무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역을 떠난 관리들이 한양 방향의 광세역(지금의 예산 광시)으로 가는 길에 여장을 정비하고 잠시 쉬며 출발하는 곳이 되기 때문이다.

느티나무의 용모는 마을 이름에 용이 들어가서인지 휘어지며 위로 향한 모습이 마치 두 마리의 용이 용트림을 하는 듯 느껴진다. 전체적으로 힘이 느껴지는 나무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 가지 틈으로는 노박덩굴이 자라고 있다. 노거수에서 종종 발견되는 현상이다. 다행히 노박덩굴은 덩굴성이지만 나무 전체를 뒤덮어 타고 오른 나무를 고사에 이르게 하는 칡덩굴처럼 무자비하지는 않으니 공존할 수 있는 관계이다.

1795년 6개월간 이곳 용곡역에서 금정찰방으로 부임을 했던 다산 정약용은 말을 타고 근처 지역을 여행하는 것을 즐겼으니 수시로 이 나무와 함께했을 것이고 특히 북쪽으로 말을 달릴 때는 항상 출발해서 여장을 정비하고 쉬거나 거쳐 가던 곳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근 어재울이 고향인 번암 채제공 또한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에 이곳을 여러 차례 지나며 느티나무에서 고단한 여정의 쉼을 얻었을지 모른다. 조선 후기 당대 최고의 인물들이 둘이나 수시로 지나다니고 쉼을 얻었을 정자목이라 생각을 하면 더욱 나무가 각별하게 느껴지리라 생각된다.

송림을 아끼던 옛 조상들의 유산

기덕리 & 화암리 소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화성면 기덕리·화암리 일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편애하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다. 옛사람들의 시조와 풍수화에도 자주 등장하고 애국가에도 등장한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나무 중 가장 많은 나무가 소나무이기도 하다. 청양군에서 소나무 숲이 멋진 곳을 꼽으라면 기덕리를 들 수 있다. 기덕리 소나무 숲은 광평리, 화암리, 수정리와 산줄기가 연결되며 널찍하게 자리하고 있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우리 삶에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거는 금줄에도 솔가지가 쓰이고 성주신을 받들 때도 솔가지로 만든 성줏대를 쓴다. 그만큼 소나무에는 신령함이 깃들여 있다고 여겨져 왔다.

또 송진과 송홧가루는 실생활에 두루 유용하게 쓰였다. 목재는 궁궐을 짓거나 배를 만드는 용도로 쓰였으므로 함부로 베지 못하게 봉산(封山)을 설치하여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도 하였다. 사실 소나무가 제 혼자 자연적으로 온 산을 뒤덮을 만큼 번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해 벌목한 곳마다 심다 보니 지금은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흔한 나무가 되었다.

기덕리 소나무들은 100년에서 200년 정도의 수령이 있는 조선 소나무다. 적송이란 이름은 일제식 표현으로 적송보다는 조선 소나무, 또는 조선 솔이라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다. 조선 소나무 중 곧게 쭉

쭉 뻗어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나무를 금강송이라 따로 구분해 부르기도 하는데 기덕리 소나무는 휘어짐 없이 시원스럽게 뻗은 것이 금강송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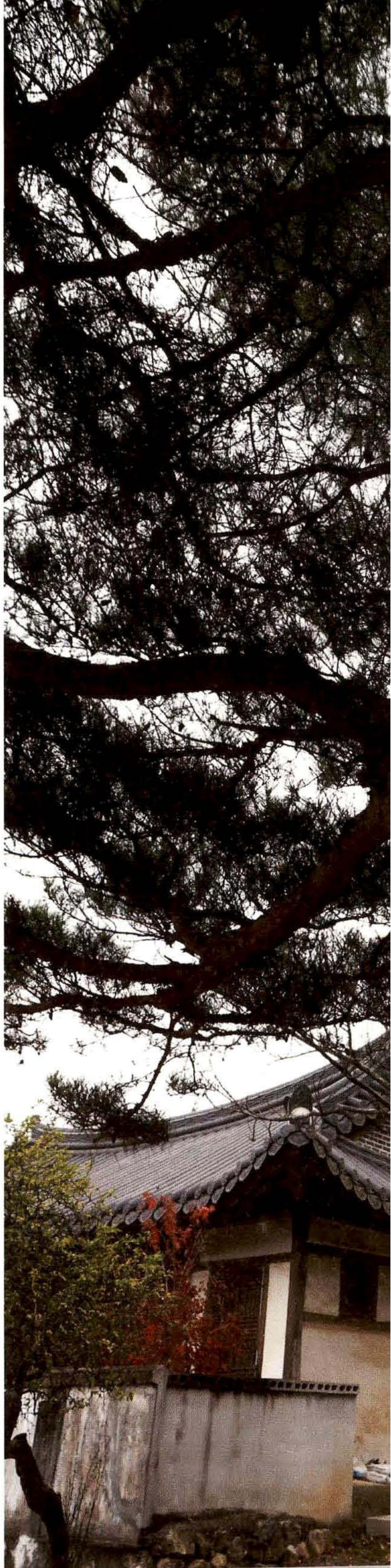
기덕리는 예스러움이 많이 보존돼있는 마을이다. 화성면 일대에서 중요교육기관 역할까지 담당했던 평택 임씨 문중의 재실인 산천재가 외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리를 잡고 있고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면 임 씨 후손들이 사는 세 채의 가옥이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

마을 곳곳에서 만나는 소나무 숲이 모두 아름답지만, 유난히 기품 있고 운치 있는 소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장소는 삼리정 부근이다. 삼리정은 평택 임씨 문중의 재실이 있는 강당고개에 2017년 세워진 정자로 기덕리, 수정리, 화암리 세 마을의 교차지점에 위치해 지어진 이름이다. 정자 부근 소나무 숲은 단골 소풍 장소이자 마을 사람

들의 놀이터였다. 좀 더 과거로 시곗바늘을 돌리면 1960년대 야학의 중심지였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투신했던 애국지사를 배출한 산실이었다. 일제 수탈의 주요 품목이었던 소나무가 이리 강건하게 살아남아 아름다운 소나무 숲으로 보전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마을에는 유명한 소나무 숲 외에도 눈길을 사로잡는 나무가 더 있다. 평택 임씨 재실 바로 앞 탱자나무와 역시 그 부근에 있는 300년 된 소태나무다. 탱자나무는 키 2~4m 정도의 비교적 자그마한 나무다.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는 가지는 겨울에도 초록색을 띠고 있어 상록수가 아님에도 언뜻 늘푸른나무처럼 보이기도 한다. 늦봄엔 향기가 그만인 흰 꽃을 가득 피우고 가을이면 노랗고 귀여운 열매가 다닥다닥 달린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외부인의 침입을 경계하는 의미를 담아 심는 나무가 바로 탱자나무다.

마을의 소태나무에는 어떤 이의 정성인지 손글씨로 쓰인 소박한 안내판이 매달려 있다. 내용인즉 소태나무는 쓴맛이 강해 예전에 어머니들이 모유 수유를 끝낼 적에 이 나무즙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면 소태나무의 쓴맛의 근원 성분은 위장을 튼튼히 하는 약재로 사용된다고 하니 아이의 집착도 끊어내고 장 건강도 위하는 일거양득인 셈이다. 소태나무 자체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흔한 나무이나 껍질이 섬유의 원료로 사용되어 거목으로 자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전국적으로 보호수로 지정된 곳은 10여 그루가 있고 천연기념물로는 오직 한 그루가 지정되어 있다. 기덕리 소태나무도 적절한 보호가 이뤄져 마을의 또 다른 명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울안 사람들의 보물

농암리 버드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화성면 농암리 배울

화성면 농암리 배울 마을 안 세 갈래 길에는 오래된 버드나무와 샘이 있다.

버드나무는 생각보다 종류가 많아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50종이 넘는다. 키가 큰 교목에 해당하는 왕버들, 능수버들 등이 있고 키가 작은 관목에 해당하는 것에는 갯버들, 콩버들 등이 있다. 가지의 형태로는 가지가 늘어지는 능수버들, 수양버들이 있고 늘어진 가지가 파마한 듯 고불거리면 용버들이다.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버드나무의 공통점은 모두 물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버드나무 주변을 파면 샘이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배울 마을에 버드나무와 샘이 나란히 있는 이유가 이러한 버드나무의 생태적 특징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듯 하다. 나그네가 우물가에서 물 한잔을 청했을 때 천천히 마시라는 의미로 버들잎을 띄워줬다는 이야기에서도 버드나무와 샘은 함께 등장한다.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고 물은 버드나무에 의해 정화되니 이만한 조합이 없다.

마을 주민들이 배울 정자나무라 부르는 농암리 버드나무는 가지가 늘어지지 않고 위로 향하고 있는 형태로 보아 왕버들나무이다. 왕버들은 높이가 20m까지 자라는 종류로 키가 크고 잎도 다른 버드나무에 비해 넓어 붙여진 이름이다. 오래된 왕버들은 귀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묵은 나무둥치 속에 인 성분이 풍부해 흐린 날 밤이면 나무 주변에 푸른 불빛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다.

버드나무는 이른 봄 싹을 틔우고 다른 활엽수들이 모두 잎을 떨군 12월까지도 푸른 잎을 달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무가 햇볕을 좋아하지만, 버드나무는 그중에서도 유독 햇볕 없이는 살지 못하는 극양수에 속한다. 그 때문인지 귀신이 싫어한다는 속설이 있어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할 때 버드나무 가지가 이용되기도 한다.

농암리 버드나무는 땅과 맞닿아 있는 부근부터 두 갈래로 나뉘어 자라고 있으므로 언뜻 보면 두 그루로 착각하기 쉬운 형상을 하고 있다. 두 줄기 중 굵은 쪽의 중심줄기가 4m 높이에서 잘려져 있고 넓은 면적의 외과수술 흔적도 있다. 살아있는 나무임에도 버섯이 빼곡히 자라고 있는 모습도 관찰된다. 아마도 사람들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어느 밤 속절없이 몰아치는 강풍에 그 몸을 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버드나무 하면 떠오르는 약이 해열진통제로 유명한 독일 바이엘사

의 아스피린이다. 한방에서도 버드나무는 뼈마디 통증과 관절염 치료제로 쓰여왔다. 이순신 장군이 무과시험 중 말에서 떨어졌을 때 다친 다리를 버드나무로 묶었고 진통제가 없던 시절엔 산모의 입에 버드나무 가지를 물렸다고 하니 우리 조상들도 버드나무의 진통 효과를 진즉에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배울 마을 사람들은 정월 열나흘 밤에 버드나무 바로 아래 샘에서 마을제를 지냈다. 마을 안에는 잘 가꿔놓은 큼직한 연못도 있다. 마을이 배 형상이라 마을 안에 물이 있어야 마을이 잘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조성했다고 한다. 지형적 보완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여유로운 풍경을 선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연못이다. 마을 공동우물인 샘을 정성껏 위하고 연못까지 만들어 가꾸는 마을 공동체의 마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화성면

고향을 떠나는 정승이 뒤돌아보다

구재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어저울

화성면 구재리는 장재동, 어저울, 구수골, 동두말의 자연마을로 이뤄져 있는 행정구역이다. 그중 어저울은 구재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구봉산이 품어주어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어저울은 조선 영·정조 때 삼정승을 지낸 번암 채제공 선생의 고향 마을이다. 번암 선생은 태어나 12세까지 어저울에 살았다고 전해진다. 생가 바로 앞에는 우물이 있는데 그 무렵 몹시 가물어 말랐던 것이 번암 선생이 태어나 첫울음을 울자 우물물이 펑펑 솟았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지금도 마을 안에는 우물과 빨래터가 남아있다. 마을을 다녀보면 터만 남아있을 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빨래터가 대부분인데 이곳은 지금도 마을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는지 빨랫방망이와 대야가 눈에 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데다 한눈에 보기에도 맑은

물에 반듯하게 조성돼 있어 귀하게 느껴진다. 번암 선생은 그 학문과 업적으로도 칭송받지만 조선 시대로서는 드물게 80세까지 천수를 누렸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어저울의 우물물이 일조하지 않았을까 잠시 상상해 본다.

외부에서 어저울마을로 접어드는 길 왼쪽에 한 그루, 오른쪽에 두 그루가 사이좋게 서 있어 삼형제 나무라 부르는 느티나무가 있다. 오른쪽 두 그루 사이에는 작은 정자가 자리하고 있고 그 옆에는 선돌이 있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구봉산 중턱 산제당에서 제를 올리고 마을로 내려와 이곳 나무와 선돌에서 성황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현재는 맥이 끊긴 상태다.

삼형제 나무라고는 하나 생긴 것은 제각각이다. 마을에 들어서며 만나는 첫 번째 나무는 뿌리 부근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자유분방하게 자랐고 두 번째 나무는 약간 기울어지긴 했으나 비교적 꼿꼿이, 마을 가장 안쪽 나무는 거의 눕다시피 한 형세로 자랐다. 밭매고 있

는 마을 할머니에게 여쭈니 60년 전 이 마을로 시집왔을 때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한다. 마을 아이들이 삼형제 나무에서 많이 놀았다고 하는데 나무마다 타고 노는 맛이 달라서 더 재미있지 않았을까? 요즘으로 따지면 상상놀이터 쯤 될 것 같다.

삼형제 느티나무 중 두 그루에는 외과수술이 있어야 하는 꽤 큰 상처가 있다.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아니라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현재 마을주민들은 보호수 지정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한다. 이는 마을이 낳은 역사적인 인물인 채제공 선생과 지금의 마을을 사는 사람들을 잇는 중요한 자산으로 우물과 더불어 물리적으로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노력이 결실을 보아 삼형제 나무가 건강한 모습으로 주민들 곁에 오래 남아있길 기원한다.

번암공의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시 한 수 소개한다.

시골집에서 머물다 (차홍주장 次洪州庄)

남으로 향하는 기러기를 따라 멀리 내려온 건
솔 숲 있는 내 고향(어저울)에 돌아오려 함이었네
넘어가는 저녁 해는 들판을 갈라놓고
가을 강은 여러 고을 비껴서 흘러가네
청명한 날 산천에는 갠 빛이 어른대고
밝은 마을 감 대추는 서리를 곧 맞으리라.
어머님의 생신날에 국화주를 올릴 테니
다음 달 단성(오늘날 함양 단성면)에는 웃음소리 넘치리라.

8·15 광복이 살린 죽을 뻔한 나무

매산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화성면 매산리 312
수고 / 둘레 20m / 610cm
수령 291년(173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9-199

매산리 마차들마을 느티나무는 무한천 변에 서서 300년째 당당한 모습으로 마을을 지키고 있다. 바로 옆에는 동생 나무에 해당하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다정하게 자리하고 있다. 아직 동생 나무들은 아름드리라 하기엔 부족하지만 50년쯤 더 흐르면 삼형제 느티나무라 불릴 법한 멋진 풍광이다. 나무들 바로 맞은편에는 오래된 방앗간이 현재도 운영중이다. 동생 느티나무들이 간판을 가리고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싫어할 만도 한데 용케 포장된 도로 사이에 살아남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방앗간 주인을 만나보니 예전에는 무한천 범람을 막기 위해 심어진 느티나무가 수십 그루였는데 도로포장과 하천 정비가 이뤄지는 사이 하나둘 베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 방앗간 앞 나무만큼은 지켜주고 싶었다고 한다. 방앗간 주인의 보살핌으로 세 그루의 느티나무가 자리를 잡은 이 공간은 색다른 느낌을 자아낸다. 마을안길이지만 마치 작은 숲속에 와 있는 듯한 아늑함과 청량감이 전해지는 곳이다.

나무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걸터앉기 좋은 형태의 경계석이 둘러쳐져 있다. 이 또한 방앗간 주인분이 마을 이장을 지낼 때 손수 재료를 마련해 와 만든 것이라고 한다. 다만 그 사이 나무가 많이 자랐는지 경계석의 둘레가 다소 비좁아 보여 좀 더 경계를 넓히고 주변 도

로포장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해 보였다. 보통 아래쪽으로 쳐지는 굵은 가지는 차량 통행의 편의 등을 위해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매산리 느티나무는 거의 바닥에 닿도록 늘어진 가지도 잘라내지 않고 지주대를 설치해 보호하고 있다. 가지와 가지 사이에 당김줄을 설치해 무거운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놓은 곳도 눈에 띈다. 나무의 가지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며 돌보는 느낌이다.

매산리 느티나무는 해방나무라고 불린다. 태평양전쟁으로 한반도 물자 수탈이 극에 달하던 시절, 일제는 마을마다 돌며 큰 나무를 베어갔다. 마차들마을에 베러 왔을 때 마을주민들이 내일이 마침 칠월칠석이니 나무 아래서 칠성제나 치르고 베어가라고 만류하는 바람에 베기를 미뤘는데 하룻밤 사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일까 궁금해져 달력을 찾아보니 광복이 된 1945년의 칠월칠석이 8월 14일인 것을 보니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이다. 해마다 나무 아래서 칠성제를 지내며 귀히 여겼던 주민들의

정성이 나무를 살린 셈이다. 지금도 주민들은 변함없이 칠월칠석이 되면 칠성제를 지내고 함께 콩국수를 나눠 먹는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인지 해방나무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은 무사하지 못하다는 속설도 전해진다. 마을 앞 하천 정비 당시 주민들의 만류에도 큰 가지를 잘라냈던 공사 인부가 잘못되었다는 등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는 마을 어른의 표정은 진지했다. 여기까지 듣고 보니 왜 바닥까지 처지는 가지를 제거하지 않고 돌보는지 이해가 됐다. 아마도 일제에 의해 베어질 운명에서 살아남은 나무의 영험함과 오래된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교훈이 섞여 있는 금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10

비봉면

중묵리 느티나무 | 두 동네 아이들의 삼형제 놀이터

중묵리 향나무 | 샘에서 온정의 향기 모락모락

관산리 느티나무 | 항상 찾아주는 주민들이 있어 행복

방한리 느티나무 | 나무를 귀히 여기는 마을

방한리 팽나무 | 전설 같은 바다를 꿈꾼다

비봉면

두 동네 아이들의 삼형제 놀이터

중묵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외덕고개

비봉면 중묵리에서 운곡으로 넘어가려면 외덕고개를 넘어야 한다. 야트막한 외덕고개는 운곡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운곡장을 오가던 아낙네들이 쉬어갈 법한 길목에 위치한다.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로는 2009년까지 운영됐던 방앗간과 주막이 외덕고개 위에 나란히 있었다고 한다. 현재도 과거 주막이었던 건물은 국밥 장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남아있어 옛 풍경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중묵리 느티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 3m가 넘는 둘레와 용트림하듯 사방으로 뻗은 힘찬 가지에서 상서로운 기운이 느

껴진다. 오랜 세월 그곳에 서 있었을 느티나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타고 오르기 쉽도록 바닥까지 늘어진 가지를 타고 다람쥐처럼 오르내렸을 마을 개구쟁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넉넉한 나무 그늘에 앉아 고개를 오르느라 지친 다리를 쉬는 아낙네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이렇듯 그 아래 서면 상상 속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오래된 나무다. 나와 내 가족과 이웃들의 수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머금고 있는 생명.

외덕고개에는 원래 지금의 두 그루에서 한 그루를 더해 느티나무 삼형제가 사이좋게 서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 해인가 화재로 한 그루가 소실되고 지금은 왕복 2차선 도로를 가운데 두고 양편 축대 위에 두 그루가 우람하게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풍경을 주민들도 무척이나 아꼈는지 50년 전쯤 외지인이 느티나무를 사 가고 싶어 했으나 동네 어르신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한다. 산신계가 조직돼 꾸준히 산신제를 지내고 있는 마을의 전

통을 몸으로 익히고 있는 어르신들은 마을의 역사와 함께한 노거수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두 형제나무는 양쪽에서 도로 위로 가지를 뻗어 터널 같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 도로 또한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나 있어 느티나무를 끼고 승용차로 고개를 넘노라면 왠지 새로운 세상을 펼쳐질 듯한 묘한 착각이 일어난다.

노거수의 진짜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계절은 의외로 겨울이다. 풍성했던 잎을 떨구고 헐벗은 모습으로 홀로 서 있는 노거수를 자세히 본 적이 있는가? 잎이 무성한 계절에는 잘 보이지 않던 전체적 수형과 가지의 뻗음새가 매우 예술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특히 가지를 많이 만드는 느티나무의 경우는 굵은 가지에서 맨 끝 작은 가지까지 이어지는 선의 흐름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샘에서 온정의 향기 모락모락

중묵리 향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 166
수령 500년 추정

빨리 자라기도 하고 크게 자라기도 하는 느티나무와 팽나무가 마을 입구 정자목으로 선택받는 나무라면 향나무는 전통적으로 사당이나 서원 등 제례가 이뤄지는 특정한 장소에 심는 나무다. 다르게 표현하면 느티나무가 서민의 나무라면 향나무는 양반의 나무다.

향나무는 수령이 오래되어도 쉬이 거목이 되지 못한다. 어린나무일 때는 비교적 곧게 자라지만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비틀리고 휘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저절로는 아름다운 수형으로 자라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나무가 바로 230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되는 향나무다. 울릉도 해안절벽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 향나무는 2300년이 넘은 나무라고는 보이지 않는 아담한 크기다. 이처럼 향나무는 적절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매우 더디게 자란다.

중묵 덕다리 노인정을 지나 내덕마을로 가는 길, 논밭 사이에 외로이 서 있는 향나무는 어쩐지 측은한 마음이 든다. 수령 500년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나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탓인지 관리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도롯가로 기울어져 있는 중심 줄기는 잘린 상태이고 여기저기서 덩굴식물이 나무를 타고 오르고 있다. 표지석도 둘레석도 없어 마을 사람이 아니라면 존재도 모른 채 무심히 지나칠지도 모르겠다.

중묵리 향나무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 향나무 주변 과거에는 마을 샘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로부터 향나무는 살균·살충 효과가 있어 우물가에 심어두고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용도로 활용돼 왔기 때문에 마을 샘 주변에 향나무를 심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향나무 가지와 뿌리는 제례의 필수품인 피우는 향의 재료다. 중묵리 향나무도 여기저기 잘린 가지의 흔적이 보

이는데 아마도 마을제나 주민들 각 집안의 제사에 쓰였으리라. 또 향나무 가지를 베어다 달여 먹으면 위장병 등에 효험이 있다 하여 약이 부족했던 옛 시절에는 즐겨 이용되었다 하니 중묵리 향나무의 풍모가 조금 못나게 된 사연을 알 것도 같다.

풍채 좋고 용모 훌륭한 보기만 하는 향나무보다 크고 작은 생채기를 안은 채 마을 주민들과 동고동락하며 긴 세월 동안 아낌없이 내주었던 중묵리 향나무가 더욱 귀하다. 이제는 귀히 생각하는 만큼의 귀한 대접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항상 찾아주는 주민들이 있어 행복

관산리 느티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비봉면 관산리 268
수고 / 둘레 15m / 770cm
수령 691년(133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231

느티나무는 마을 입구 뒷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두 갈래 물길 사이에 서 있다. 물은 오염원이 없는 덕분에 맑고 깨끗하며 기운차게 흐른다. 나무 옆에는 마을주민들이 항상 모여 밥도 해 먹고 쉴 수 있는 공동부엌 겸 정자가 있다. 주민들의 이용이 빈번한지 냉장고며 벽걸이 선풍기 등이 잘 갖춰져 있고 바닥도 정갈하게 닦아놓았다. 많은 마을의 나무들이 이제 마을주민들의 발길이 뜸해져 외롭게 서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풍경이다. 언제 가더라도 주민 네댓은 쉽게 만날 수 있으니 느티나무도 덩달아 생기있어 보인다.

관산리에는 하트모양을 닮아 사랑 저수지라고도 불리는 1급수 관산저수지가 있다. 이처럼 풍부한 물을 활용해 수영장 등을 갖추고 2005년부터 녹색 농촌마을 은골구기자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유명해졌다. 이곳엔 청양에서 처음으로 구기자를 이용한 한과를 상품화한 칠갑산구기자한과공장이 있는데 이 또한 마을의 자랑거리다.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영농조합법인으로 1994년부터 이 마을에서 나는 재료로 정성껏 만들고 있다.

나무는 바닥부터 사람 키 높이 넘어까지 커다란 외과수술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 영향인지 나무는 하나의 기둥으로 올곧게 자라지

못하고 양쪽으로 크게 갈라져 가지를 뻗고 있다. 덕분에 나무가 드리우는 그늘의 면적이 더 넓어졌다. 정자에서 만난 마을주민들의 얘기로는 벼락을 맞아 그리되었다고도 하고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세월의 탓이라고도 한다. 나무는 기둥이 썩어서 비어 있는 공간이 아이 다섯이 너끈히 들어갈 정도로 넓었으나 보호수로 지정된 후로 정성들여 메꾸고 가지에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은 마음이 놓였다고 한다.

노거수가 사람 몇이 들어갈 정도로 속이 썩었는데도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답은 어렵지 않다. 나무의 생장을 담당하는 살아있는 부분은 나무의 안쪽이 아니라 껍질 바로 아래, 형성층이라 불리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나무의 안쪽은 나무를 지탱해주는 물리적 역할을 할 뿐 나무의 생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래서 썩은 부분을 긁어내고 더 이상의 괴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적절한 소재로 메꿔주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시멘트를 발랐다고 착각하기도 하는 인공수피는 코르크 가루에 실리콘 등 접착력이 있는 재료를 적절히 배합해 만들어준다. 작은 가지 한두 개 잘리는 정도의 상처는 수년이 지나면 다시 껍질로 덮여 흔적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재생능력이다.

마을에서 귀히 여기는 나무인지라 어르신들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은 막걸리를 부어주며 나무의 안위를 살핀다. 어르신들께 여쭈니 마을에선 느티나무 아래서 제를 지내지는 않았고 정월 초닷새에 마을 뒷산 산신당에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나무가 사람을 불러 모았는지, 사람이 나무를 좋아해 여전히 찾는 건지는 분명치 않으나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니 행복한 느티나무임이 틀림없다.

나무를 귀히 여기는 마을

방한리 느티나무

입구 정자목
소재지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988
수고 / 둘레 15m / 480cm
수령 261년(176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10-208

언덕 느티나무 형제
소재지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145
수고 / 둘레 18m / 380cm | 14m / 500cm
수령 191년(1832년) | 241년(1782년)
보호수 관리번호 8-11-10-206 | 8-11-10-207

비봉면 방한1리에는 보호수로 지정된 잘생긴 느티나무가 세 그루나 있다. 한 그루는 마을로 접어드는 작은 길가의 동구나무고 나머지 두 그루는 방한1리 경로회관 옆 낮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한 마을 안에 보호수가 세 그루나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생각되어 경로당에서 쉬고 계신 마을 어르신께 여쭤보니 마을주민 중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무를 잘 돌보려면 보호수 지정이 필요하다며 애를 많이 썼다고 한다. 그 덕분인지 세 그루의 노거수 모두 활기차고 건강해 보인다.

방한1리 경로회관에 들어서면 마을 동구나무를 찍어놓은 사진액자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사진으로 걸어놓을 만큼 멋진 나무이기도 하지만 마을주민들이 정자목을 얼마나 아끼는지도 설명 없이 느낄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다. 동구나무는 사방이 논으로 둘러싸여 있다. 느티나무 잎과 곧게 자란 벼의 미묘하게 다른 두 가지 초록이 주는 조화로움은 멋진 풍광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의자 하나 가져다 놓고 온종일 앉아있어도 질리지 않을 풍경이다. 너른 그늘을 만들며 사방으로 뻗어나간 힘찬 가지와 굵직한 기둥에서 250여 년의 세월의 힘이 느껴진다. 한 그루 느티나무 자체로 작은 숲이다. 가지를 올려다보니 아이들이 타고 올라 놀기 딱 좋게 생겼는데 아마도 마을에

아이 키우는 집이 많았던 몇십 년 전만 해도 개구쟁이 여럿이 나무를 오르내리다 논배미로 곤두박질 쳤으리라.

경로회관 옆 느티나무 형제는 현재의 비봉농공단지 주변으로 줄지어 심겨 있던 비보림 일부다. 비보림이란 풍수지리상 명당이 되기엔 부족한 입지에 나무를 심어 풍수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숲을 말한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는 풍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옛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이 사는 터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개척해가겠다는 공동체의 의지다. 그 공동체 정신으로 주민들은 합심하여 마을에 필요한 나무도 심고 다리도 놓고 마을제도 지냈다.

두 형제 느티나무는 10년 전만 해도 비봉농공단지 안에 남아있던 나무까지 하여 삼형제였다. 농공단지 쪽 나무는 지금은 고사하였는데 주민들이 아쉬워하여 대체목을 심었다고 한다. 마을 어르신들 말

씀에 의하면 경로회관 옆 형제나무는 원래 상태 그대로 손을 많이 대지 않아 건강하고 농공단지 쪽 나무는 단지가 개발되면서 나무 주변을 포장했는데 그것이 나무를 고사시킨 원인인 것 같다고 한다. 실제로 나무 가까이에 포장된 도로와 시멘트가 있으면 빗물이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여름철 뜨거운 복사열에 노출되어 왕성한 생장의 시기를 지난 노거수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노거수의 보호를 위해서는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의 지면 포장을 걷어내고 사람이 많이 밟지 않는 것이 좋다. 간단히 말하면 깔끔하게 정비한다고 인공적으로 손을 많이 대기보다는 자연 그대로 두어야 좋다. 자연스러워야 자연이다.

비봉면

전설 같은 바다를 꿈꾼다

방한리 팽나무

소재지 충남 청양군 비봉면 방한리 곡촌

200년 넘은 팽나무가 서 있는 곳은 방한2리에 속하는 곡촌마을 입구다. 이곳엔 과거 서낭당이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정월 보름날 풍물을 치고 무사안녕을 빌던 곳이다.

성황당 또는 서낭당이란 성황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집(곳)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성황신(서낭신)을 설명하자면 한국신화에 나오는 마을의 수호여신이다. 전쟁의 여신인 성황신은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신 중 하나인데 성황신에게 기도하는 서낭당은 건물을 지어 당집을 만들기도 했으나 돌탑이나 큰돌, 신성한 나무에 두는 것이 더 대중적이다. 성황당나무는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세 개의 돌을 던지며 여행길의 무사안녕을 기원하거나 마을 주민들이 마을주민의 안녕과 번성을 빌며 치성을 드리는 곳이다. 성황신이

여성이라는 점이 이채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집을 지은 땅을 지키는 수호신인 터주신도 여신이다. 우리 조상들은 대지와 관련된 공간을 관장하는 존재는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팽나무는 물기가 있는 땅과 마른 땅의 경계에 주로 산다. 그래서 자연제방이나 해안가에서 자생하는 경우가 흔한데 방한리 곡촌마을에는 오래된 옛날, 곡촌 앞들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니 전설에 가까운 이야기지만 어쩐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다. 사실 팽나무의 수명은 500여 년으로 천년을 산다는 느티나무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장수목이므로 마을 어귀나 중심에서 마을나무나 당산나무로 심어져 왔다. 팽나무가 장수하는 특징과 함께 새들의 먹이인 열매가 풍성하게 열려 생명의 나무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방한리 팽나무는 현재 도롯가 버스 승강장 옆에 그늘을 넓게 드리우고 있다. 뿌리 부근부터 두 갈래로 갈라져 올라간 수형 덕분에 나무 밑 그늘이 족히 20m는 넘어 보인다. 넉넉한 품만큼 새들이 좋

아하는 열매가 많아서인지 지저귀는 새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운다. 예전에는 성황당 나무로, 현재는 버스 승강장 지킴이 나무로 여전히 방한리 곡촌마을 터를 지켜온 팽나무가 이제는 조금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듯하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온 드라마에 등장해 화제가 된 팽나무가 있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실제 팽나무가 있는 창원시 북부리 마을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덕분에 주민들의 자부심은 한껏 올라갔다. 좋은 일이지만 한편 나무에는 힘겨운 일이었는지 나무의 건강 상태가 악화하였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온다. 나무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으려는 수많은 사람 때문에 흙이 다져서 단단해지고 나무뿌리가 조금씩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사람의 간섭이 적을수록 나무가 건강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 그렇지만은 않다. 오래 산 보호수 대부분은 사람 사는 곳과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의 적당한 관심과 돌봄이 나무의 수명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나무와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청양의 나무

부록

청양의 보호수 현황

청양의 보호수 현황

(청양군 제공)

수종 / 읍면	계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소나무	팽나무	돌배나무	향나무	꾸지뽕나무	상수리나무
계	85	65	7	2	3	2	2	1	2	1
청양	9	7	2							
운곡	6	5					1			
대치	9	8							1	
정산	11	9	2							
목	2	2								
청남	11	7		2					1	1
장평	9	5			2	1	1			
남양	11	6	2		1	1		1		
화성	6	5	1							
비봉	11	11								

청양읍 | 수종 2, 본수 9

수종	소재지	지목	지정번호	지정일	유형	본수	수령	수고(m)	흉고둘레(m)	수관폭(m)	소유자		관리자
은행나무	읍내리 158	도	8-52	1990.6.1	정자목	1	553년(1470년)	19	4.2	10	국유지	마을	읍내2리 이장
은행나무	읍내리 14-1	대	8-11-209	1990.6.1	정자목	1	343년(1670년)	22	3.35	15	청양군	청양군	청양읍장
느티나무	장승리 산4-2	임	8-11-210	1990.6.1	당산목	1	473년(1540년)	29	5.5	28	-	함평이씨	장승1리 이장
느티나무	학당리 654	도	8-11-211	1990.6.1	당산목	1	323년(1690년)	13	5.2	17	국유지	마을	학당2리 이장
느티나무	백천리549-1	하천	8-11-1-182	1990.6.1	보목	1	233년(1790년)	18	4	26	국유지	마을	백천리 이장
느티나무	청수리 687	도	8-11-1-185	1990.6.1	정자목	1	223년(1790년)	24	3.5	28	국유지	마을	청수1리 이장
느티나무	정좌리 770	도	8-11-1-269	1990.6.1	정자목	1	323년(1690년)	20	4.2	20	국유지	마을	정좌2리 이장
느티나무	교월리 34-1	대	8-11-1-183	1990.6.1	정자목	1	323년(1690년)	20	5	26	향교재단	청양향교	교월3리 이장
느티나무	읍내리 341-1	도	2015-2	2015.5.14	정자목	1	250년(765년)	20	4.4	18.4	군유지	마을	읍내3리 이장

운곡면 | 수종 2, 본수 6

수종	소재지	지목	지정번호	지정일	유형	본수	수령	수고(m)	흉고둘레(m)	수관폭(m)	소유자		관리자
느티나무	후덕리 584-2	도	8-11-212	1972.10.5	정자목	1	341년(1682년)	12	4.4	17	청양군	마을	후덕리 이장
느티나무	영양1리 322	묘	8-11-214	1972.10.15	정자목	1	441년(1582년)	12	3.4	16	-	개인	영양1리 이장
느티나무	후덕리 116	임야	8-11-213	1972.10.15	정자목	1	331년(1682년)	20	7.5	16	-	개인	후덕리 이장
느티나무	모곡리 212	묘	8-111	1990.6.1	보목	1	533년(1490년)	18	5.9	21	-	개인	모곡리 이장
느티나무	모곡리 650	전	8-11-387	1972.10.15	정자목	1	373년(1640년)	29	7	22	-	파평윤씨	모곡리 이장
돌배나무	위라리 742	대	2016-01-01	2016.10.15	보목	1	250년(1991년)	13	3.1	10	-	개인	개인

대치면 | 수종 2, 본수 9

수종	소재지	지목	지정번호	지정일	유형	본수	수령	수고 (m)	흉고둘레 (m)	수관폭 (m)	소유자		관리자
느티나무	장곡리 334-8	도	8-53	1990.6.1	보목	1	633년 (1390년)	18	6.7	22	국유지	마을	장곡리 이장
느티나무	대치리 98-3	도	8-54	1990.6.1	정자목	1	633년 (1390년)	20	6.2	20	국유지	마을	대치리 이장
느티나무	이화리 642	도	8-55	1990.6.1	보목	1	633년 (1390년)	18	6.5	20	국유지	마을	이화리 이장
느티나무	수석리 208	전	8-11-215	1990.6.1	보목	1	533년 (1490년)	15	4.9	16	-	개인	수석리 이장
느티나무	수석리 370-2	전	8-11-216	1990.6.1	보목	1	433년 (1590년)	20	5.4	20	-	개인	수석리 이장
느티나무	오룡리 407	도	8-11-217	1990.6.1	보목	1	333년 (1690년)	20	4.9	20	국유지	마을	오룡리 이장
느티나무	주정리 317-2	도	8-11-1-6-271	1990.6.1	정자목	1	193년 (1830년)	15	3.7	18	청양군	마을	주정1리 이장
느티나무	상갑리 678	도	2015-3	2015.9.16	정자목	1	258년 (1765년)	14	4.7	18	청양군	마을	상갑리 이장
꾸지뽕나무	수석리 539	구	2017-1	2017.6.8	보목	1	246년 (1777년)	12.4	2.5	10	국유지	마을	수석리 이장

정산면 | 수종 2, 본수 11

수종	소재지	지목	지정번호	지정일	유형	본수	수령	수고 (m)	흉고둘레 (m)	수관폭 (m)	소유자		관리자
느티나무	마리치 568	하천	8-58	1972.10.15	정자목	1	541년 (1482년)	18	5.1	29	국유지	마을	마치1리 이장
느티나무	해남리 산 78-1	임	8-11-4-187	1972.10.15	정자목	1	341년 (1682년)	18	4.3	22.3	-	개인	해남리 이장
느티나무	역촌리 760-1	제방	8-11-4-2-273	1972.10.15	정자목	1	191년 (1832년)	16.4	4.8	28.2	국유지	마을	역촌1리 이장
느티나무	광생리 371-1	도로	8-11-219	1972.10.15	보목	1	641년 (1382년)	18	5.5	8	국유지	마을	광생리 이장
느티나무	신덕리 423	도로	8-11-4-189	1972.10.15	보목	1	241년 (1782년)	14	5.6	12	국유지	마을	신덕리 이장
느티나무	와촌리 산6	임	8-11-4-188	1972.10.15	보목	1	441년 (1582년)	17	5.4	26.4	-	개인	와촌리 이장
느티나무	송학리 410	하천	8-11-1-6-274	1972.10.15	정자목	1	141년 (1882년)	16	5.5	27.9	국유지	마을	송학리 이장
은행나무	백곡리 311	대	8-57	1972.10.15	보목	1	541년 (1482년)	23	4.7	16	-	풍천임씨 두촌공파문	백곡2리 이장
은행나무	서정리 516-3	종교	8-56	1972.10.15	정자목	1	641년 (1382년)	22	6.2	23.4	정산 향교	정산향교	서정1리 이장
느티나무	백곡리 621	도로	8-11-218	1972.10.15	정자목	1	441년 (1582년)	9.5	4	16	국유지	마을	백곡1리 이장
느티나무	백곡리 73 선	도로	8-11-219	1972.10.15	정자목	1	591년 (1432년)	10	5	17	국유지	마을	백곡2리 이장

목면 | 수종 1, 본수 2

수종	소재지	지목	지정번호	지정일	유형	본수	수령	수고 (m)	흉고둘레 (m)	수관폭 (m)	소유자		관리자
느티나무	본의리 266-3	대	8-11-5-193	1972.10.15	보목	1	341년 (1682년)	12.5	3.6	21	본의1리 새마을	마을	본의1리 이장
느티나무	본의리 108	구	8-11-5-192	1972.10.15	정자목	1	491년 (1532년)	20	4.9	27	청양군	마을	본의1리 이장

청남면 | 수종 4, 본수 11

수종	소재지	지목	지정번호	지정일	유형	본수	수령	수고 (m)	흉고둘레 (m)	수관폭 (m)	소유자		관리자
느티나무	내직리 364	답	8-11-220	1990.6.1	보목	1	433년 (1590년)	19	5.2	26.5	사유지	마을	내직1리 이장
느티나무	동강리 643	도	8-11-221	1990.6.1	정자목	2	433년 (1590년)	14	6.1	26	국유지	마을	동강리 이장
버드나무	청소리 601	구	8-11-6-1-484	1990.6.1	보목	1	433년 (1590년)	15	4.7	18.8	국유지	마을	청소2리 이장
버드나무	천내리 800	구	8-11-6-4-227	1990.6.1	정자목	1	423년 (1600년)	15	6.2	19.3	국유지	마을	천내1리 이장
느티나무	동강리 641-9	대	8-11-6-5-278	1990.6.1	보목	1	273년 (1750년)	12.5	4.6	22.7	동강리 새마을회	마을	동강리 이장
느티나무	아산리 425-1	임	8-11-6-10-481	1990.6.1	보목	1	433년 (1590년)	20.5	6.7	17	사유지	마을	아산리 이장
꾸지뽕나무	지곡리 196-1	전	2015-12-01	2015.2.27	보목	1	258년 (1765년)	10	2.7	9.4	-	개인	개인
느티나무	천내리 46	임	2016-2	2016.5.13	정자목	2	357년 (1666년)	10	5.6	16.4	사유지	마을	천내2리 이장
상수리나무	중산리 산15	임	2017-2	2017.6.8	보목	1	206년 (1817년)	15.2	3.8	12.6	사유지	마을	중산리 이장

장평면 | 수종 4, 본수 9

수종	소재지	지목	지정번호	지정일	유형	본수	수령	수고 (m)	흉고둘레 (m)	수관폭 (m)	소유자		관리자
느티나무	구룡리 189	묘	8-11-224	1972.10.15	정자목	1	691년 (1332년)	18	7.5	22	-	개인	구룡리 이장
느티나무	화산리 478	대	8-11-223	1972.10.15	정자목	1	541년 (1482년)	16	3.4	26	대한불교 조계종 정혜사	정혜사	화산1리 이장
팽나무	미당리 23	도	8-11-7-4-485	1972.10.15	보목	1	241년 (1782년)	11	3.2	17.8	국유지	마을	미당1리 이장
느티나무	낙지리 263-1	대	8-11-7-8-483	1972.10.15	정자목	1	191년 (1832년)	14	3.5	26.8	낙지리 새마을회	마을	락지리 이장
느티나무	낙지리 263-1	대	8-11-7-8-482	1972.10.15	정자목	1	241년 (1782년)	19	4.9	30	낙지리 새마을회	마을	락지리 이장
소나무	적곡리 산21-3	임	8-11-369	1991.5.14	정자목	1	632년 (1391년)	20	2.7	15	-	개인	적곡리 이장
느티나무	지천리 214-1	전	8-11-222	1972.10.15	정자목	1	441년 (1582년)	7.5	4.7	18.8	사유지	마을	지천리 이장
소나무	화산리 486	종	8-11-7-5-486	1972.10.15	풍치목	1	591년 (1432년)	12	2.3	16.8	대한불교 조계종 정혜사	정혜사	화산리 정혜사
돌배나무	적곡리 산8-2	임	8-11-7-385	1991.5.14	정자목	1	691년 (1332년)	16.5	2.5	12	-	개인	적곡리 이장

남양면 | 수종 5, 본수 11

수종	소재지	지목	지정번호	지정일	유형	본수	수령	수고 (m)	흉고둘레 (m)	수관폭 (m)	소유자		관리자
느티나무	흥산리 178	전	8-11-226	1972.10.15	정자목	1	341년 (1682년)	11	5.5	17	-	개인	흥산1리 이장
은행나무	흥산리 349	전	8-11-5-195	1972.10.15	정자목	1	311년 (1712년)	26	5	23.4	-	개인	흥산2리 이장
은행나무	봉암리 150-13	대	8-59	1972.10.15	보목	1	641년 (1382년)	29.5	11.4	23	-	개인	봉암1리 이장
느티나무	신왕리 525-2	대	8-11-225	1972.10.15	정자목	1	541년 (1482년)	15	3.9	20.7	사유지	마을	신왕2리 이장
느티나무	금정리 626	구	8-11-228	1972.10.15	정자목	1	341년 (1682년)	13.5	4.7	13.8	국유지	마을	금정1리 이장
느티나무	온직리 290	대	8-11-227	1972.10.15	정자목	1	441년 (1582년)	19	5.3	23.4	사유지	마을	온직1리 이장
느티나무	구룡리 546-1	도	8-11-4-194	1972.10.15	정자목	1	273년 (1750년)	15	5.3	20.2	국유지	마을	구룡1리 이장
소나무	용마리 산 112-1임	임	8-11-8-4-279	1972.10.15	정자목	1	-	14.5	2.9	17.7	-	개인	용마1리 이장
느티나무	용마리 677	도	8-11-8-4-880	1972.10.15	정자목	1	191년 (1832년)	16.5	4.7	20	국유지	마을	용마1리 이장
향나무	매곡리 425	전	8-11-8-4-281	1972.10.15	정자목	1	191년 (1832년)	9.5	2.5	7.5	-	개인	매곡1리 이장
팽나무	신왕리 222-2 선	도	2014-01	2014.12.26	정자목	1	308년 (1715년)	18	3.6	16.4	국유지	마을	개인

화성면 | 수종 2, 본수 6

수종	소재지	지목	지정번호	지정일	유형	본수	수령	수고 (m)	흉고둘레 (m)	수관폭 (m)	소유자		관리자
은행나무	광평리 243-1	임	8-11-8-198	1972.10.5	정자목	1	291년 (1732년)	12	6.9	20	-	개인	광평리 이장
느티나무	매산리 312	구	8-11-9-199	1972.10.15	정자목	1	291년 (1732년)	20	6.1	25	국유지	마을	매산리 이장
느티나무	매산리 557	구	8-11-230	1990.6.1	정자목	1	383년 (1640년)	8	6.2	15	국유지	마을	매산리 이장
느티나무	수정리 34-6	도	8-11-8-197	1972.10.15	정자목	1	241년 (1782년)	18	6.2	20	군유지	마을	수정리 이장
느티나무	용당리 546	도	8-11-229	1972.10.15	정자목	1	341년 (1682년)	14	6.5	15	국유지	마을	용당리 이장
느티나무	화강리 636	도	2017-4	2017.10.10	정자목	1	423년 (1600년)	18	-	-	-	마을	화강리 이장

비봉면 | 수종 1, 본수 11

수종	소재지	지목	지정번호	지정일	유형	본수	수령	수고 (m)	흉고둘레 (m)	수관폭 (m)	소유자		관리자
느티나무	장재리 520-1	도	8-11-232	1972.10.5	정자목	1	241년 (1782년)	14	5	14	국유지	마을	장재리 이장
느티나무	강정리 682	도	8-11-10-200	1972.10.18	정자목	1	341년 (1682년)	8	4.4	10	국유지	마을	강정리 이장
느티나무	양사리 347-1	전	8-11-10-201	1972.10.15	정자목	1	241년 (1782년)	18	4.6	21	-	개인	양사1리 이장
느티나무	양사리 708-1	임	8-11-10-202	1972.10.15	정자목	1	241년 (1782년)	20	4.3	26	-	개인	양사1리 이장
느티나무	용천리 산33-3	임	8-11-10-203	1972.10.15	정자목	1	311년 (1712년)	19	4.9	19	-	개인	용천리 이장
느티나무	방한리 993	도	8-11-10-205	1972.10.15	정자목	1	241년 (1782년)	15	5.2	16	국유지	마을	방한리 이장
느티나무	방한리 145	임	8-11-10-206	1972.10.15	정자목	1	191년 (1832년)	18	3.8	15	-	개인	방한리 이장
느티나무	방한리 145	임	8-11-10-207	1972.10.15	정자목	1	241년 (1782년)	14	5	12	-	개인	방한리 이장
느티나무	방한리 988	구	8-11-10-208	1972.10.15	정자목	1	261년 (1762년)	15	4.8	20	국유지	마을	방한리 이장
느티나무	신원리 88-4	답	8-11-10-2-282	1972.10.15	정자목	1	171년 (1852년)	13	4.1	14	-	개인	신원리 이장
느티나무	관산리 268	구	8-11-231	1972.10.15	정자목	1	691년 (1332년)	15	7.7	20	국유지	마을	관산리 이장

도움주신 분

서덕자(청양읍 장승리)

백낙순(운곡면 영양리)

명형철(운곡면 후덕리)

유문규(대치면 이화리)

김창순(정산면 신덕리)

변상기(정산면 용두리)

우준식·우희숙(청남면 동강리)

우제관(청남면 아산리)

백승화(청남면 지곡리)

권대원(남양면 구룡리)

방면석(남양면 봉암리)

이근우(화성면 매산리)

정진홍·최완수(비봉면 방한리)

유월숙(비봉면 중묵리) 외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강윤정

참고문헌

『청양군지』 청양군지편찬위원회, 청양군, 1994.

『청양군지』 청양군지편찬위원회, 청양군, 2018.

『번암집』 채제공, 홍기은·송기채 옮김, 한국고전번역원, 2017.

『정조와 채제공 그리고 정약용』 박영규, 김영사, 2019.

『청양을 이야기하다』 청양군, 2011.

『청양의 옛길』 김기상·김명숙·복권승, 청양문화원, 2017.

『청양의 당제』 임동권 외, 청양문화원, 2005.

『청양의 지명과 전설』 임동권 외, 청양문화원, 2005.

『공주와 동학』 박맹수·정선원, 모시는사람들, 2015.

『칠갑산 하늘가 향기로운 이야기들』 서기석, 청양문화원, 2017.

『청양신문』 1992~2023년까지 마을취재 기사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키워드 검색 '호랑이' '청양'

보호수·노거수, 마을 공동체 이야기

청양의 나무

발행일 2023년 12월 22일

발행처 청양문화원

주소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전화 041) 944-4774~5

팩스 041) 944-1030

글 복권승

사진 박정기

감수 명제협 / 김현락

디자인 인쇄 디자인공작소협동조합

비매품

이 책은 충청남도와 청양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청양의 나무

청양문화원

비매품

이 책은 충청남도와 청양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